

목 차

1. 워크숍 개요	002
2. 기조발제 : 임경수 박사	005
협동조합 이장 고산퍼머컬처센터장	
3. 농촌마을의 활동 사례	
박기윤 : 화천 현장귀농학교	051
박종관 : 상주 정양리 이장	057
한석주 : 제천 청년마을(주)	073
김주영 : 완주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095
정민철 : 홍성 젊은 협업농장	107
문영규 : 곡성 향꾸네 협동조합	133
4. 청년 사례	
하성민 : 남해 카카카	165
김지현 : 영월 발명	209
유현영 : 제천 갤러리오지	273
김수영 : 제천 덕뿌네공방	277
김덕희 : 제천 넉넉한 사람들	285
주재훈 : 문경 달빛 탐사대	293
엄지상 : 화천 귀농학교	303
민재희 : 영덕 지역활동	311
7. 메모장	321

' 22년도 청년과 사회적 농업 심화 워크숍

□ 개최목적

○ 농촌과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새로운 삶의 생태계는 어떻게 형성 될 수 있을까? 현실로 다가온 농촌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농촌에 청년들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듯이 말하지만 막상 삶의 전환을 꿈꾸며 찾아온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아가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해 온 농촌마을 주체와 농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주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기대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보며 상생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 청년마을(주) 주관으로 지난 5월까지 2달동안 오송에서 5가지 주제로 250여명이 참여하였던 <사회적 농업 공통교육 기초과정> 후속으로 준비한 청년주제 사회적농업 심화과정 워크숍 <청년과 사회적 농업>입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농촌마을이 바라는 청년의 삶, 청년이 바라는 농촌의 삶”

○ 일 시 : '22. 11. 25(금) 12:00 ~ '11. 26(토) 13:00

○ 장 소 : 제천시

* 주소 : 청풍리조트 힐호텔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63)

○ 주관/주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사단법인한국사회적농업협회

○ 참석대상 : 사회적 농업 농장관련자, 청년관련 농촌마을 주체와 청년, 정책담당자, 시군 담당공무원, 청년주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심 있는 조직·단체 등

- 기조발제 : 한국에서 청년의 현실을 살펴보고 정부의 주요 농촌 관련 청년정책과 농촌마을의 대응그리고 연관된 청년의 활동을 보고 대안제시
- 농촌마을의 활동 : 전국의 대표적 청년 주제 사회적농장과 청년 활동이 활발한 마을 사례발표와 토론
- 농촌관련 다양한 청년 정책에 따라 이주한 대표적 청년사례 발표와 토론

공유하다

사회적농업 실태와 주제 워크숍

농촌이 바라는 청년의 삶, 청년이 바라는 농촌의 삶

장소 제천시 청풍면 청풍리조트 힐호텔

일시 2022년 11월 25일 13시 ~ 11월 26일 12시 30분

25일(금)

26일(토)

12:00 ~ 13:00 잡식자 등록

13:00 ~ 13:30 인사 및 소개

13:30 ~ 15:00 기초발제: 임경수 박사
정동호장 어장 고산학마을 직방마을

15:30 ~ 17:30 사례 발표

좌장: 정민철 박사

박기훈 화천 천장귀농학교

박종관 강주 영남리 마을

한석주 제천 영남마을(주)

김준성 리우 새마을마을공동체

정민철 홍성 신평 협농농장

윤영규 곡성 향곡에 힐드코업

17:30 ~ 18:30 참가자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8:40 ~ 20:40 저녁한잔 맛 교류의 시간

08:00 ~ 9:10 온종일 제천시청 인사발

09:00 ~ 11:00 사례 발표

사회: 한델이꽃집(주)조계희

하성영 새마을주식회 남해 카가카

김지현 새마을 영월 발명

유현영 새마을 제천 일리리교회

김수영 새마을주식회 제천 새마을공동체

김희희 새마을 제천 덕덕한 사람들

주재훈 새마을 문경 달빛 한아대

염지성 새마을주식회 화천 귀농학교

임재희 새마을주식회 영덕 자매마을

11:30 ~ 12:30 참가자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2:30 ~ 점심식사

장소: 반향리 새마을

(종로 제천시 청풍면 청풍리조트 4층)

주최: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진흥연구소,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진흥연구소

주최: 제천시청, 제천시청 산하 제천시청, 제천시청 산하 제천시청, 제천시청 산하 제천시청

중첩된 위기와 지역사회

임경수

1

■ 소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박사
- 충남 홍성군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교사
- 주식회사 이장 (사회적기업) 대표이사
- 전북 완주군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센터장
-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
- 논산시 공동체경제추진단장(사회적경제 정책관)
-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 협동조합 이장 부설 고산퍼머컬처센터장
- (주)브랜드룩 COO

● 책

이래서 나는 농사를 선택했다 (1999, 양문출판)
농, 살림을 디자인하다 (2013, 들녘)
이제, 시골 (2020, 소일)
농촌은 귀농을 원하지 않는다 (2022, 유페이퍼)
(공저) 행복한 진로학교 (2011, 시사IN)
(공저)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2016, 살림터)



2

농업 농촌의 현실

3

■ 귀농귀촌 현황 (2020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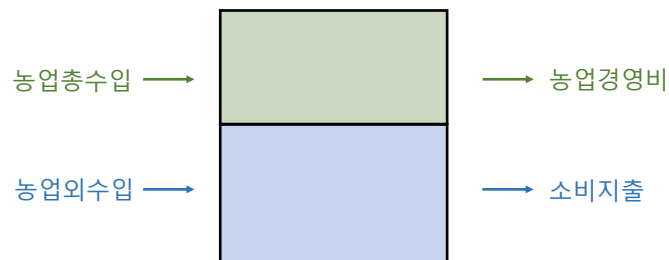
■ 농업농촌 통계 총괄(2020년)

- 2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 5천 3백만원
2인 농가의 평균소득 : 3천 9백만원 (대비 74%)
- 농업총수입 : 3천 6백만원, 농업경영비 : 2천 4백만원
→ 농업의 순소득 : 1천 2백만원
- 농업총수입 역대 농부 : 전체농가의 2.6%
- 5천만원 농업 순소득을 올리기 위한 밭 경지면적 : 7~10ha
전남 농지가격 (4만5천원/평)을 고려 : 10억원 내외 투자
이 경우의 연간 노동시간 2,000시간 (주당 42시간)

5

■ 농가경제의 분석

- 농가경제의 분석틀



6

■ 농업부문의 변화추이

■ 농업부문

지난 30년간 농업총수입 3.6배 증가, 농업경영비 7.9배, 농업소득 1.7배



7

■ 농가부문의 변화추이

■ 농가전체



농가소득과 가계지출이 유사한 등락을 보이며 상승, 이에 따라 농가경제잉여는 제자리에 유지

8

■ 농업총수입의 증가 : 경지규모 확대

- 가구당 경지면적의 변화



9

■ 농업총수입의 증가 : 경지규모의 확대

- 경지규모 확대의 한계
 - ① 확대하는 농지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 ② 한 시기에 집중되어야 하는 농업노동의 특성에 따른 인건비 증가
 - ③ 기계화에 따른 에너지 지출 비용의 증가
- 충북의 복숭아 농사를 짓는 귀농인의 사례
 - ✓ 귀농 5년차 손익분기점 / 나머지 토지의 개간 / 브랜드화
 - ✓ 농장 확장 이후 손익분기점의 재 산정 필요

10

■ 지출의 감소 : 농촌의 가계지출

- 농촌경제의 소비지출에 대한 오해

도시가구의 월 소비지출 295만원 / 농촌 가구의 월 소비지출 224만원



농촌 40대 가구는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에 근접, 농촌 4인 가구는 도시가구보다 더 많이 지출

11

■ 지출의 감소 : 농촌의 가계지출

- 오해의 시작 : 평균의 함정

농가평균 224만원, 70대 농가의 월 소비지출 179만원 (도시가구 대비 60%)

- 오해의 시작 : 과거의 추억

1970년 도시의 월 가계지출 27,820원 / 농촌의 월 가계지출 17,314원 (대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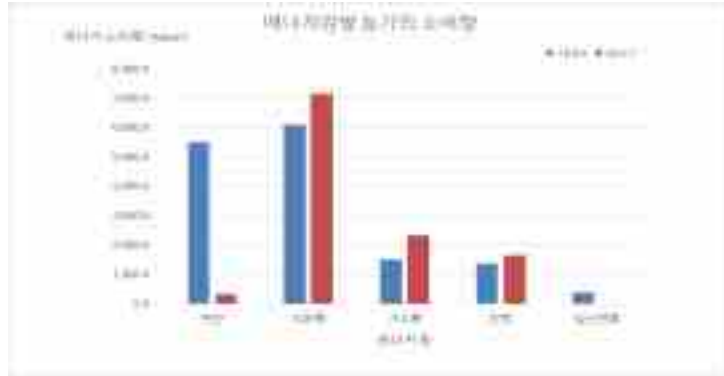
- 농촌의 소비지출의 증가요인

- ① 활동공간의 확장
- ② 필요한 상품의 현금 구매 비중의 증가
- ③ 에너지 소비 비용의 증가
- ④ 기반시설의 부족

12

■ 지출의 감소 : 농촌의 가계지출

- 에너지원별 농가의 소비량



열량당 가격이 높은 에너지원의 사용 증가, 이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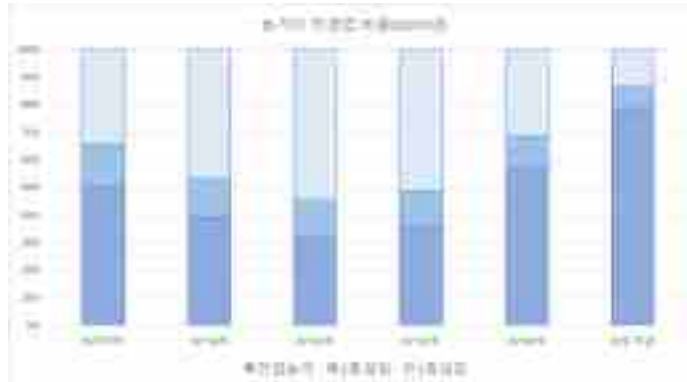
■ 현실적 대안 : 겸업

- 농촌의 농업 종사자 현황
 - 1930년 군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 1,193만명
농수산분야 취업인구 : 757만명 (65%)
 - 2020년 읍면부 15세 이상 인구 : 489만명
농림어업종사자 : 92만명 (18.6%)
- 전업 및 겸업 현황
 - 1960년 232만 농가 중 170만 농가가 전업 (73.2%)
 - 2020년 103만 농가 중 62만 농가가 전업 (60.0%)

14

■ 현실적 대안 : 겸업

- 연령별 전/겸업 현황



30대~50대의 겸업, 특히 2종 겸업의 비율이 높음

15

■ 현실적 대안 : 겸업

- 겸업농이 늘어나는 이유
 - 1992년 전업농가의 농업소득 892만원 / 가계지출 927만원의 96.6%
 - 2020년 전업농가의 농업소득 1,552만원 / 가계지출 2,895만원의 53.6%
 - * 도시근로자의 근로소득 4,794만원의 32.4%
- 논산에 귀농한 딸기하우스 농부의 현실
- 돈 잘 버는 농민을 많이 만든다고 농촌은 살아나지 않지만
적절한 소득이 있는 농촌을 만들면 농업을 살릴 수 있다.

16

■ 농촌의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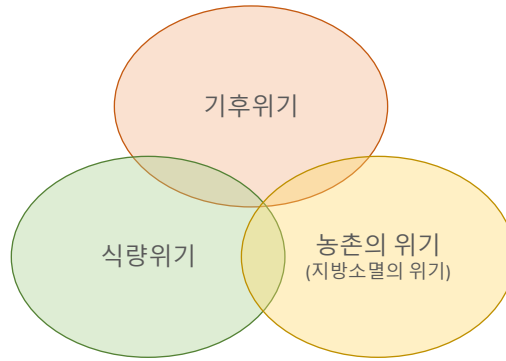
■ 농촌의 일자리 현황

구 분		동부	읍면부	비고
15세 이상 취업인구 (명)		35,649,994	8,321,384	
근무지 기준 취업인구 (명)	전체	20,131,994	5,707,574	
	농림어업	168,140	943,147	
	건설·제조업	4,489,158	1,735,431	
인구 천명당 취업 일자리 (개)	전체	565	686	
	농림어업	5	113	
	건설·제조업	126	209	

- 일자리의 숫자는 많지만 농림어업비중이 크고 건설/제조 일자리가 많다.

중첩된 위기

■ 세가지 위기



19

■ 기후위기

-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날씨의 변 (예 : 반복된 빙하기)
→ 최근의 기후변화는 지구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온난화
- 온난화가스(이산화탄소, 물, 이산화질소, 메탄 등)는 지표면에서 반사하는 적외선을 흡수,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데 온실가스 중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역할
-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기온 6.4℃, 해수면 38 cm 상승
- 이미 산업화 이전 보다 1℃ 상승했는데 2℃ 올라가면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발생을 예측
→ 이러한 지구의 변화는 비가역적이어서 2℃ 상승 이후 기온상승 억제 불가능
- IPCC(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보고서를 통해 1.5℃ 상승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 이산화탄소를 45% 감소해야 하고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같아지는 ‘Net 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

20

■ 그린뉴딜(Green Newdeal)

-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이동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원칙은 1) 기후변화 대응 2) 일자리 창출 3) 불평등 해소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동차 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의미
- 유럽연합 유럽그린딜 정책 추진, 미국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
- 한국은 코로나 19이후 국가발전전략으로 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중의 하나로 그린뉴딜을 채택했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석탄산업에 대한 조정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만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1

■ 그린뉴딜 : 2025년까지 73조 4천억원 투자, 65만개 일자리 창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란?
회생과 회복의 중심에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③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2. 저탄소 성장형 에너지 전환

- ① 재생에너지 확대·발전·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
- ② 재생에너지 확대·발전·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
- ③ 재생에너지 확대·발전·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

3. 녹색산업 확산 생태계 구축

- ① 녹색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 ② 녹색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 ③ 녹색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22

■ 식량위기

- 인류는 지구상의 약 30,000 종의 동식물을 섭취 가능하지만 주로 30여종의 활용
- 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작물은 밀, 쌀, 감자, 콩, 옥수수
- 한국인은 옥수수보다 콩을 더 많이 먹어 우리 식량작물은 쌀, 밀, 콩, 감자
- 2020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 45.3% (OECD 38개국 중 하위)
- 우리나라 곡물자급율 19.3% (계속 하락중)
 - 쌀 자급율 92.8%, 밀 자급율 0.8%, 콩 자급율 30.4%, 감자 자급율은 100%가 넘지만 씨감자 자급율은 20%
-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자급에 대한 위기감 고조

23

■ 식량위기



- 콩은 쌀, 보리, 조, 기장과 함께 오곡의 하나
- 한반도에서 기원전 2,000년 ~1,500년 전부터 재배
- 콩나물, 콩기름, 두부, 유부, 된장, 간장 등의 원료
-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전국에서 5,310점 수집, 현재는 100여종만 생산



- 밀에는 7~14%의 단백질이 함유, 밀가루를 만들어 반죽하면 글루텐 형성
이 글루텐의 밀반죽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게 해 지구인의 주식이 됨
- 원산지는 중국으로 기원전 2,000년 재배, 우리나라는 기원전 100년 도입
- 2020년 1인당 밀소비량은 쌀 소비량의 57%, 2021년 국산밀 생산량은 쌀 생산의 0.6%, 한국전쟁이후 미국산 수입밀로 생산기반 붕괴



- 감자의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산맥,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재배
- 우리나라는 1820년~30년경 중국에서 도입
- 추위에 강해 북한에서 구황작물도 많이 재배
- 재배하는 감자는 수미감자가 주종이 되었고 다른 성품의 감자는 일부만 재배



- 벼농사의 기원지는 한반도 (기원전 13,000년~16,000년충북 옥산면 소로리)
-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성품의 벼가 존재했음
-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와 협업하여 개발한 품종을 필리핀에 역수출
- 국제미작연구소 보유품종 129,590종, 우리 보유품종 450여종

24

■ 농촌의 위기

■ 지방소멸과 고향사랑기부제



25

■ 농촌의 위기

■ 지방소멸과 대응기금

- 인구감소지역 선정의 지표 (8개)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유소년비율, 조출생율, 재정자립도
- 시군구 단위로 지정
전라남북도 기초지자체의 70% 이상,
강원도의 기초지자체의 60% 이상
대구광역시 2개구, 부산광역시 2개구 포함
- 인구감소지역 남원시의 현황
1972년 18만명 → 2022년 7만 9천여명
도시지역 5개동에 인구의 60%가 거주
수지면 : 600여 가구, 1,200여명, 고령인구 500여명
-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외곽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촉진할 가능성 있음



26

■ 농촌의 위기

● 고향사랑기부제의 이해

- 지자체는 주민복지 증진의 위해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한 모금활동을 할 수 있음 (법인과 단체는 기부 금지, 개인별 상한액 500만원)
- 이 기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차명, 가명, 지자체 이해관계자의 기부금지 / 업무와 고용관계를 이용한 강요 금지
- 모금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 → 금융기관 납부, 전자결제, 공개 접수
※ 금지된 모금행위 : 개별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사적 모임에서의 권유
- 답례품 : 30% 이내 → 지역 특산물, 상품권 등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이상의 금액 16.5%
- 기부금의 활용 : 기금 설치 →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및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의 복지 증진, 기부금 모집과 운영 비용 (15% 이내)

27

■ 기후위기와 농업

■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 이상기후로 인한 농지 유실, 물 부족 등 농업기반 약화
- 주산지가 복상하는 등 재배적지의 변화, 새로운 병해충의 증가
- 세계농식품시스템(생산, 가공, 유통)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 차지
- 가축의 위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1배 온난화 촉진 → 배출량의 10%

* 농업이 가해자가 된 것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농업방식과 과도한 축산 때문

■ 이제 농업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함

28

■ 기후위기와 농업

- 농축수산 분야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3.39%, 기여, 2018년 대비 37.6% 감축해야

1-10月主要经济指标完成情况表						
单位：亿元						
项目	10月	11月	12月	12月	12月	12月
一、地区生产总值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二、规模以上工业增加值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三、固定资产投资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四、社会消费品零售总额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五、一般公共预算收入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六、一般公共预算支出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七、一般公共预算收支平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八、一般公共预算收支平衡率	75%	75%	75%	75%	75%	75%
九、一般公共预算收支平衡率	75%	75%	75%	75%	75%	75%
十、一般公共预算收支平衡率	75%	75%	75%	75%	75%	75%

29

■ 기후위기와 농업

- 농업분야의 온실가스배출량(2018)

항목	2019년 10월 20일 기준					비고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2019	10.2	6.3	5.5	4.3	4.9	22

- 탄소중립을 위한 농축수산물분야 감축량 (2050)

구분	2019년 4분기	2019년 3분기
매출	26,790	15,890
영업이익	3,290	3,290
순이익	2,290	1,290

30

■ 기후위기와 농업

- 농업분야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31

■ 기후위기와 농업

- 감축수단 1 : 연료전환
 - 고효율설비를 시설원에 등 시설에 적용
 - 농기계의 전기, 수소 전환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
 -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 감축수단 2 : 영농법 개선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 논물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한 메탄가스 발생 저감
 -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를 통한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
 - 바이오차 토양개량제 보급
 - 스마트팜, 정밀농업 활용
- 감축수단 3 : 가축관리
 - 저탄백질,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분뇨배출 메탄의 회수
 - 스마트 축사 보급

32

■ 기후위기와 농업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지금과 같은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계속 살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를 축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일자리 문제'로 제한하면 한정된 파이를 내가 가질지, 네가 가질지 논의하게 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이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대량생산, 대량소비, 과도성장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당장 답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

< 경향신문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3)” 2021. 6. 10>

33

■ 기후위기와 농업



- 4per1,000이니셔티브
매년 토양에 탄소축적량을 0.4%씩 늘리자
(www.4P1000.org)
- 지금도 토양에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량의 3배, 동식물 유기체 탄소의 4배가 축적되어 있으며 지난 150년간 토양에서 배출된 탄소량은 이전 토양에서 배출된 탄소량의 42.5%

→ 토양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34

■ 기후위기와 농업

- 퍼머컬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



35

■ 기후위기와 농촌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

기존 산업체계가 흔들리며 다수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며 로컬 일자리가 이러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생산,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는 로컬 일자리는 △근거리의 안전한 생태적 휴식공간, △로컬 공공의료체계, △마을돌봄망, △마을 학교와 교육공동체, △재생에너지 공동체, △주거복지와 마을관리소, △폐기물과 자원순환, △로컬 모빌리티 등이다. 생태적 휴식공간이 마을에 생긴다면, ‘마을정원 관리자’, ‘생태놀이 선생님’, ‘생태교육자’ 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로컬 공공의료체계’ 도입을 통해서도 ‘케어 플래너’, ‘케어 매니저’ 등의 일거리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린뉴딜과 로컬일자리: 가까운 미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0.10>

36

■ 기후위기와 농촌

- ESG :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균형있게 살피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 RE100 :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 미니멀리즘 : 최소주의, 단순함에서 우러나는 미를 추구하는 경향
- E-commerce : 전자상거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
- 제로웨이스트 :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
- 비거니즘 : 완벽하지 않지만 채식중심의 식사로 전환하는 것
- 그린워싱(Green Washing) : 환경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위장하는 것
- 행동주의기업 : 비즈니스 자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경영
- 탄소발자국 :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
- 로컬리즘 :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

37

■ 기후위기와 농촌



38

■ 기후위기와 농촌



39

■ 기후위기와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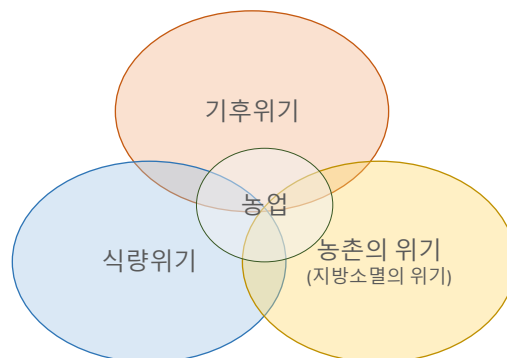
40

■ 기후위기와 농촌



41

■ 세가지 위기와 농업



42

새로운 대안 상상

43

■ 지역경제순환



소도읍 자전거가게와 대형마트



남도의 차밭과 대도시 술집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광장시장

서천읍의 자전거 가게는 인근 도시 대형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자전거 수리만 하고 하동의 농부들은 녹차 농사로 번 돈으로 인근도시 술집으로 가며 전주 한옥마을의 대여한복은 서울 광장시장에서 만든다.

1

44

■ 지역경제순환

지역	전주시	진안군	순창군
예산	2조 587억원	4,493억원	4,204억원
인구	65만7,432명	2만5,394명	2만 7,810명
가구수	28만 4,106가구	1만3,406가구	1만 4,097가구
1인당 예산(원)	2,131,427	17,693,156	15,116,864
가구당 예산(원)	7,246,239	33,514,844	29,821,947

*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예산은 2020년 재정공시자료(예산)
 <참고> 농가순소득 2,758만원(2019년), 농업소득 1,026만원(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165,202원(4인가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데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45

■ 지역경제순환



46

■ 지역경제순환



47

■ 지역경제순환

제10회 글로벌엑스포럼, 담양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2017)", P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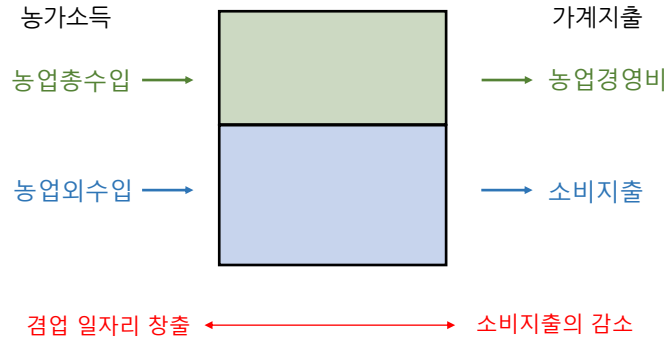


일본 동북부의 히가시오미시는 지역회계를 도입, 지역경제의 순환 정도를 측정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산업 별부가가치 4463억엔중 소비 682억엔, 에너지구입 332억엔, 투자 0.5억엔 유출되었다.

48

■ 커뮤니티비즈니스

▪ 농촌 일자리 대안에 대한 상상



지역에 필요한 것을 주민 A가 생산하여 저렴하게 공급
 지역의 다른 주민 B가 생산한 것을 주민 A가 저렴하게 구매

49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출이 줄어 들 수 있는 가능성

- ① 저렴한 지대
 - 일정 시간에만 운영할 있으며 요일제, 시간제 등 유연한 고용도 가능
- ② 사업규모와 운영방식의 유연화 가능
 - 도시에선 일정 수준의 생산이 필요,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
 - 관계에 의한 고객 확보로 홍보, 마케팅 비용의 감소
- ③ 불필요한 비용의 감소
 - 소비자가 생산과정에 참여

50

■ 커뮤니티비즈니스



완주군 순가락공동육아 협동조합
(넵's 행복실험실 블로그)



완주군 모여라땡땡땡 공유부엌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51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



52

■ 커뮤니티비즈니스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



53

■ 커뮤니티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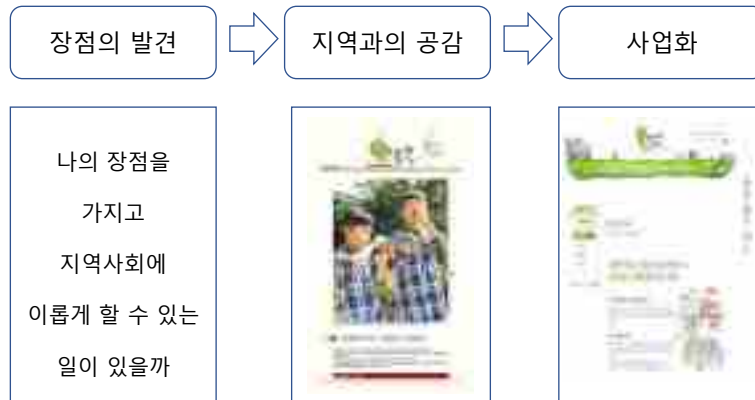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



54

■ 커뮤니티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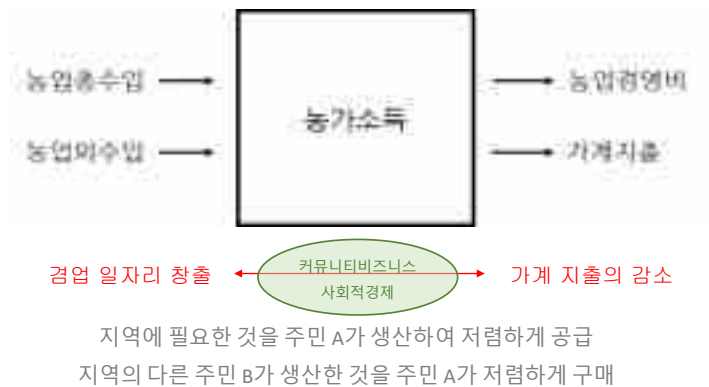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



55

■ 커뮤니티비즈니스

▪ 농촌 일자리 대안에 대한 상상



56

■ 지역자산화



57

■ 지역자산화



악마의 맷돌 : 자본이 노동, 금융, 토지를 소유하는 것

58

■ 지역자산화

■ 지역(시민)자산화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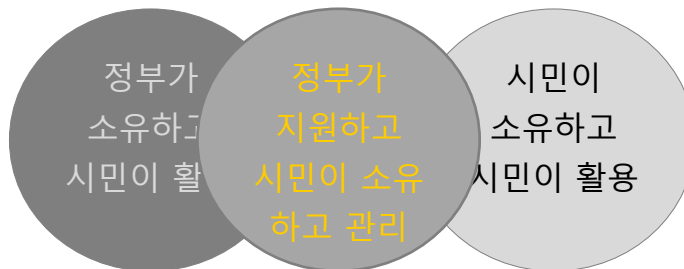
지역자산화란 다수의 주민이 힘을 모아 토지와 건물 등 공동 소유의 자산을 마련해 운영, 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개념



59

■ 지역자산화

■ 3가지 방향



60

■ 지역자산화 사례



출자금 : 3억원
 클라우드 펀딩 : 2억원
 기관 출자 및 투자 : 2억원
 사회적대출 : 27억원

61

■ 지역자산화 사례



62

■ 우리는 중첩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역경제순환
마을공동체
리빙랩
사회혁신
협동조합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공유경제
도시재생
지역자산화

63

■ 우리는 중첩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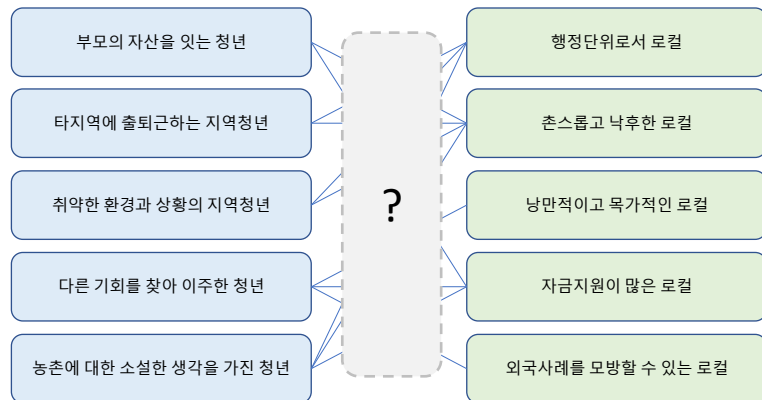
지역경제순환
마을공동체
리빙랩
사회혁신
협동조합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공유경제
도시재생
지역자산화
農

64

지역사회와 청년

65

■ 다층적 청년과 편견의 로컬



『로컬의 진화』 (류석진 외, 스리체어스, 2020) 중
'로컬에 대한 다섯가지 편견' 을 각색

66

청년들이 로컬로 찾아오는 이유



67

크리스탈워터즈와 멀레니



68



69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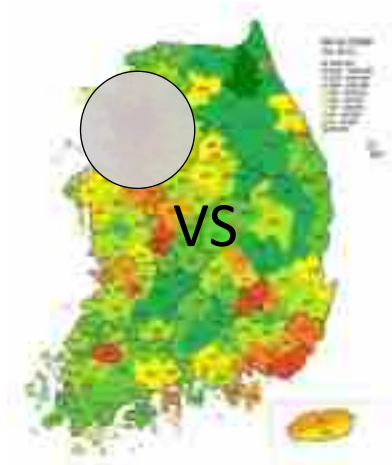


71



72

■ 로컬과 로컬리티



VS



73

■ 로컬과 로컬리티

• 로컬리티 (Locality)

• 개념

“삶의 터로서의 로컬(공간)과 거기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시간)을 통해 만들어가는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

• 배경

근대성의 이분법적 구조 안에서 배제되었거나 묻혀버렸던 다양한 가치들이 로컬에 내재

• 구성요소 : 공간, 시간, 사유, 표상, 문화

74

■ 미래세대를 위해



75

■ 미래세대를 위해



76

■ 미래세대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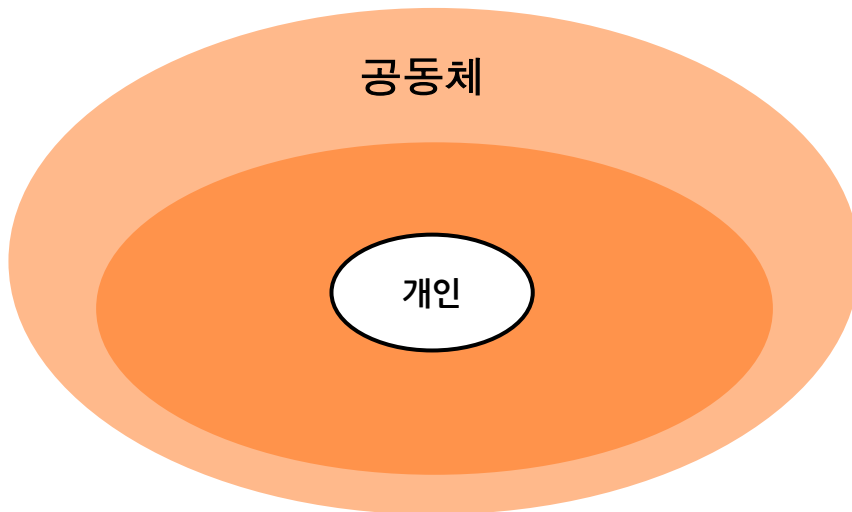
77

■ 미래세대를 위해



78

■ 미래세대를 위해



79

■ 미래세대를 위해



80

■ 미래세대를 위해



81

■ 미래세대를 위해



4천년의 농부

작가 최현룡인·허광희 | 출판 한국 | 발매 2016.02.26

82

■ 미래세대를 위해



농장에서 일하는 농사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 로봇과 인공지능



83

■ 미래세대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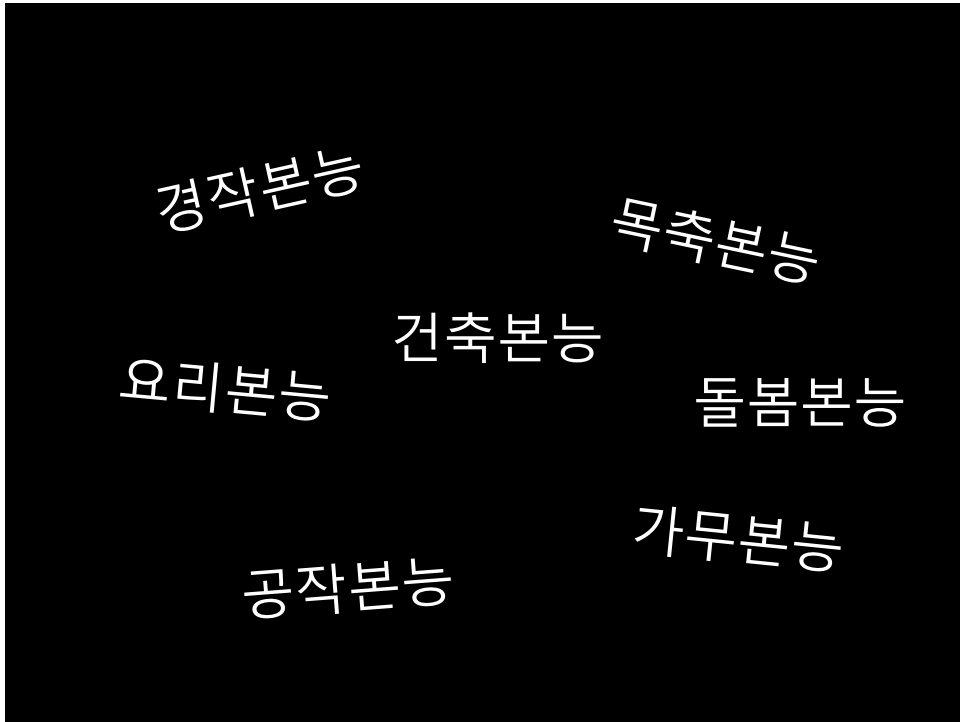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자료

김성원

2007년 장흥으로 귀촌하여 미장과 난로를 중심으로 생태건축, 대안건축을 스스로 연구하고 생태건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를 직조, 놀이터, 대장간, 자전거 등 인간이 즐겁게 누리는, 인간을 돕는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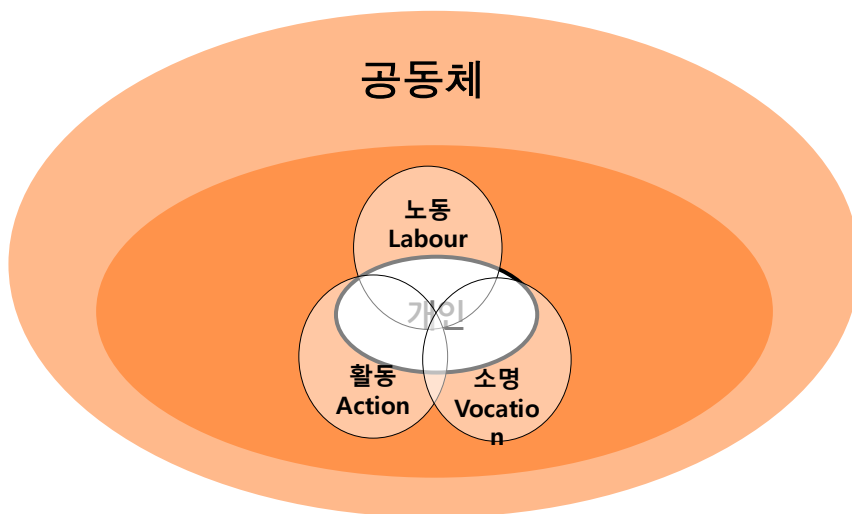
김성원은 집짓기 강좌 이후에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수료생 중에 2%만이 스스로 집을 지었고 교육생 중의 한 명이 처음부터 집을 지을 생각도 없었고 집을 지을 계획도 없었지만 집 짓는 일을 배워보고 싶었다고 대답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짓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 하고 더 나아가 직접 해보려는 것은 건축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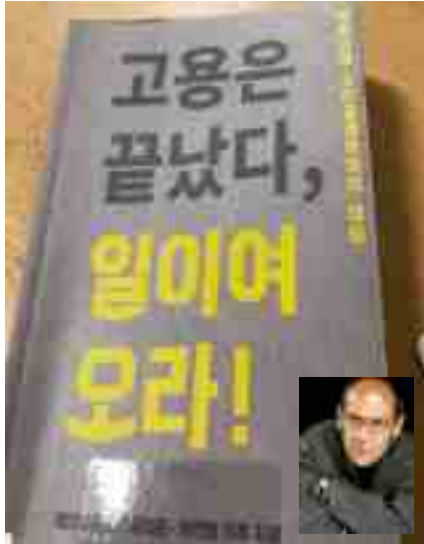
85

■ 미래세대를 위해



86

■ 미래세대를 위해



고용을 죽여 **‘일’**을 살리자.
향후 임금고용은 종말할 것이다.
고용의 종말은 실업의 죽음이며
실업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일’을 찾자

보수를 받는 노동은 표준화, 기계적인 반복,
동기박탈을 양산하며 오직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실업의 위협을 가하여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용되기만을 바라도록 만든다.

-베르나르 스타글레르 (프랑스의 기술철학자)-

(employ)

노동자가
급여를
받는 활동



(travail)

우리 자신을
진정 중요롭게
만드는 활동

87

■ 미래세대를 위해



청년 간담회 (2015년 10월)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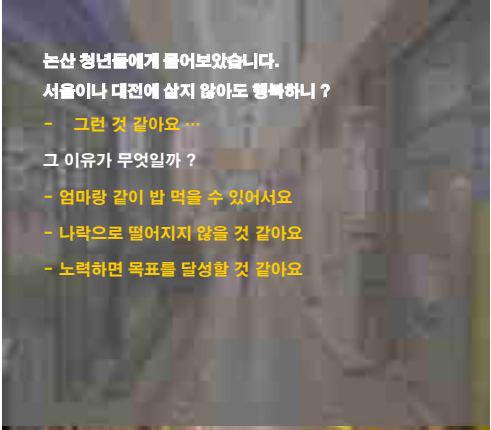


■ 미래세대를 위해

논산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이나 대전에 살지 않아도 행복하니 ?

- 그런 것 같아요 ...

그 이유가 무엇일까 ?

- 엄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요
-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요

청년들은 행복의 조건을 잘 알고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찾아 노력하고 있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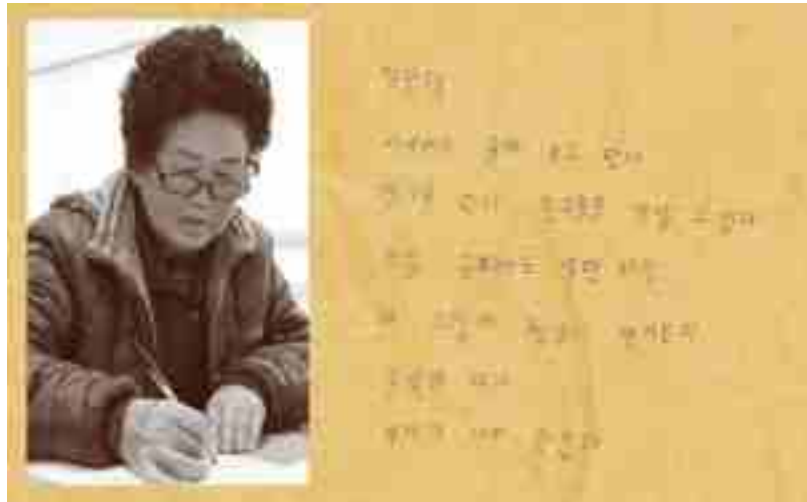
■ 미래세대를 위해

▪ 젊은목수협동조합



90

■ 미래세대를 위해



91



92

청년농부 육성의 경험과 과제

화천현장귀농학교 박기윤
010-6264-6233

1

목차

- 1. 운영철학 과 유기농업
- 2. 운영 시스템
- 3. 실적 및 현황
- 4. 문제점 및 과제

2

01 운영철학

3

01 운영철학과 유



4

02 운영 시스템

5

02 운영 시스템



6

02 운영 시스템

- 2020년 ~
 - 농사매니저 채용
 - 졸업생 중 희망자 숙소, 시설 제공 하여 실습 연장
- 2022년 ~
 - 청년농부 희망자 모집 난항
 - 퍼머컬처 디자인 과정 개설
 - 초보자를 위한 공동체농사교실 개설

7



03 실적 및 현황

8

03



04 문제점 및 과제

04 문제점 및 과제

- 청년을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
 -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갈라먹기
(청년장기, 사회적농장, 스마트팜, 살아보기...)
- 정책지원의 일관성이 아쉽다
 - 불공평한 예산 분배(자부담, 생활비지급...)
- 밥 먹이기도 힘들다(예산이 없다)

11

04 문제점 및 과제

- 현재는 1년간 재학, 귀농하거나 1년 더 실습
- 흙수저 청년들의 기반 문제와 지속가능성
- 졸업생 중심 단체 설립으로 교육과 수익농사 분리
 - 학교는 기본교육 진행
 - 수익농사는 단체가 중심
 - 학교 확보 농지, 농기계 등 단체로 이관
 - 공동농사 및 분배
- 38살 귀농 해서 50대 중반을 넘었다 ?

12

젊은이들을 품는 마을 마을을 품는 젊은이

-상주시 정양리 모동면 사례

정양리 이장 박종관

1



2

"공동체 활동... 마을활동..."



3

어르신 치매예방 교실



4



5

"마을현장포럼을 통해서 마을비전을 세우다"



6

행복마을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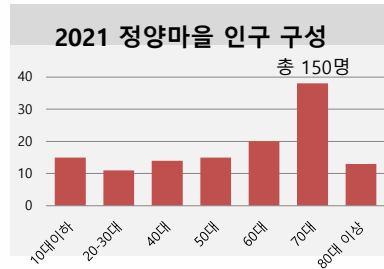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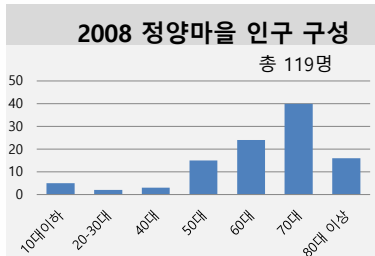


7



8

"인구증가와 함께 세대간의 균형을 이루어가다"



9

2018년부터 마을청년 만들기 노력

- -청년 한해살이 /한달살이 자체 프로젝트 운영
- -주거와 일거리 소개 및 생활 멘토되어 주기.
- -지자체 청년사업이나 청년 지원단체(삼선재단, 청년허브)와 연계해서 청년정책에 도움주기.



맨땅에 헤딩 >> 화성에 살려온
금성인 맞이하기

10

화성에 살려온... 금성인

금성인을 맞이하는 화성인들



"왜 젊은 아가씨가 시집안가고 촌에 와서 살어?~"

"마당에 풀이나마 없었으면 좋겠어"

"왜 회관에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먹고살텐데..."

"쓰레기를 아무데서나 태워요 "

"할아버지,아저씨들은 손하나 까딱하지않아요 "

"개들이 길에 풀려 있어서 못살겠어요 "

개인주의
소비성
유목민

결혼.자녀관
일에 대한 가치관

가부장제적인 문화
권위주의
정주성
근면 성실
자랑고비

11

화성에 살려온... 금성인

금성인을 맞이하는 화성인들



* 관계속에선...

-당장 이해는 되지않아도 존중하며 살기연습

-옳고 그름을 넘어서 서로의 모습을 이해해보기 연습

*구조적으로...

-쪽수(?) 늘리기

-마을에 기여도를 높이기 (권력은 기여하는 만큼 생긴다.)

개인주의
소비성
유목민

결혼.자녀관
일에 대한 가치관

가부장제적인 문화
권위주의
정주성
근면 성실
자랑고비

12

·정양마을의 2022

1. 젊은이들이 살러오는 귀농귀촌 마을 (젊은이들을 품는 마을 . 마을을 품는 젊은이,)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진행 (농림부)
- 삼선재단 청년 인턴쉽 운영

2. 세대통합적 어울림마을

- 정양살롱
- 정양 어르신 학당 운영
- 정양마을극장
- 정양리 포도기술학교 & 스텝업 청년 포도공부방

13

1. 젊은이들이 살러오는 귀농귀촌 마을



-귀농공유주택&게스트하우스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운영

-삼선재단 청년인턴쉽 운영



14

2. 세대통합적 어울림마을 (1)



15

2. 세대통합적 어울림마을 (2)



16

2. 세대통합적 어울림마을 (3)



17

2016년 주민들의 힘으로 모동작은도서관 개관

2016년부터 모동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자치활동에 눈을 뜨게 되었다.



18

1. 지역민들의 자치운영으로 지역 마을도서관 기능 도모



19

2. 주민들의 자체역량으로 다양한 생활강좌, 문화강좌 운영



20

3. 어린이 청소년들의 놀이터.배움터



21

2018년도...

도서관 활동...

그 다음

우리 지역에 필요한것이 무엇일까?

22

질문에 함께 답 찾기



청년이 살수 있는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자!

23



공유부엌 / 공유카페 / 청년하루빵집



24



25



마을공방



26

마을돌봄학교 운영

-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방과후수업과 돌봄이 마을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마을과 지역을 교육의 장으로 삼아 교육이 이루어진다.
- 상주교육청과 업무협약: 올해부터 지역 초등학교 20명을 방과후 저녁시간에 도서관과 공유부엌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 주5일 운영 / 오후4시30분~저녁7시30분



27



28

2021년 모동 청소년카페 OPEN



모락모락 청소년 카페

(매주 금토 운영)

보드게임

청소년노래방 & 플레이스테이션방

넷플릭스 청소년 영화방

책과 만화방

청소년 자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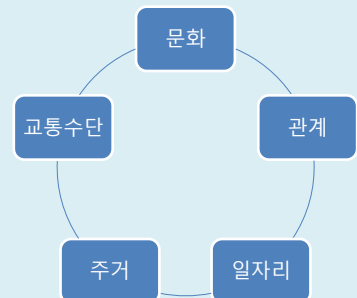


29

청년정착에 관한 생각들

- 나도 왕년엔 청년~^^
- 삶의 현장인 마을과 지역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할수 있는 청년세대에 관심
- 마을과 지역속에서 청년들만의 커뮤니티 필요
- 이주청년에 대한 관심만큼 지역토박이 청년에 대한 관심 필요
- 청년이 정주할수 있는 지역의 분위기,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왔으나 민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 정책과 행정의 관심 필요-> 중앙정부, 시군단위의 정책도 중요하나 삶의 현장인 면단위 정책과 사업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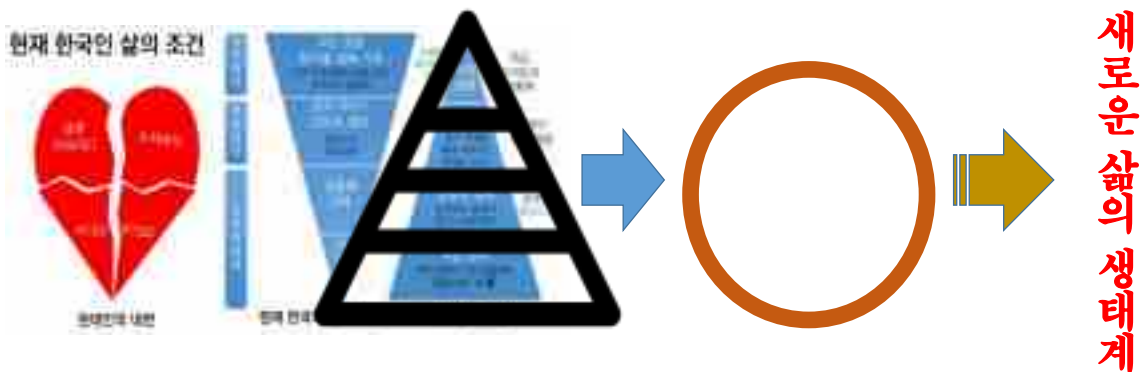
청년들의 농촌삶에 필요한것들



30

1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배경 1 새로운 삶의 생태계 필요



현재 자본주의 피라미드형 세계 → 전환의 생태계, 도넛형 세계로

2

살고 싶은 농촌의 조건 사람과물자가 순순환하는 마을

01.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자급성의 회복 - 가치의 전환
2. 새로운 삶의 생태계
3. 교육, 문화, 의료, 복지
4. 이동권 보장
5. 문화가 있는 마을

02. 사회의 선순환

1. 젊은 층의 유입
2. 사회적경제 생태계
3. 자아성장과 실현 체계 구축

03. 자원의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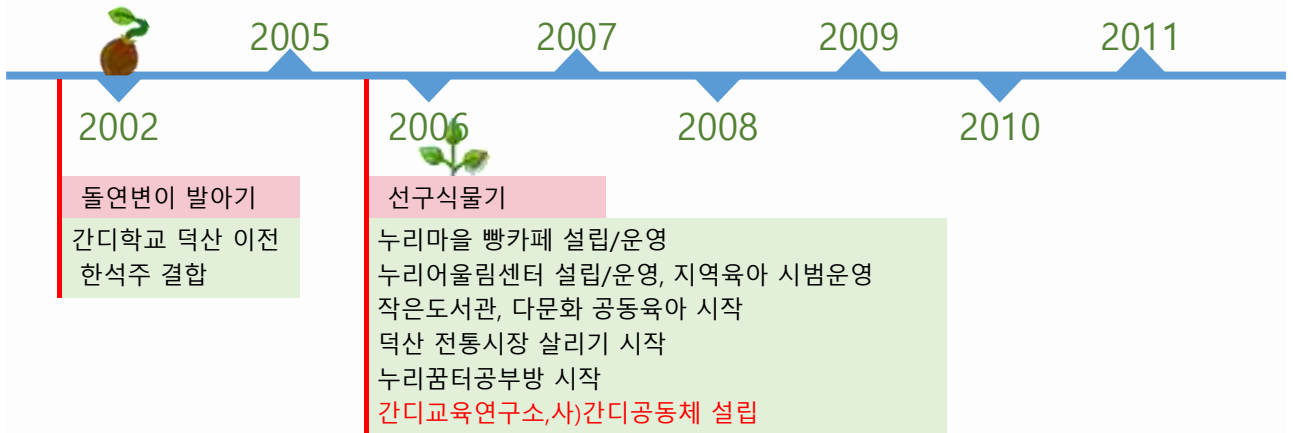
1. 권력망에 의한 생산과 소비
2. 기본소득
3. 자원의 선순환
4. 생태주의적 관점 확산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3

덕산면 마을공동체 활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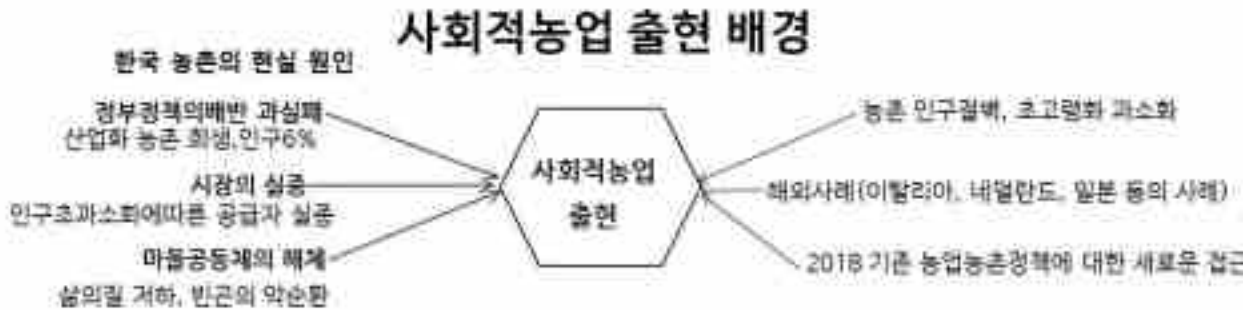
4

덕산면 마을공동체 활동의 역사



5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배경3 사회적 농업



사회적농업이란

사회적농업 농장: 농업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하는 활동

사회적농업 서비스공동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일자리·소득,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등)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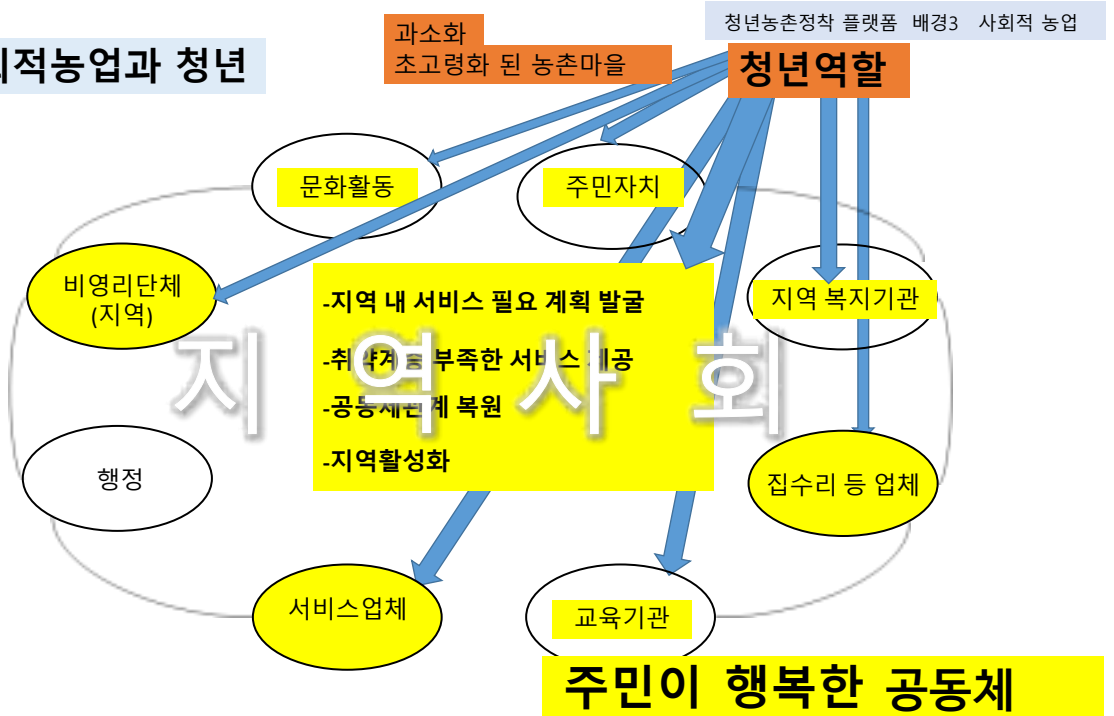
6

사회적농업의 종류



7

사회적농업과 청년



8

청년마을의 사회적 농업 활동

1. 청년 농부프로그램

- 1) 청년농부 프로그램 - 1회 4시간 주3회 6명
- 2) 바보농장 - 덕산에 정착한 귀촌인의 만족도 증가와 청년멘토
- 3) 덕산초 농사체험- 다시 덕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제공

2.청년마을 배움터

3.청년마을 작업장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



9

청년농부



10

바보농장



11

덕산초등학교 농사체험



12

청년마을 배움터 프로그램

농촌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청년이 배우고픈 내용을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
필요하면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



13

작업장 활동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자신의 일이 되도록 작업장(장인, 전문가)을 만나 삶을 배우고 기능을 익혀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창업하여 독립하는 것을 돕는 과정.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문화를 누리며 지원자가 되고, 청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정착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주민주체가 된다.

이 활동 전체 과정을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 이라한다.



14



청년마을(주) 사명은

초고령화 과소화하여 사멸해가는 농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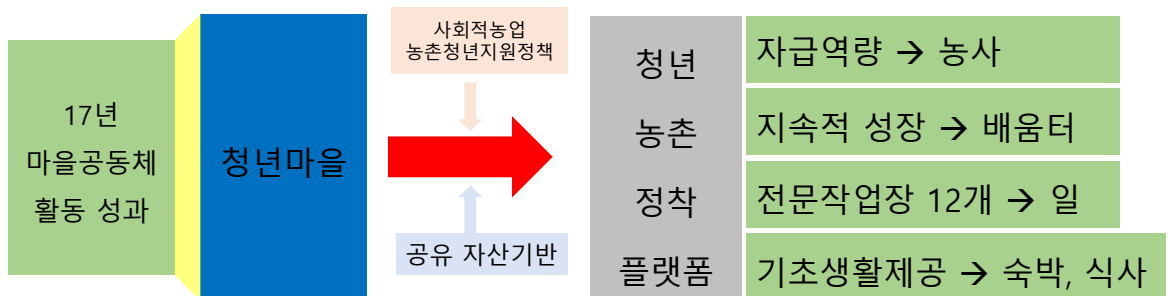
도시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꿈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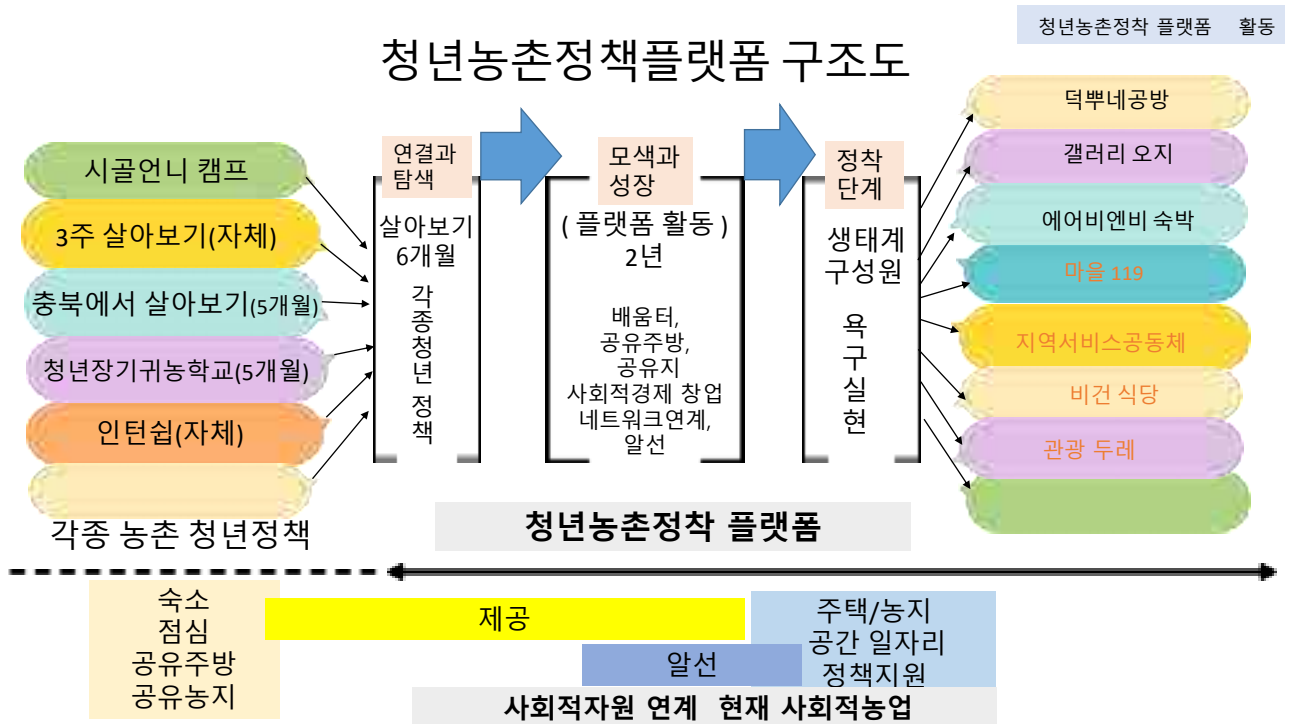
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 정착하여 새로운 농촌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돕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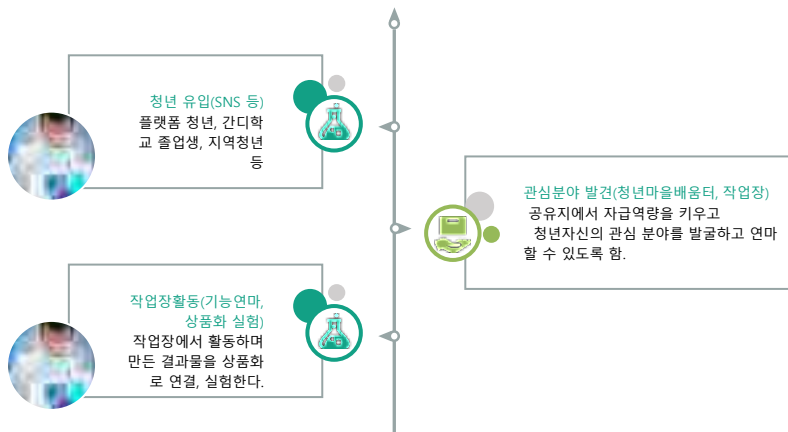
청년농촌정착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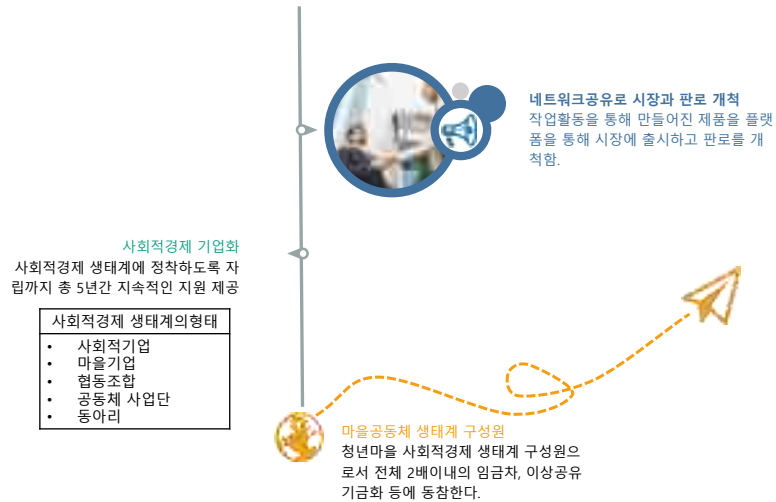


17

사회적 경제생태계 인큐베이팅 과정(작업장)



18



19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성과와 과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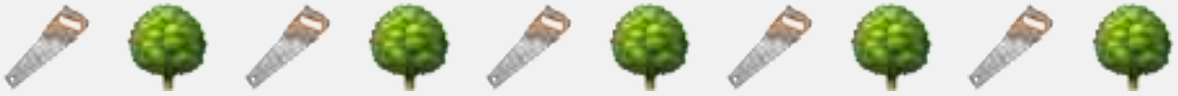
1. 20년 대안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새로운 청년생태계 태동
2.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시 공간적으로 입체적 지원 플랫폼 활동 시동
3. 공유지를 비롯한 청년정착 플랫폼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인적 네트워크기반 조성
4.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현재 청년 8명 활동 중

과제

1.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 구조 구축
 - * 자체 수입 방안 - 농장운영, 플랫폼기업 수익기부, 회비
 - * 공익적 활동 - 공적자금
2. 공유자산 확보
 - * 공유공간 - 커뮤니티 공간, 공유 숙소
 - * 농지 확보
 - * 공유기금
3. 실무력 갖춘 청년 플랫폼 주체 형성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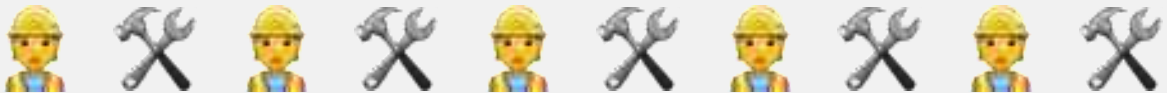
농촌에서 (뚝박이로) 살아보기



프로젝트형

참고
결과발표자료

/ 사회적경제창업형



2022.04 -2022.10 (6개월)

21



22



23

활동사례1 팀프로젝트

뚝딱이들

나무와 도구를 이용하여 뚝뚝뚝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뚝뚝 끝내는
서툴고 부족해서 뚝뚝대도 해내는

- ✅ **이론부터 적용까지** : 농촌 사회적경제 배움 & 실습 📌 사회적기업가육성과정
- ✅ **따로 또 같이** : 청년 개인 적성/희망에 따라 자율성 부여 & 인적/물적 지원
- ✅ **사람과 사람 연결** : 선이주 청년/선배와 멘토-멘티 연결 & 마을/지역 알아가기

24

활동사례1 팀프로젝트



다양한 기획과 시도

- 향후 마을공유목공방 지속적/주도적 운영 위한 **준비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획 시도**
- 당장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기보단, **지역적 특색과 주민의 필요, 청년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함
- 다양한 행사, 물리마켓, 축제 참여



활동사례1 팀프로젝트



버려진 공간 살려내기

- 목공 기술 활용하여 마을 내 방치됨/고장난 공간을 수리하거나 정리함
- 향후 지역 내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또는 마을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과 구체적 준비 중



활동사례1 팀프로젝트



무엇이든 맡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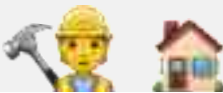
- 비용을 받지 않고, 마을 내 단체 또는 주민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요청을 받아 직접 제작해드립니다.
- 이외 목공, 건축 관련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도 적극 참여 및 지원함.
- 마을 내 고령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 고령 인구의 오래된 집 수리 또는 고장난 가구나 물건 수리 등을 통해 마을기여활동을 해나갈 계획임.



27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1

덕부네공방



- ✓ 지역 정착 후 목공을 직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두 참가자가 만든 팀
- ✓ 기술(능력), 창업 등 전문성 향상 위한 개별 상태 점검 및 디벨롭
- ✓ 보다 '목공'에 집중된 다양한 활동과 제품 개발 📌 수익 창출 고민
- ✓ 향후 사회적경제와 결합하여 마을 내 창업 준비(2023년)



28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1



수익창출 고려한 가구/물품제작

- 주로 지역 주민(상인)으로 구성된 구매자에게 주문을 받아 요구에 맞는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함(주문제작).
- 지역 경제성과 특징점 살린 제품 개발하여 플리마켓, 엑스포, 축제 등에서 부스 운영하여 수익 창출함.
- 살아보기 기간 내 수입 : **약 400만원**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1



교구/놀이 개발 및 운영

- 문화 및 여가 시설이 충분치 않은 덕산지역 어린이, 청소년에게 나무 교구를 제작,제공하여 문화적 조건을 만들고자 함.
- 지역 축제 등에서 시연을 통해 경험해 봄.
- 향후 지역 어린이, 청소년 시설 또는 학교와 협업하여 나무 교구/놀이 관련 제작 수업 또는 행사 진행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1



목공 수업 기획&진행

- 단순 기념품, 작업물 만드는 수업 아닌
두 청년의 자기 이야기를 담은 내용 &
교육 대상 인원, 특성, 요구에 맞춤

* 2022.08-09, 귀농귀촌 고려 도시 청년 여성
약 15명과 2회 수업 진행(총 30명)

* 2022.11-12, 지역 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4회차 워크숍 진행 예정

- 향후 지역 주민, 청(소)년, 방문객에게
적극 개방하여 원데이클래스 등 제공
다양한 수업&교류 공간으로 활성화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1



기술/능력 향상 위한 집중준비

- 목공/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개인별 확인 및 전문성 향상 개인준비
- 술구: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 취득 &
한겨레작은집건축학교 수료
- 수영: 사회적응농공통교육과정
주제별 주 1회, 총 5회차 수료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1



- 지역 특성 담은 자체 제작 목공 제품 14종 개발 & SNS 운영
- 외주 의뢰 제작 및 납품 : 총 6회
- 목공 교육 의뢰 및 워크숍 진행 : 총 9회

33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2

시골언니프로젝트



- ☀ 시골언니프로젝트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 교육사업
- ☀ 전국 8개 지역(기관) 참여 : 두 참여자 직접 기획한 사업 최종 선정&운영
- ☀ 지역 청년 일/작업을 도시 청년 여성과 연결 📌 농촌에서 대안적 삶 고민
- ☀ 5박 6일 농촌캠프 / 총 2회 / 각 15명 (총 30명, 신청자 7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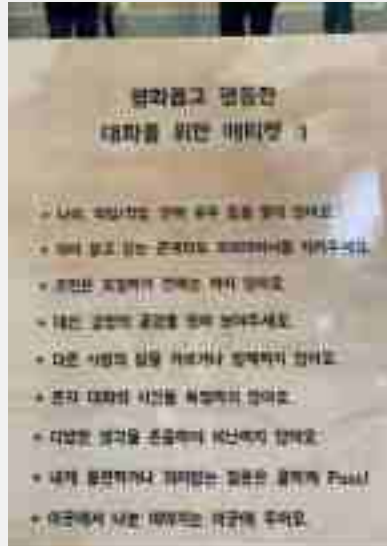
34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2



평등한 농촌 공동체 모색

- 청년 여성 귀농귀촌 중요 고려 요소인 '안전' (공간적, 관계적, 위치적 등)
- 차별받지 않는, 위협받지 않는 **농촌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한 평등평화약속, 공동체문화 등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
- 참여자/강사/운영진 감수성 교육 진행
- 마을/지역 내 청년 공간 또는 청년모임 등에서 평등한 농촌 공동체 조성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두 약속' 포스터 제작



35

활동사례2 개인프로젝트2



지역 청년과의 만남(일&삶)

- 지역에서 일&삶 꾸린 청년과 만남 : 워크숍 형태로 이야기 나눔
- 지역 청년에게는, 외지 청년들의 수요와 요구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보는 경험이 될.
- 참여 청년에게는,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자기 일을 찾아 해나가는 청년들의 삶을 만나고 그들의 일을 함께 해보며 **농촌의 다양한 삶을** 확인하고 고민할 수 있음.



36



귀농귀촌 희망 청년여성 커뮤니티 형성

- 귀농귀촌 희망 청년여성 정보 취약 고려,
지역 내 선이주 청년 여성과 관계 형성
 - 비슷한 지향과 관심, 고민 가진 도시 청년
여성(참가자) 커뮤니티 형성 가능
 - 향후 지역의 지속적 관계인구로 발전,
귀농귀촌 시 해당 지역과 마을 우선 고려
- 특화된 커뮤니티 통해 정착 가능



37

이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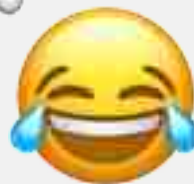
공유경작지 농사

/ 주 1회



배움터 활동

/ 서예, 도예, 천연염색, 우드카빙...



바쁘다 바빠 농촌 사회

멘토-멘티 만남

/ 주 1회 & 지역 합방



소모임 활동

/ 사진, 보드게임, 운동, 글쓰기
& 월 2회 이상 함께 나들이



38

향후 계획

📢 참여자 4명 중 3명 지역살이 연장 결정! 📢

- 내년(2023년)에는 지역 완전 정착 위한 **구체적 준비** 단계 진행 예정
- 이외 구성원 또한, **주요 관계인구**로 남아 도시와 덕산을 연결 짓는 프로젝트 지속적 고민/참여 예정
-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통해 **참여 청년 과반 이상** "지역살이 연장 통해 지역 정착 고민" 결정

- ✅ **덕부네공방** : 사회적경제창업캠프 📌 사회적기업가 육성 과정 통해 **창업 준비**
- ✅ **멘티에서 멘토로** : 인적 네트워크와 안전한 관계가 되어주는 **멘토로** 발전
- ✅ **도시와 로컬 연결** : 마을 내 청년 그룹과 도시 청년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참여

39

소감/반응



참여자A

"목표, 역할이 매우 뚜렷한 프로젝트형이라 다른 살아보기들 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지역 정착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라는 가치와 결합해서 더 좋았다"



참여자B

"시키는대로만 했음 그냥 힐링만 하고 떠났을 듯. 참여자 **자율성 존중**하되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 곳! 무엇보다 팀원끼리 **역할분담** 매우 잘되고 돈독해서 팀뿐 아니라 개인 프젝에서도 **좋은 시너지**였다"



마을청년C

"**다양한 활동과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오고 **교류**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적극적으로 마을 청년 모임에 **함께하고 싶어졌다**"



마을주민D

"새로운 청년들이 펼치는 활동이라 확실히 내용도 **신선**하고 **다채**로워 마을에 활기가 돈다. 방치된 마을 목공방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마을 내 활동이 **기대**된다"

40

마무리

덕산에서 일게 된

바쁜데도 즐겁다니! 일의 참맛 😊





1

완주군 고산면

- ▶ 완주 북부의 중심지 / 인구 약 4,500명
- ▶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 협동조합 30 ㉠ 개소,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활발한 공동체 활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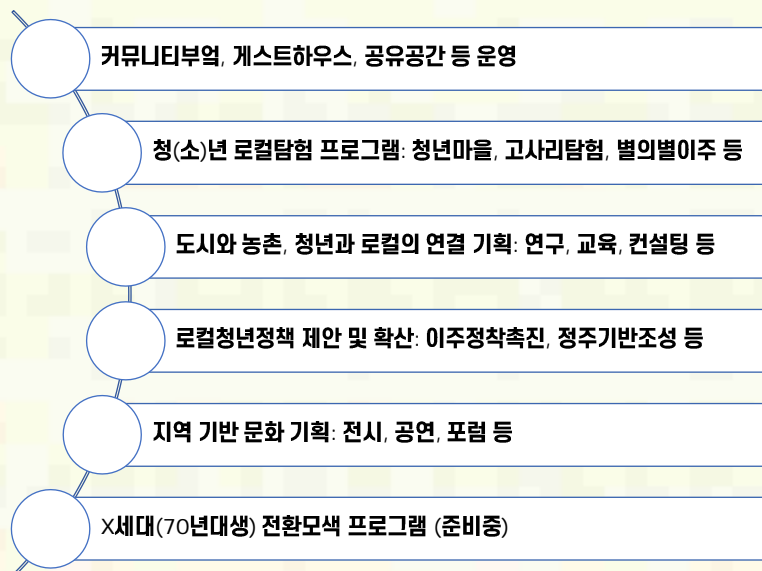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

- ▶ 도시와 농촌,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로컬 플랫폼
- ▶ 완주로 귀촌한 문화기획자, 청년활동가들 ① 중심 ① 되 ① 2013년 11월 설립
- ▶ 최초의 로컬청년정책 ‘완주JUMP프로젝트’ 기획
- + 키워드: 지역community, 문화culture, 연결connect, 전환change
- + 분야: 지역문제해결, 공유공간운영, 문화콘텐츠기획, 로컬X청(소)년
- + 공간: 로컬베 ① 스캠프(커뮤니티부엌, 게스트하우스, 코워킹스페 ① 스 등)
비밀언덕중개사무소(코워킹스페 ① 스, 청년공유공간 등)



3

주요 활동



4

- 게스트하우스 '삼삼오오' (2014~2016)
청년문화기획자양성과정, 청년네트워크파티
- 청년귀농귀촌캠프 (2014~2018)
총 11회 150여명 참가
- 토요일문화장터 '공냥마켓' (2015~2016)
- 커뮤니티부엌 '모여라땡땡땡' (2016~)



5



- 제2회 한겨레청년포럼'청춘' 주관 (2016.2)
- 완주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 (2016.3)
- 제1회 완주청년포럼 주관 (2016.7)
- 완주군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2017.1)
- 완주청년정책'JUMP-UP'프로젝트수립 연구 (2019.3)

6



• 완주청년정책 JUMP프로젝트

- ✓ 최초의 로컬청년정책
- ✓ 청년의 지역이주에 대한 대응
- ✓ 셰어하우스, 청년거점공간
- ✓ 사회적경제인턴십, 청년창업공동체

• 완주청년정책 JUMP-UP프로젝트

- ✓ 청년의 지역이탈에 대한 고민
- ✓ 일자리와 주거, 그 다음의 과제
- ✓ 참여, 시민의 권리
-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아카데미 등

7



8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목적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로컬 기반 청년활동 촉진, 지역 내 청년활동 기반 조성
청년조직/기업 성장 지원,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등

2021년

전북 완주 등 12개소 / 지원금액: 5억원
청년지역탐색 + 지역연계활동 + 공간조성

2022년

전북 군산 등 12개소 / 지원금액: 2억원 * 3년
청년지역탐색 + 지역연계활동 + 공간조성

2021 청년마을



10

2022 청년마을



11



12

■ 로컬베이스캠프

- 지역을 탐색하고 자립을 실험하는 커뮤니티 공간
-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작해서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완공
- **모여라000**: 귀농귀촌 여성들이 함께 운영하는 커뮤니티부엌
- **다음스테이**: 청년들의 지역 탐색과 단기 거주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 **고래당**: 지역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 **비밀언덕중개사무소**: 문화기획, 정보공유, 커뮤니티, 팝업스토어 등





15



16



17



18



19



20



21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요소

관계

‘비빌언덕(멘토/매개자/통역자/연결자/중재자)’의 존재
생존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관계 형성
취향과 처지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참여

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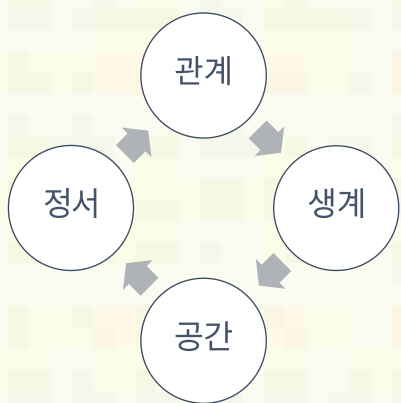
지역의 필요와 청년의 재능이 만나는 접점 모색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원하는 일을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물적 자원 제공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 요소,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현황 연구” 서
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9

22

105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요소



공간

주거, 창업, 교류 등을 위한 공간 제공 안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완충지대 필요 안정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보장

정서

청년을 환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사회의 정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자리를 내어주는 마을의 배려 청년과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한 실천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 요소,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현황 연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9



환대하고 연결하는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
탐색하고 실험하는
완주청년마을 다음타운

<마을독본 6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년 4월

마을이 스스로 후계자를 키워야 한다

정민철*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이 글은 홍성군 장곡면 도산2리 임응철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마을은 2012년부터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협동조합행복농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청년농부영농조합, 장곡마을학교 등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이 이루어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장, 귀향인, 귀농인의 개인적 고민과 농촌 마을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 등에 관해 나눈 실제 면담 내용을 ‘도산2리에 청년들이 들어오기 전과 후 두 시점에서 세 인물이 한 이야기’의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마을에 청년들이 들어오기 전

나는 이장이다

도시에서 나가 직장을 다니다가 IMF 때 귀향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귀향을 준비하기 위해 예전에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을 중심으로 고향에 농지를 구입해놓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 빚내어 논을 사냐는 집사람의 성화도 있지만, 지금도 어떻게든 농지는 구하려고 노력한다. 귀향할 당시 마을 인구는 많이 줄어 있었고 젊은 사람은 없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은 2~3명 가량이었다. 귀향인은 3명 있는데, 귀농인은 한 명도 없는 마을이었다. 귀향한 지 3년 지나 이장을 맡았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관습적으로 마을 돈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장을 하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마을 사람과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 마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함께 고민할 사람도 없었다. 귀향한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의 농지를 물려받아 농사일을 열심히 잘하지만, 마을일을 논의하기엔 모두 너무 바쁘다. 상록회장을 하고 있을 때 군청의 요청으로 권역사업을 준비했다. 권역사업 위원장도 덜컥 맡았지만 속으로 겁이 났다. 마을 일을 자기 욕심 없이 함께 논의할 사람은 안 보이고, 뭘 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전국에서 권역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잘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는 듣기 힘들어서 혼자 속만 탔다. 더군다나 명절에 내려온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농사를 이어받지 않겠다고 한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니 이해도 된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앞으로 내 농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다. 또 답답한 것은 아버지와 내가 다닌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다. 분교는 폐교되는데, 마을에 몇 명 없는 아이들도 읍내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을 보고 정말 속상했다. 설득도 해보고 교장선생님께 좀 더 뛰어다녀 보자고 싸우기도 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다. 처음 귀향할 때 계획한 농사 목표는 달성했지만 어르신만 들어가는 이 마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온갖 걱정거리로 혼자 머리만 아프다.

나는 귀향을 준비 중이다

나는 집을 일찍 떠났다. 고향 마을에서 초등학교만 다니고 중학교부터는 가까운 읍내로 가서 자취를 했다. 마을의 형, 누나들이 모두 읍내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주말이면 집에 왔는데, 할머니와 어머니는 항상 일하고 계셨다. 나는 안타까워 자주 일을 도와드렸다. 덕분에 어릴 때 농사일은 많이 했다. 대학도 큰 도시로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사업도 했다. 항상 5월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났다. 아카시아 향기, 개구리 울음소리.....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귀향을 자주 생각했다.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농사짓는 고향의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농사일을 도와드리며 마음이 편안했던 기억 덕도 있다.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과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1년 후에 농촌으로 가자”고 귀향 이야기를 했다. 귀향을 생각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 구체적인 계획(땅을 사고 애견 캠핑장을 만들자는)을 세우고 나니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러 연유로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귀향을 결정했다. 생각보다 이른 실행이어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귀향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10대 중반의 둘째아이를 도시에 남겨두어야 하니 귀향을 결심하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더 막막했다. 어머니는 고향에 계시지만 농지나 농기계는 거의 없고, 모아둔 돈으로 1년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먹고살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릴 때 농사일은 해보았으나 막상 현실로 닥치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선 물어보고 배워야겠다. 절실하다 보니 일하는 것은 겁이 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마을이 시끌벅적하던 예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상의할 수도 없다. 결심은 했지만 막막하기만 하다. 우선, 작은아버지께 물어보기도 해야겠다.

나는 귀농인이다

귀농한 지 이제 6년이 되었다. 도시에서 일할 때 너무 바빠 아내와 아이를 볼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항상 귀농을 생각했다. 이전에 강원도로 귀농했다가 사기를 당해 다시 도시로 돌아간 경험이 있다.

모아둔 돈 하나 없이 아이 셋과 집사람과 함께 다시 귀농했다.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해 여러 농가에서 일할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농기계도 직접 운전해보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첫 해에 개인 농사를 지었지만 매출은 고작 700만 원이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상의를 했다. 다른 마을에서 밭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함께 농사를 짓자고 했다. 혼자 농사지을 때보다 수입은 많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이뤄진 상황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고,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 도시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마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집사람과 함께 마을 행사 뒷바라지도 하고 마을에서 도와달라는 일은 무조건 했다.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했던 일들이 마을일이 아니라 개인 농가의 일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했다.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기존 농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섭섭함만 쌓여갔다. 마을에 있지만 집 짓고 농사지을 땅을 마을에서 구하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다른 곳으로 다니며 농사지으니, 농촌에 와서도 아이들을 볼 시간은 없다. 마을에 정착하여 마을에서 농사짓고 아이들이 마을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그렸는데, 또 도시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로부터 다른 마을 이장님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고..... 얼굴을 익히려고 새벽부터 일도 없는데 그 마을로 가서 주변에서 얼정거렸다. 처음 인사를 했을 때 인상이 너무 무서웠다. 도와달라고 말쑼을

드렸는데 모르겠다. 뭔가 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들지만, 또 사기당하고 이용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된다.

마을에 청년들이 들어온 후

나는 이장이다

청년 2명이 와서 비닐하우스를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회의를 할 때 한두 번 만났던 청년이다. 보기엔 일도 안 해본 사람들 같아 걱정도 되고, 다른 마을 이장이 귀농자 때문에 동네 분란만 생겼다고 하는 말도 자주 들었고, 우리 마을은 귀농자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걱정부터 된다. 생년월일을 받아 사주를 봐야 할까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나도 급하다. 이 친구들이 마을에 정착하고 적응한다면, 마을일을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청년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좀 안심이 된다. 협동조합인가 뭐가로 농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여럿이다. 걱정은 되지만 임대를 해주었다.

막상 청년들이 들어오니 일이 너무 많아졌다. 농장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살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도시에 나가 있는 빈집 주인을 몇 차례 설득해 겨우 집을 구했다. 젊은 여성은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딸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하고 우리집 2층을 내주었다. 집을 구해달라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은 아이가 두 명 있었다. 아이들이 크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집을 구해주었다. 다들 뭐 먹고 살지 걱정도 되지만 내가 못하는 일을 잘도 하니 도움은 된다. 청년들에게 일 시킬 것이 없냐고 협동조합농장 쪽에 물어봐서 연결해주었다. 협동조합농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도청의 기관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농장을 만든다고 시설하우스 지을 땅을 알아봐 달라고 한다. 어디 땅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싶다. 더군다나 시설하우스를 한하는데 누가 10년 계약을 해주나 싶어 내가 임대해 농사짓던 토지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마을 사람들이 알면 싫은 소리를 할 것 같아 걱정이다. 벌써 청년들이 일도 별로 안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마을회관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등등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 화장실이 막혀도 청년들 때문이라고 하니 나도 답답하다.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막아주면서 청년들이 마을에 적응하는 시간을 벌어야 할 것 같다. 마을에 사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 열심히 하면 잠잠해질 것이다. 내가 막아주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라도 답답할 때가 많다. 논의 물꼬를 보러 다니지도 않아 가는 길에 내가 봐줘야 한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방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지 모르겠다. 농사 일이 바빠 일손이 필요한데 개 산책시킨다고 옆을 지나간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청년들이 집관리를 잘못 한다는 원성도 들어온다. 야단치겠다고 대답은 하지만 이도 쉽지 않다.

그래도 마을일을 협의할 사람이 생겨 다행이다. 마을사업을 논의하면 곧잘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전문가와도 연결이 잘 된다. 이들이 있으니 일을 벌여도 될 듯하다. 이들이 마을 행사에 참여하면 주변에서 놀라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든든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마, 협동조합농장에서 청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농장을 독립하고 나서도 배운 대로 마을 일에 곧잘 참가하는 것 같다. 마을에 이러한 농장들과 청년들이 있으니 권역사업으로 만든 센터도 잘 운영된다. 가만히 있어도 이들 농장을 통해 교육받거나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새로 만든 건물들이 잘 활용된다. 그러니 다시 마을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는 것

같다. 처음 서울에서 50명의 고등학생이 교육받으러 왔을 때 면장님과 옆 마을 이장님들이 구경하러 왔을 정도로 신기한 일이었다. 지금은 항상 교육이나 방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니 마을에 활력이 생기는 듯하다.

옆 마을에 살던 청년 한 명이 새벽에 논에서 만나 농사지을 땅과 집 지을 땅을 구해달라고 한다. 일은 잘할 것 같은데 아이가 네 명이나 있다고 하니 초등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반갑긴 하다. 내가 가진 작은 땅 하나를 떼어주고 농가주택사업을 연결시켜주면 될 듯하다. 주변에 밭은 많으니까 밭 주인과 연결해주면 된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협동조합농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여러 평가를 해주어 안심이 된다. 마을일을 하려면 젊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마을 주변 제초작업을 할 때 청년 십여 명이 예초기를 들고 나타났다. 금방 해치웠다. 젊은 사람이 농촌 마을에 많으니 여러 곳에서 견학도 오고, 큰 행사도 생긴다. 농지가 줄어들어 수입은 감소했지만, 또 이들 때문에 일은 늘어났지만 마을에는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

외국인이 이 시골 마을까지 온 일은 마을이 생기고 처음인 것 같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마을을 방문한 일이 없었는데, 외국의 국회의원도 견학을 왔다. 서울에서 누가 왔는지 몰라도 도지사와 군수가 인사를 하러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2012년에 75명이었던 마을 주민이 지금은 116명이 된 것이다. 우리 면에서 가장 늦게 마을회관이 지어질 정도로 변화가 없던 마을이었는데..... 또 다른 나의 자랑이 있다. 우리 면의 초등학생 수를 마을의 수로 나누면 1.5명이다.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무려 6명이다. 초등학생이 많은 게 우리 마을의 재산이다. 마을 행사에 청년들이 맨 앞에 앉아있고 아이들이 뒤에서 뛰어다니면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진다.

조카에게 연락이 왔다. 귀향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어본다. 구체적인 목표도 세우고 농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카는 농지도 없고, 가족은 도시에 그냥 산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그래도 잘 배워간다면 내 농사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농사를 처음 짓는 청년들에 비해 일도 익숙하고 마을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농촌 생활을 알고 있으니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청년들과도 나이 차이가 별로 없으니 곧잘 어울리는 것 같다. 물론 조카를 데리고 일하면 어려운 일도 많겠지. 농지도 나눠줘야 하고, 농기계도 맡겨야 하니까. 조카가 내게 먹고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나의 경험만 말해줄 수 있지 답을 줄 수는 없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

부동산업자에게 속아 비싸게 땅을 사고 비싸게 집을 지은 새터민도 도와줘야겠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삶 자체가 드라마였다. 산불감시원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경쟁이 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업에 실패하고 문중 집을 얻어 들어온 사람도 일을 달라고 하니 알아봐야겠다. 그 사람은 어린 자녀가 두 명이나 되는데, 마을 초등학교에 보내겠지. 왜 자꾸 돈 안 되는 일을 하나고 옆 마을 이장에게 지청구도 듣지만, 마을이 조금 더 개방적이 되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마을은 활기를 띠고 지속될 것 같다.

물론, 아무나 받지는 않는다. 마을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만 잘되려는 사람도 있지만, 미리 알 수는 없으니 청년이 오면 우선 협동조합농장으로 보내 일을 시켜본다. 한두 달이면 답이 온다. 5~6년 지나고 나니 마을에 분위기가 생겨 마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마을과 함께 발전할 사람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지금보다 더 들어온다면 이제 우리 마을이 아니라 옆 마을로 사람을 보내야겠다. 이 마을만 북적이는 게 아니라 옆 마을도 북적이게 해야겠다.

청년들을 서로 연결시키면 마을 농사가 가능할 듯하다. 청년들은 할 줄 아는 일이 다양하

다.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 판매를 잘하는 사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안내를 잘하는 사람 등, 재주가 많다. 이들이 연결된다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걱정하던 것들이 해결되었지만 일은 많아진 것 같고, 수입은 줄어든 것 같지만 배는 부른 것 같다. 다음으로 장학금을 만들 계획이다. 마을을 떠나 도시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에 함께 살면서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마을 청년이 배워야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100년 전 초등학교를 만들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나는 귀향인이다

귀향하기 전에는 설날이나 추석 등 연휴에만 마을에 내려왔다. 가끔 마을에 내려오면 마을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돌아가시고 빈집이 생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다. 작은아버지께서 마을에 청년들이 많이 와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내가 내려오는 연휴에는 사람 없이 텅 비어있는 건물을 보고, 농촌에 건물만 지어놓고 놀리고 있는 줄 알았다.

귀향하고 나서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다. 빈집이 더 늘어갈 동네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어머니는 청년들이 무거운 짐 들어주고, 부탁 들어주고, 밭도 갈아주었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해줘 매우 고마웠다. 청년들이 공동으로 밥을 해먹던 부엌에서 마을에서 일하는 여러 젊은 사람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농사일도 하다 보니 마음이 좋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농사를 배워나가니 더 마음이 편해졌다. 주변 어르신들은 모두 알던 분들이고 인사를 하면 반갑게 맞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내려왔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도 많이 다르지만, 농촌 마을에서 이런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더 낫설 정도다. 도시에서 돈 모은다고 더 늦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배우지도 어울리지도 못했을 것 같다. 열심히 배우고 함께 하다 보면 뭐가 될 것 같다.

나는 귀농인이다

집을 짓고 나니까 이 마을 사람이 다 되었다. 마을일이 많아서 여전히 집에 늦게 들어간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논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소원은 이루어진 것 같다.

이 마을은 전에 살던 마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빼어난 학벌을 가진 청년은 없는데 농사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전에는 모두 각자 잘난 사람들만 있었다면 이 마을은 농사일과 마을일을 함께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 내가 찾던 곳을 이제야 만난 것 같다. 농사도 열심히 지어 돈도 벌어야겠지만, 나도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재주를 펼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농촌에 와서 도시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고, 농사를 배우겠다는 사람을 우선 받아 마을에서 교육시켜 정착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계속 젊은 청년들이 마을에 들어왔으면 한다.

마을 공동 일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각자 농사가 바쁜 시기지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예초기로 마을 주변 풀을 깎았다. 다른 사람들은 마을 꽃밭의 풀을 뽑고 주변을 정리했다. 마을에 교육받으러 온 중학생들도 참여해서 깎은 풀 더미를 끌어 모았다. 이런 일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육이다. 한 학생이 처음 만났는데 인사하면 모두 받아주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정민철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이사는 풀무학교 전공부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던 중 2012년에 전공부를 졸업하는 청년 두 명과 함께 장곡에서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을 시작했다.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많이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듣고 객기로 학교를 그만두고, 배운 것과 무관하게 농장을 만드는 일에 덜컥 참여했다. 전직의 특성을 버리지 못해 농장이 교육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다. 젊은협업농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상상력과 전망의 부재를 반증한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 관점에서 사회적농업의 의미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정민철

1. 젊은협업농장의 일지를 보면 2014년 4월에 그린케이팜이라는 말과 함께 사회적농업이라는 단어가 첫 등장한다. 4월 14일 행복농장 개소식¹⁾ 이후 행복농장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등장한 단어이다. 그해 7월 12일에 장곡 면사무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작은 세미나”를 개최하며 농업과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 후 나온 질문이 “농업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농촌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노인의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가?”였다. 사회적농업에서 말하는 농업과 현재의 농업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질문이다. (현재의) 농업 그 자체가 공익적,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농업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농업을 강조 할수록 농업 전체의 사회적의미는 축소될수도 있다는 주장 그리고 현재의 농업 형태에서 무언가를 조금만 개선,추가하면 치유, 돌봄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2. 농업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교과서적으로 말하지만, 60-70년대 먹고 사는 문제(식량부족과 이로 인한 식량 수입)는 농업의 환경적 기능을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80-90년대 살아 남아야 하는 과제(식량 수입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농업)는 농업에서 사회적 기능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세소농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한국농업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적인 농가경영을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 과제의 하나였다. 일찍이 「농업기본법」(1967)에서 “자립 가족농의 육성”을 천명하였으나 그 후 이를 뒷받침하는 시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 1981년부터 시작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통해 영농에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된 농업인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1989년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전업농 중심의 농어업인력 개발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업농 육성사업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농수산업의 경영규모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영능력과 영농의욕이 있는 농어가를 전업농어가로 육성”(제3조), “농수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의 규정으로 나타났다. 전업농육성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부터 연간 1천명 정도의 전업농어가를 선정하여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분야별로 선정되지 못하여 자금운영이 경직되는 애로점이 있었는데, 1994년 6월에 발표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전업농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2004년까지 10년간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농 15만호를 육성하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전업농육성 목표가

1) 2013년 10월 15일에 홍성군 장곡면 도산 2리의 시설하우스를 임대하여 희망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농업활동은 시작하였다.

일부 수정되어 2004년까지 쌀(5~20ha) 6만호, 축산 3만호, 발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3만호 등 모두 12만호를 육성하도록 하였다. (국가기록원 2007)

오로지 농업의 경제적 기능(생산성 향상)만 극대화하면 당면 과제는 모두 해결될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생산주의 정책을 통해 농업총생산은 증가하나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여 농민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였고, 농업소득률이 감소하다보니 다시 규모를 확장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 결과 농민의 소득 양극화는 도시 노동자의 소득 양극화를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한국농정, 21.2, 생산주의 농정의 ‘트레드밀’, 박진도)

농업 규모의 대소에 상관없이 현재, 농업이라하면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업이다. 단위면적당 생산과 판매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강해진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은 등장하지만 그 기술을 초기에 도입할 수 있는 경제력 가진 농가는 초과이윤을 가질 수 있지만, 다수의 농가가 그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다시 원위치하는 기술혁신의 악순환도 나타난다. 물론, 품목별로 농장들이 조직화되어 생산방식을 통일하여 물량을 증가시키거나, 가공 사업도 추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요구받기도 한다. 이도저도 잘 되지 않으니 판매처만 있으면 생산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농업을 바라보는 규정에서는 다른 기능을 추가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사회적농업을 하자는 말에 농사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적 역할까지 부여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말도 한다. 즉, 농업이란 무엇이고, 농업을 행하는 농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규정을 새로 정의해야 사회적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농업을 바라보는 규정을 바꾸면서 다른 기능을 추가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이 그것이다. 농업의 환경적 기능을 포기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해가던 1975년에 역설적으로 농업에 환경적 기능을 복원 또는 추가해야 한다는 유기농업이 발아한다. 이들이 지향한 것은 단지 안전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라면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농업을 새롭게 규정²⁾한 것이다. 즉, 경제적 기능에 환경적 기능을 추가한 농업을 실천한 것이다. 그 시기 환경적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해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였고 이는 재배 면적을 감소시켜야 했으며,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니 생산성은 감소하고 새로운 재배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갈 수 밖에 없었고 농산물을 판매할 곳이 없으니 유통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구축해갔다. 그 시기 환경적 기능을 포함한 농업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려야 하는 농민은 비난받거나 조롱받았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기능+환경적기능을 가진) 농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23년이 지난 1998년에 국가 단위에서 인정하고 환경농업육성법이 만들어졌고 생산성 손실분에 대한 보상으로 1999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19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직접지불제였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2) 정농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농사로 실천하는 농민들의 모임입니다.

목적으로 한다.

4. 사회적농업 역시, 현재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농업의 관점에서 경제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을 결합한 농업이어야 한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은 단지, 다양한 사회 배려자를 농장에 데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통합한 농업(장)의 새로운 농업방식을 만들어가는 또는 발굴하는 사업이었으면 한다.

농업(장)에서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적절한 균형잡기는 참 어렵다. 균형잡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농업에서 경제적 기능이라 함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 그리고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교육,문화와 복지,돌봄 등의 사회적 기능을 경제적 기능으로 치환해버리는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회적 기능을 경제적 기능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다.) 농업의 교육, 문화적 기능을 활성화시키자고 시작한 체험·관광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능을 단지, (농업 생산 이외의) 경제적 기능으로 접근함으로써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거나 이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농장과 농민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농업의 본질인 농산물 생산, 가공과 판매는 축소하고 경제적 기능을 (농산물 생산에서) 체험·관광으로 전환한 농원 그리고 상업적 체험관광단지가 활성화되었다. (이것조차 여러 차례의 사회적 재난 시기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는 농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의 경제적 기능의 요소를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에서 복지·돌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 복지기관이나 단체가 복지·돌봄의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하는 (원예치료가 대표적) 것에 견줄 수 없다. 농업의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논의하던 초기에 농장전체 매출의 최소 51%는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5. 경제적 기능만을 추구하는 농업의 결과로 이전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것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농민(장)간의 분리, 농업과 농촌(마을)의 분리, 농촌 활동 기관들의 분리와 더불어 농촌과 도시는 그 분리의 정도가 심해졌다.

농민의 양극화는 대략 연간 농산물 매출(기껏 3,000만원이고, 매월이 아니라 1년이며, 조수익이 아니라 총 매출이다.)을 기준으로 90-10으로 나누어진다. 마스크에 종종 등장하는 농산물 매출 1억 이상은 전체 농가의 2-3%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농민내의 이질화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경작규모로 보면 소농과 중대농은 70-30이다. 생산성 높은 농업이라는 경제적 기능 만능주의는 다수의 탈락자를 양산하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농업을 한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 이질적인 상황이 강화되는 일면 당연하다.

평균경작면적이 1.5ha밖에 되지 않는 한국 농업의 상황에서 사회적농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반 시설들을 하나의 농장 내에 모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한두 작목으로 특화된 농업 형태에서는 농사 일은 한정된 기간에 집중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다보니 규모가 큰 농장이나 산속에 힐링과 치유라는 단어가 붙은 큰 단지나 건물을 먼저떠올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 내 작은 규모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에서 네트워크라는 독특한 사업비가 포함된 첫 이유이다.

농업과 농촌은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리되었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농업과 농촌은 생존을 함께 하지 않는다. 농촌이 사라지더라도 경제적 기능만을 추구하는 농업은 소수지만 살아남을 것이고, 농촌이 활성화된다고 꼭 농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보통 그 지역사회의 중심 산업이 생존해야 그 지역사회도 활성화되지만, 농촌지역 사회는 중심 산업이 농업임에도 (홍성군 장곡면의 경우 전체 가구의 50%가 농업에 종사한다.) 지역사회의 생존과는 큰 상관이 없다.

사회적농업에서 사회는 농촌지역사회이며, 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회 배려자를 지역사회에서 우선 찾아야한다고 말하는 연유이다. 또한, 사회에서 분리된, 배제시켰던 사회배려자를 농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즉, 농촌 마을 (사회)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농장과 마을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흔하게 농업과 농촌 뒤에 따라 붙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복원하는 것이 사회적농업이었으면 한다. 네트워크 사업비가 있는 두 번째 이유이다.

서울시의 자치구 2개를 합한 면적에 인구는 서울시의 0.2~0.3%만 있는 농촌 면의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작동하는 여러 서비스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어쩌면 농촌 주민 대다수가 사회배려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서비스 요구는 증가하나 경제성이 없으니 이를 해소할 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행정에서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체육회, 청년회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기관장 회의 명단에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보통 30여개가 넘는다. 개별 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만, 농업을 하는 그 많은 농장은 이러한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이러한 기관, 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농장이 농촌 활동 특히, 돌봄과 복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이다.

도시에서 바라보는 농업과 농촌.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통계)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도시민이 바라보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규정은 달라진다.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지로 농촌, 농업을 바로 본 시대가 있었고, 안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거쳐 이제는 환경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농촌과 농업을 바라보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현재 사회적농업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기관, 단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어쩌면 농업 규정의 전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도시일 것이다. 농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농촌이 (앞에서 말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도시와 다른(다를 수 밖에 없는, 하지만 유지되는) 사회, 삶의 방식이 작동될 때 도시와 농촌의 연계성은 높아진다.

6.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장에 안착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이전 패러다임은 가속화된다.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만들어진 시기는 웰빙(well-being) 바람이 거세게 불던 시기였다. 웰빙의 흐름에서 '건강'과 '친환경'이라는 먹거리 요구가 늘어나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 친환경농업은 농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릴수 있는 대안으로 보여 지자체마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순히 재배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생산성을 높이는 즉,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량은 증가시키는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의 반복이라는 기존의 생산주의 농업에 포섭되었다. 이는 곧장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업은 환경적 기능을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경제적 기능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더군다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든 법(특히, 인증제도)은 친환경농업을 옥죄는 도구가 되었다.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농업이라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보다 비싸지만 안전하다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손쉬운 접근은 매년 잔류농약조사항목만 경쟁적으로 늘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의 정체와 농민의 감소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 가격만 상승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산주의 사고 역시 여전하다. 이 상황에서 농업의 새로운 경로를 다시 찾아보려는 고민 속에 등장한 것이 사회적농업이다. 초기부터 사회적농업이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앞에서 말한대로, 농업에서 경제적 기능이 일부 축소되면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경제적 기능이 일부 축소되는 것어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말해왔다. 사회적농업이 단지 농림부의 그 많은 지원 사업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떻게 학교는 시작되는가?

“그에게 교육의 본질은 옥좌에 있거나 초가집에 살거나 모든 사람이 잠재하거나 숨겨져 있는 타고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모든 개인에게 종교, 도덕 교육(가슴)을 중심으로 지적(머리), 기술적(손) 교육을 전인적으로 일깨울수록 (...), 교육은 사회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즉 학교에서 교육의 본질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학교와 사회공동체는 동심원적으로 연결된다. 지식은 본래 학생들 마음속에 있으므로, 교사의 역할은 그것을 드러내는 길을 찾는 데 있다. 교과서와 교육과정 중심의 주입식 교육보다 학생이 스스로 대답을 찾게 하고 실물을 통한 직접 경험(직관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쪼개진 교과보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과 횡단식 삶의 교육이라야 한다는 원리는 그가 모두 교육현장에서 발견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탐구-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강영택, 살림터, 2022, 홍순명 선생님의 추천사에서)

10여년 전, 어떤 연유에서건 농사를 시작했다. 기껏 200평 비닐하우스 1동을 빌려 농사를 지으면서 농장이라고 불렀다. 농사를 가르쳐서 농민을 키우겠다는 전통을 가진 학교에서 10년이나 일한 사람임에도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다. 오죽 두렷했으면 혼자가 아니라 청년 두명과 함께 농사를 시작했겠는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야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농민을 키운다는 학교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하나씩 알아 가게 되었다. 학교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둔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간 무언가를 다시 만들게 되는 부끄러운 과정을 말하려 한다.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농민이 고령화되고 농촌이 과소화되어 놓고 있는 유휴농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을 20년 전부터 들었는데, 고령화, 과소화의 속도보다 기계화의 속도가 더 빨라 경작 규모를 늘일 수 있다 보니 내 순번까지 돌아올 농지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구매할 농지는 여럿이다. 몇 해전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이 한 말이 기억났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에 가서 돈을 모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야단을 쳤다. 지금 나의 막막함을 먼저 겪은 청년의 우짖는 소리를 현실적 답도 내놓지 못하는 서생이 선생질을 한 것에 불과하여 생각할 수록 얼굴이 화끈거린다. 모아놓은 자본이 있을리 없는 청년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농사 기술을 알려주면서 막상, 배운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농지는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다.

연줄이 닿은 생산자조직에서 일하는 동년배를 찾아갔다. 답답하다는 듯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벼농사는 6천평은 지어야 먹고 살수 있는데 그만큼 농지를 임차할 수는 없고, 밭농사는 2천평은 필요한데 농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트랙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도저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니 비닐하우스 1동을 임차하면 일단, 농사를 시작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 재배는 생태적이지 않아 유기농업의 원리에 부적합하다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러니 전혀 경험이 없는데- 나의 조건에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설재배를 할 수 밖에 없다니, 학교에서 청년에게 가르친 것이 무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 1동을 임차하여 쌈채소 재배를 시작했다.

농지에 대한 정보는 마을 내에서 흘러 다닌다. 마을은 사람이 필요하니 찾고 있으며 농지를 통해 그를 붙잡아 놓는다. 그러니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비닐하우스 4동을 누군가 임대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임대한다는 곳을 둘러보고 임대인과 가까운 사람을 가운데 두고 임대차 계약을 협의하였다. 오고간 내용은 이전 이력과 앞으로 계획 등으로 면접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고, 뒤에 앉아 자리를 빗내고 있는 농사를 함께 시작한 청년 2명에게도 관심이 많은 듯 하다. 농지나 시설을 임차하는 입장에서 임대가격보다 더 고민되는 것은 임대 기간이다. 작물 재배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강하는 투자를 해야하고,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년간 토양을 관리(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3년이 필요하다.)해야 함에도 보통의 임대차 기간은 길어야 5년이다. 농지를 구입할 자본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20년간 아니 평생 임차 할 방안이 필요했다. 임대인은 마을 이장이고,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행정기관의 요구로 마을사업을 신청, 선정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고, 이후 운영할 생각만하면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상황은 농촌마을에 미묘한 변화를 끌어낼 ‘여지’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제적 관계임에도 그 관계를 넘어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이는 항시 긴장감이 유지되고 균형을 맞추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과 협상 그리고 타협의 과정이다. 그 타협의 근원이 “농촌마을”이라는 공유지대이다. 한마디로 하면 농장이 있음으로 해서 마을이 지속가능하고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끊임없는 확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과 무관하게 계속 농사 짓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는 다시 농장이 마을 관련 활동을 가속화시키는 동기가 된다. 토지소유자인 선주민 리더의 입장에선 마을의 지속 불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공공성과 더불어 무언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성과욕이 동시에 작동한다. 토지 소유자는 지역 사회내의 고루한 명에 욕구와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현실적 욕망에서 줄타기를 하고, 농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지역사회 활동과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필요 간에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균형 잡기다. 상호간 조금의 자만심과 과욕으로도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은 항상 팽팽하다. 팽팽하다고 하면 웬지 저항적이고 멋있게 보이지만 실은 -농촌사회학자인 플르흐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 서로 “발을 질질 끌면서 지연”시키는 수준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마을 일을 본연의 일로 받아들였다. 가르키는 입장에선 학교 자체가 사회의 대부분이지만, 배우고 시간이 되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선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의 농촌지역이 사회인데, 이를 학교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알려 줄 수 있나.

당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청년 두명이 농사를 배우고 싶다고 농장에 들어왔다. 농사 일의 신기함은 3~4개월이면 사라진다. 쌈채소를 하루종일 수확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온갖 대화를 나눈다. 어느날 이어폰을 끼고 있는 청년에게 무엇을 듣냐고 물었더니 영어 교육방송이라 하였다. 왜 듣냐는 질문에 “주구장천 상추만 따고 있으니 웬지 퇴보하는 느낌이 들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충격을 받고 몇 사람이 모였다. 20살 청년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시킨다는 비난과 농장이니 먹고 살기 위해 농사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 속에서 6개월 간의 단기 학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주변 사람들의 재능이 투입되어 프로젝트는 완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파열음이 났다. 학습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과 농사 일이 중심인데 학습 일정으로 인해 작업이 점점 밀린다는 불만. 그럼에도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찾아오는 청년에게 학습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농사 일이 별로 없는 시기와 농사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강의 시간을 잡는

등의 -일하기 힘든 시간은 강의 듣기도 힘든 시간이다.- 몇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농장은 5시엔 일을 마치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점점 학교라는 곳을 닮아간다. 야단 맞는 것은 여전하다. 겨울을 제외하고 마을 어르신에겐 “해가 중천인데 일은 안하고 다 어디갔냐”고 야단을 맞고, 낮시간 농사 일이 벅차서 청년이 강의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강사에게 야단을 맞는다.

농사를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청년이다. 배우려는 이유는 매우 다양했다. 농민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경험하고 싶다는 답이 많았다. 농장에서 하는 일은 썸체소 종자를 파종하고 밭을 만들어 모종을 심고 수확하는 것을 365일 반복하는 것이어서 일손이 항상 필요하니 최소한의 약속으로 받아주었다. “그 농장은 사람을 몇명까지 받을거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 질문은 사람이 매년 들어오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농장의 규모나 사업의 범위(가공, 유통 등)를 확대하고, 조직이 커지면 관리 체계를 만들어 본격적인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규모를 확장할 것이냐는 질문이다. 배우겠다고 찾아왔으니 배웠으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선택하였다기보다 선택되어졌다. 나가는 이유 역시 들어오는 이유만큼 다양하다.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대로 농사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장 운영방식이 맞지 않아서 등등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농장을 나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3년 이상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청년은 1명 뿐인데, 이젠 중년이 되었다.) 나가서 농장을 만들거나 지역 사회에서 단체를 만들거나 취업을 한다. 도시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관계는 지속된다. 그러니 특정농장 출신이라는 말이 생기고 -농장 아니라- 마을이나 지역사회 일에서 서로 연결된다. 농장이다 보니 들어와서 (최소 6개월 이상을 지내다가) 나간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농장이 학교를 닮아가고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학교는 들어오는 날, 나가는 날,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농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청년(19~39세를 청년이라는 한 단어로 묶기엔 한계가 있다.)이기 때문에 앞선 경험에 따라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고, 시작 때의 배우의 정도가 다르니 배우는 속도 역시 다르니 머무는(배움의) 기간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는 것이다.

16살, 학교를 다녔다면 중 3인 청년이 나타났다. 본인은 홈스쿨링을 했다고 하지만 홈스테이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농장에서 지냈으면 한다는 단호한 모친의 말에서 느껴졌다. 호기롭게 왔지만 면담하는 아저씨가 무서운 목소리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하니 겁먹은 눈빛으로 옆에 앉아 있는 모친을 자꾸 쳐다본다. 농장에서 1년간 지냈으면 한다는 모친의 강한 의지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겠다는 청년의 애절한 의견을 적절히 버무려서, 온김에 1주일만 지내고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주일 후에 집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 시기 가장 존경스러운 몇 살 위 형, 누나들과 함께 일하고, 밤 늦게 무슨 일을 해도 간섭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단지, 그 즐거움과 자유를 위해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하고 오후 늦게 수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을 뿐이다. 밤 늦게 택시 타고 - 강의 마치는 시간이 막차 버스 시간이다.- 읍내 피시방에 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힘들어 오래 못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초기 자유를 만끽하며 부모님 카드로 피시방과 택시 결재를 하는 바람에 동선이 밝혀져 부모님의 불호령과 협박이 내려왔다. 협박 내용은 농장에서 일하라는

것에서 한번만 더하면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농장에서는 일을 하다보면 몇 살인지 몇 학년인지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냥 같이 일하는 주민이고 동료가 되어 버린다. 농장이 마을 내에 있다보니 일을 가르쳐주는 누나가 있고, 잔망스럽게 성교육 시키는 형이 있고, 일 못한다고 잔소리하는 삼촌이 있고, 고생한다고 위로하는 이모가 있으며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할머니가 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순간순간 존재위치가 달라진다.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 학생신분이 되기도 한다. 농활 온 대학생들 데리고 일을 가르치고 안내를 할 때 이 청년은 선생이라 불리며 가르치는 것의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선후배 신분으로만 존재한다면, 농촌 사회에서는 다양한 신분으로 존재하며 그 역할을 경험한다.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누구에게 잘 좀 대해주라고 조언하거나, 1년이 되어갈 무렵 진로를 논의 할 때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반장이 되었다는 소식만 전해들었다. 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만 지내면서 스스로 어른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듣고 날면서 농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했다. 사람이 연결되면 필요한 것이 생기고 필요하면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필요한 과정이 반복된다. 특히,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저밀도의 인구 구조인 농촌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는 많다. 소비보다 생산이 더 익숙한 곳이니 필요하면 만들고, 시장성은 없다보니 시작할 때는 공핍과 궁지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묘안을 찾다보면 독특한 방식이 나온다. 사람이 들어오는데 점심 먹을 마땅한 식당이 없다보니 공동 식당을 만들고, 머물 곳이 없으니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단기로 오는 청년이 있으니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소가 활발해진다. 숙식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일은 벌어진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청년이 있으니 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농장이 만들어지고, 기획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 있으니 지역의 노인 복지 체계를 고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책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으니 마을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책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생물다양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곤충을 좋아하는 청년이 또 회사를 만든다. 농촌에 이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다보니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활발히 활용한다. 이렇게 일이나 사람에 의해 조직이 분화되어 가는데, 이들이 다시 연결되면서 또 다른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너무 감소하니 대책을 세우자고 해서 마을학교가 시작되고, 청년들에게 일과 더불어 강의를 듣게 하자고 해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강좌를 만들고, 연구자가 자주 찾아오니 아예 마을에 연구자와 활동가 그리고 농민이 함께 학회도 만들어졌다. 모이면 다시 분화한다. 매달 세미나와 집중적인 강학이 그리고 외부 단체와의 교류 활동이 많아지고 이를 담당할 연구소와 출판사가 만들어지더니 이제 여행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장학재단이, 건축사무소가 그리고 또 다른 연구소가 자리를 잡았다. 이는 되돌이표 같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고, 견학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게 커지면 다시 단체가 필요할 것이고, 그럼 또 사람이 필요해지고... 일을 그만 좀 벌이라는 지적구를 듣고 있지만 내가 벌이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항상 경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농촌다움을 해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농민이나 주민의 감수성에 맞추어야 하고, 농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도시의 것을 농촌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청년에게 농촌의 어르신 문화에 적응하라는 말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즉, 서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고 서로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줄 위에서 좌우

로 흔들거리며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어정쩡하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위태롭고 우스꽝스럽고 불편한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학생에서 농사와 농촌을 체험시키고 싶다고 선생님이 찾아왔다. 생태와 지속가능성, 우주의 기운과 생명의 가치 그리고 농민의 노고와 농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그런 건 학교에서 가르치고 여기에서는 일상을 경험시켜줄 수 있다고 답한다.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고, 농장에 있는 청년과 동일한 일상을 -같이 일어나 일하고 강의에 참가하고 마을 일이나 행사가 있으면 참가하는- 함께 지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10명 이내로 소수로 최소 2주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내 몸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사용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존재를 확인한 근육의 통증도 사라지고, 긴장도 풀리고, 막연한 낭만이나 기대에 찬 감성도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새벽에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고 거울을 안보니 찻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만날 일도 없으니 몇 일 입었던 옷을 그냥 걸치고 농장으로 뛰어올 때가 되어야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일상이 시작되고 집으로 가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일상생활의 존엄성 안에 숨 쉬며 대항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선제 조건은 의지할 선생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선생님이 찾아왔다. “농촌은 봉사를 당하는 곳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봉사를 당하는 회생을 -봉사의 경험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봉사- 할 수는 있다. 농업의 힘듦과 농민의 수고를 알게 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에게 이 마을 공간을 농업 활동을 통해 자기의 삶속에 연결시켰으면 한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평균적으로 60년은 살아갈 건데 그 기간 동안 한번은 무릎이 꺾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손에 일이만원만 켜 상태로 역 앞에 홀로서서 멍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스치면 떠오르는 한 공간을 지금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없는 사람은 삶의 경로,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농촌 마을에 봉사하러 오지 말고 이 곳을 배우고 익히러 왔으면 한다.” 식량위기와 기후위기라는 생존 공포 때문에 농촌을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에게 힐링과 여유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가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고단한 노동과 자율성 그리고 궁핍과 금지 사이에서 헤매면서 -농민의 도덕 경제라는 책은 농민을 ‘물 속에서 물이 턱까지 찬 상태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물결이 조금만 일어도 익사하게 되는’ 상태로 묘사한 토니의 은유로 시작한다.- 살아감에도 스스로 사회적 경험을 쌓아가며, 삶을 구성하는 사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농촌이 -식량생산기지인 농촌, 공단지대와 유사한 농단지대가 아니라- 있어야 한다. 이 농촌이 어찌면 인구의 대다수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여유롭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매년 농장에 새로 사람이 오고 올해는 또 누가 올 것인지가 주변 사람들에게겐 관심거리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1년간 생활하는 20대초 청년 3명, 군 체대 후 복학하기 전 6개월동안 농장 생활하는 20대 중반 청년 1명 그리고 2주간 생활하는 30대 초반 청년 1명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까 더 걱정을 하지만, 그때는 그냥 농사를 더 열심히 지으면 된다고 말한다. 사람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농장에서 하던 일은 다른 단체의 역할로 분화해가고, 분화한 단체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화가 일어난다. 청년을 받아 농사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농장(실습)이 늘어나고, 강의, 월례세미나 등 강좌를 기

획하는 단체(학습)가 많아지고 학습이 정례화되다보니 마을에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단체(교실)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청년이 한 농장(작물)만 배우는 것보다 여러 농장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한 마을만 아는 것보다 여러 마을을 알게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한 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가능한 많은 분들과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흩어져 있다. 농장과 교실은 두개 면(장곡면, 흥동면)에 흩어져 있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살아간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한다. 마을 자체에서 교육기관인 학교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인지적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학교를 거쳐서 마을(지역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온 다음에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학습 중에 농사가 있으니 농민이 되는 것이다. 학생 신분을 거쳐 주민이나 농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나 농민으로써 학습에 참가하는 것이다. 간혹, 학습에 참가하기 위해 농장에 오고 싶다는 청년도 있다. 마을 자체를 학교화(평민마을학교) 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마을 속에서 농사를 짓다보니 10여년의 과정이 다른 형태의 학교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이는 후진성을 채 벗어나지 못한 천덕꾸러기로 보이는 농촌을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로 ‘번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전통문화인 ‘우리 것’만을 보전하는 민속촌이나 재봉건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중심이 아닌 변방이기 때문에- 새롭게 ‘삶에 대처하는 방식을 고안’해보는 것이다.

“어제부터 온수가 안 나오데 보일러 고장난 것 같습니다. 관리실도 없고 어디로 연락하죠?”

“어 그래 보일러 수리하는 분께 연락해 보라.”

오후에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께서 화난 목소리로 전화가 했다.

“아니, 기름 떨어졌는데 고장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청년에게 연락했다.

“아니, 기름 떨어진 것부터 확인해야지 고장났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헐... 보일러에 기름이 필요한가요? 도시가스 아닌가요? 근데 기름은 어떻게 넣죠?”

“미안하다. 안 가르쳐준 내가 잘못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생존을 가능케 할 생활기술교육은 계속된다.

농촌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

글 제목을 받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진짜로' 필요하니 청년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를 한참 고민했다. 한때 유행한 “주어”가 불명확하다. 청년은 주거공간, 일자리, 네트워크, 문화 공간, 창업 자금, 농지, 공간 등 필요한 것을 무수히 나열할 것이다. 행정은 주소부터 옮겨주기를 또 청년 관련 행사에 나와 끝날 때까지 버티는 순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농촌 주민은 나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닌 내 일이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되겠지만 주어가 누구든 냉수를 뿌려가며 서로의 허상을 깨는 찬물 끼얹기가 우선 '진짜로' 필요하다.

로컬이나 지역사회라는 단어와 청년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고 생뚱맞다고 생각했다. 1994년 새해 뜬금없이 등장한 세계화(Segyehwa)라는 단어는 해석부터 격한 대립을 불러왔다. 이후 OECD, WTO, FTA 등 내용을 알 수 없는 영어 약어로 대표되는 세상으로 흘러갔다. 마을과 지역을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중심에 둔 교육을 주구장창 받고 자란 그 당시 청년에게 세계화라는 말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소소한 희망과 무한경쟁이라는 불안감을 동시에 던져 주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당연하다. 글로벌 인재를 목표로 교육받으며 청소년 시기를 보낸 세대가 현재 청년이 되었다. 스스로 동의한 바 없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더니 이젠 로컬이 미래(2018,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고, 로컬을 지향하는 시대(2017, 미쓰나가 게이코), 비즈니스는 로컬이고(2012, 존 A 치, 캐서린 E 조크스), 음식은 로컬푸드(2006, 브라이언 헬웨이)를 먹어야 정의이고, 교육은 로컬에듀(2017, 추창훈)인 세상이 펼쳐졌다. 삶의 방식으로 보자면 서울과 11,059km 떨어진 뉴욕이 111km 떨어져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홍성군 장곡면보다 훨씬 더 친숙한, 그렇게 바랬던 글로벌 인재가 된 청년에게 씌워주며 로컬이 미래이니 지방에서 길을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웅팔’의 쌍문동 골목길 삶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에게 골목이라는 로컬이 한국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며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멋진 명함을 쥐어준다. 하지만 그들에게 로컬의 삶과 로컬 인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로컬에 글로벌인재만 떠다닌다.

지방이나 농촌이란 단어 뒤에 소멸, 고령화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익숙하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는 역시나 당혹스러웠던 일도 근 5년이 되어 간다. 농촌을 두리몽실하게 시, 군 같은 기초지자체로 보기 십상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읍(邑)으로 대표되는 도시화된 공간도 있다. 농(農)이 있어야 하는 촌(村)인 농촌(農村)을 좀 더 엄밀히 보면 면(面)이나 리(里)가 그 현장이다. 도시와 농촌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에겐 이런 구분도 무의미하다. 10년 전 내 강의 자료에는 장곡면 인구는 3,400명 정도라 적혀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2,855명으로 바뀌었다. 1년에 평균 50명 정도 감소한다는 내용도 최근엔 70명이 되었다고 덧붙인다. 장곡면은 서울특별시 구 2개를 합한 것보다 넓은 면적이고, 서울 구 2개면 인구는 대략 800,000명 정도다. 도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청년에게 이 정도 저밀도의 농촌은 무인지대, 즉 빈 공간이 많을 것이고, 사람 역시 감소하니 빈집도 많을 거라 생각한다. 빈집이나 빈공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곳은 기존 주인의 생활 방식(삶의 형태)

에 의해서 관리, 유지되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니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주기적으로 제초를 하지 않으면 마당은 풀밭이 되고, 정기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흙담은 무너지고, 매일 신경을 쓰지 않으면 보일러는 겨울마다 터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빈집이지만 팔지는 않으니 임차해서 집을 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허가 주택이니 정부 사업비 투입도 불가능하다. 기존 주인의 삶의 형태를 따르지 않고 도시에서 살던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빈집과 빈공간은 없다. 그러니 청년을 위해 신규 주택을 짓기도 한다. 생각해보라. 옆집 노인은 -청년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주거시설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 방금 진입한 청년의 힘들다는 말에 정부에서 새집을 지어줄 때, 60년째 그곳을 묵묵히 지켜온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말이다. '진짜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허허벌판이나 산 속, 아니면 기본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읍내라면 -어차피 관심을 가질 사람도 없으니- 상관없다. 만약, 정착하고 싶은 곳이 농촌이라면 주변 마을 사람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집 관리에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입해야 하는 덩고 추운 집에서 생존 가능한 청년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상상해보자. 청년 정착을 위한 청년 주택을 지을 때 청년을 받아준 마을 주민의 주택도 같이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내가 살 집만이 아니라 아니, 내가 살 집을 위해서라도 마을의 주거환경을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로컬인재이다.

동일한 면적에 인구 밀도의 절대적 차이는 삶의 영위 방식을 다르게 한다. 인구 밀도를 높여 사회가 작동하게 설계된 도시의 시장 방식과 달리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좀 더 고상하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이 다르다. 간혹 한적해서 좋겠다는 반응도 있지만 인구 감소는 시장으로 작동하는 생활 서비스의 가파른 축소로 이어진다. 서울시 2개 구 면적에 가게와 식당은 달랑 2~3곳만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가게는 저녁 6시면 문을 닫고, 식당은 코로나 19로 인해 강화된 거리두기가 없어도 저녁 9시면 문을 닫는다. 물론, 16km 떨어진 읍내로 간다면 도시와 큰(?) 차이 없이 대충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접한 청년의 반응은 몇일만에 극명하게 변한다. 가로등 없어 캄캄하니 별이 잘 보여 좋다는 첫날의 느낌은 곧 너무 어두워 무섭고 두려운 공포감으로 바뀐다. 도시에서 잠들던 시간에 깨어나 일을 시작하니 새벽의 맑은 공기와 더불어 하루가 길어진 것 같아 뿌듯했던 첫날의 느낌은 곧 이 몸뚱아리가 몇일이나 버틸지,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같이 두려움으로 바뀐다. 저녁이 길어 여유롭다는 첫날의 느낌은 모든 것이 차려져 있어 선택만 하면 되는 곳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차려야 하는 야생의 두려움으로 바뀐다.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한 청년에게 서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농촌은 내팽개졌다는 느낌이 든다. 이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서비스 체계가 없어 불편하다는 점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업 아이템도 경쟁 상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곳이라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자라면 농촌은 여백이 많은 기회의 공간이 되고 후자라면 잠시 머물 때만 좋은 특이한 공간에 불과하다. 전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불러 오게 할 멋진 레시피와 기가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도 소용없다. 충남의 행정구역 면(농촌)은 평균적으로 3,500명 정도의 저밀도 인구와 65세 이상이 50%를 넘는 인구 구조를 가져 유동 인구는 없고, 거리에 내걸 플랜카드를 제외하고 뽕족한 정보 전달 방법도 없다. 그러니 또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보통의 선택은 여전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다. 그러니 풍광 좋은 곳, 국보급 문화재를 가진 또는 요즘 유행하는 한적한 오지를 찾는다. 로컬에 멋진 카페가 있고 이곳에 많은 도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로컬창업이라 하기엔 무언가 허전하다. 왜냐하면 보통의 농촌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유일한 마을자원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창업한다고 굳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종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업종이 필요에 의해 만들고 유지되는 것이라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농촌 주민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농촌 주민은 모든 것을 자립적으로 만들고, 없어도 자족하는 용가리 통뼈인 사람만 있지 않다. 단지, 경제성이 없으니 사라진 것이고, 오랫동안 없는 상태로 지내서 적응을 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청년은 농촌에 정착하면서 무언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청년이 농촌에서 자기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창업이 동시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도 올리는 방안을 찾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도시에 흔한 업종이 저밀도의 농촌사회 주민 삶의 방식에 어울려 그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로컬 창업이다. 농촌은 이전부터 저밀도의 인구 구조 -장곡면 인구가 가장 많았던 60년대에도 14,400명 정도였다- 에서 작동하는 생존 또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이 존재했다. 비록 많이 사라졌지만 농촌마을공동체라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낮아 빈곳처럼 보이지만,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 답답할 정도로 더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업종은 도시에서 복제할 수 있으나 운영방식은 새로워야 한다. 청년에게는 새로울 수 있지만 농촌 주민은 -잊어버렸을 수는 있지만-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다. 지역사회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운영 방식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만나기 위해 도시 사람들이 로컬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로컬창업이다.

농촌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많은 청년들이 농사 말고 무슨 일거리가 있냐고 되물곤 한다. 장곡면 가구의 50%정도가 농사를 짓고, 주변에 변변한 공장도 없으니 취업할 일자리는 없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엔 농지와 농업기술이라고 답한다. 스마트 팜과 같은 하이테크놀로지 농업기술도 배울 곳은 많다. 단지, 이 기술을 활용할 농지와 시설을 구입할 자본이 없는 청년에게는 써먹을 곳이 없다는 점에서 큰돈이 들어간 대학 졸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 융자정책이 있지만 농사를 통해 일정기간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정도로 수익성이 보장되었다면 농가부채와 탈농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았다. 선진적 농업 기술은 알지만 1년 동안 농산물을 판매한 매출이 -순수익이 아니다- 3,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농가의 80%를 차지하는 현실은 잘 모른다. 몇억 매출을 올린 청년농부에 관한 신문기사는 봤지만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는 전체 농가 중 3%도 안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누구나 3%에 속할 거라 기대하지만 자본 없이 출발한다면 80%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로컬푸드나 파머스마켓, 인터넷 판매 등 새로운 먹거리 경로를 만든다 할지라도 말이다. 65세 이상 농민이 6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로 청년농부를 육성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농사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또 농촌에 일자리(취업)는 없지만 일거리는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인 것도 사실이다. 여백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농촌에는 할일 즉, 일거리는 많다. 문제는 그 일거리가 일자리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거리를 일자리로 만드는 창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일거리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사회에 발을 깊이 담궈야 보인다. 농촌 지역사회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마을 주민 50%가 종사하는 농사를 짓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익숙해져 기존 주민은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필요로 한 일거리가 그때 보인다. 농촌지역사회 주민 대부분이 대상자인 복지를 비롯하여 환경, 경관, 주택, 체험, 마

을관리 등을 주제로 한 많은 일거리들이 일자리로 되지 못하고 문제거리로 떠돌고 있다. 관련 행정 사업도 많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사람이 아니라 정책사업 진행전문가만 배회한다. 농사를 작게 지을 수 밖에 없으니 나머지 시간에 농촌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직접 만드는 것이니 반농반촌(半農半村)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해서라도 농업과 농촌은 다시 만나야 한다.

한겨울 냉수를 끼었다고 정신은 차려질지 몰라도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농촌(지역사회)과 청년이 서로를 원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할때는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보편화된 장소인 학교와 학원에서는 -수능 시험에 나오지 못하니-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다. (농촌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배울 수 밖에 없다. 농촌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농사와 복잡한 농촌지역사회의 속살을 알아 갈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더 다양하게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청년은 완성된 자신을 맞이할 일자리와 귀한 청년이 들어갈 집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선, 배움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배웠는데 또 뭘 배우냐고 투덜거리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글로벌인재 교육을 받았지 로컬인재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 투덜거림은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를 향하는 것이 맞다.

필자 : 정민철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이사.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연결되어 홍성군 홍동면으로 이주하였다. 10년간 학교에서 일하고 2011년 청년 몇과 함께 장곡면에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을 만들어 농사 짓고 있다. 농사를 배우기 위해 농장에 오는 청년과 함께 다양한 마을 일을 만들어가고, 마을에 남은 청년들과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평민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가지 않은 길

삶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하여 이해시킬 수 있는가하는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번의 기회만 가지는 삶(의 경로)은 어찌다보니 현재 내 눈 앞에 놓여진 -오랜 세월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방식- 경로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득,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문득”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생각도 책이나 영상을 통해 입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른 무엇을 상상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상으로 흘러가버린다. 현재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무엇에 대한 기대와 긍정화에 따른 공상은 커진다.

피천덕 시인이 옮긴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맞으면서 외운 시이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래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기라도 했으면 좋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배낭여행과 워킹홀리데이와 그 무수한 캠프와 살아보기들이 등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돌아오면 그 자리이고 해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옆에서 보는 것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기 때문이고, 용하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안내자가 없으면 그 짧은 시간에 현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 현장에서 살아본 경험이 -당연히- 없으니 내가 살아온 -그 현장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기초로 또, 유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현실적이지 않고 긍정이나 부정이 극단적으로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바라다”보기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일모작을 시작하는 그 불안한 청년 시절에 말이다.

올해 겨우 이주동안 농부가 되어 본 청년의 평가는 “농부도 나의 진로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이다.

일거리

워낙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보니 어느듯 청년이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시대적 특성 -특히, 경제 상황- 을 무수히 나열하면서 청년의 어려움과 불안함을 설득한다. 인류 역사에서 청년 시기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없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면서도, 지금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한갓 경기하락과 4차 산업시대의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일거리”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거리”를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모여 살다보니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일이 있고 이것이 직업이 되었을 것이다. 도시가 고도화되면서 지금은 일거리가 아니라 일자리만 보여 줄 뿐이다.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취업이다. 그 일자리가 무슨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일자리를 가기 위한 경로 그리고 그 일자리를 잡았을 때는 조건을 더 많이 고민한다. 물론, 그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거나 들었고, 그 일자리로 가기 위한 경로를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다는 사회적 조건을 가져야 한다.

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천승걸 교수의 번역본이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 걸은 자취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알아질 것입니다만,”

지금 시대는 대부분 “걸은 자취”만을 찾아서 따라간다. 그 자취를 따라가기에 무언인가 부족해지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갈수록 그 “자취”는 명확해지지만 길의 폭은 좁아진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면도 웬지 아닌 것 같은 불안감,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내가 놓치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닐지 또,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길함은 항상 따라다닌다. 다른 길은 왜 보이지 않는거지? 어쨌면, 다른 길을 보았지만 현실에선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단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통용되는 사례라고 부러워만 했을 수도 있다. 예전 부모님의 일만을 이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나 현재 어떤 것이라도 선택 할 수 있다는 시대나 모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고 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은 매한가지 일 듯 하다. 어떻게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물론, 취업은 아니다. 취업이 아닌 무엇을 설명하기도 참 어렵다.-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사회”를 경험해 보는 것이다.

올해 이주동안 농장 생활을 경험한 청년의 “이렇게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나도 톱니 바퀴가 아닌 시계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평가가 마음에 와 닿는다.

사회와 마을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 그 주요 형태는 가족, 마을, 조합, 계급, 정당, 회사, 국가 등이다”라고 사전에 나와있다. 도시와 농촌의 구분보다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시대이다. 서울로 대표되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경험을 하는 사회는 학교라는 사회이다. 그 학교라는 사회는 일거리가 규정되어 있다. 공부하는 것 뿐이다. 관계도 뻔하다. 교사와 학생이 거의 전부이다. 그 학교라는 사회에서 청소년 시절 최소 12년을 보낸다. 이후에는 회사라는 사회로 진입한다. 이 사회도 일거리가 아니라 일자리이다. 학교는 회사라는 사회로 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 한때는 사회라 하면 국가나 민족을 말하는 시대도 있었다. 우리는 산업역군이나 민족 중흥을 위해 어찌다보니 태어난 적도 있었다.

시는 이렇게 이어진다. 이번에는 정현중 시인의 번역이다. 제목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다.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먼저 길은 한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추상적으로 흔히 사회라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관계를 맺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한정된 공간이다. 이런 경험한 기억이 아른하다. 최소한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 골목길 사회조차 경험한 기억이 없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을 즉, 사회를 처음으로 대면할 수 있다. 농촌이라는 도시와 다른 작동 메카니즘을 가진 사회는 어색한 것이 당연하다. 없는 것 투성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그곳에선 일자리가 없다. 하지만 일거리는 산더미 같이 많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4차 산업 시대의 주역인 AI도 모르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곳에서 생활과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생활과 일이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빈 공간에서 나의 공간을 만날 수도 있다. 물론, 나에겐 -지긋지긋했던- 지금의 도시생활이 더 어울린다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뭐라도 상관없다.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의 농장 일 이후 교육은 정말 좋았다. 이때의 기억은 농촌을 다시 보게 되었다. 농촌을 단지 시골, 못 사는 동네, 냄새나는 동네, 평균연령이 많아서 결국 소멸될 곳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쓰는 ‘서울’에 있는 언론에 의해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서울시민인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농촌은 어느 대도시보다도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곳이고, 농사는 어느 학문보다도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니 당연히 농부는 과학자이고 철학자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 교육이 없었다면 이 시간은 몸만 힘든 체험에 불과했을 듯 하다.”

이주

도시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방의 삶을 경험 시켜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은 간단히 나왔다. “일상을 살아보게 하면 된다.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진짜로 경험하게 하면 좋겠다.” 지방이라고 뭉텅이로 질문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마을과 옆 마을조차도 큰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내용과 생각도 무수할 건데 그것을 모두 경험해 보려면 평생이 걸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무심한 듯 했지만 담당자의 당황하는 모습도 느껴졌다. 청년들의 관심을 붙잡을 기발하게 디자인된 포스터와 솔깃한 타이틀 그리고 상세하게 짜여진 일정과 흥미로워 할 이벤트가 아니라 그 무덤덤한 일상을 그냥 경험시키자니.... 태어나서 처음 농촌을 경험해보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더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아니, 요즘 말도 통하지 않는 오지여행도

유행 -이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다- 하는데 기차로 2시간 걸리는 곳이고 한국말 다 통하는 곳인데 무서울 뭐가 있냐”고 대꾸를 했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선 200km 떨어진 농촌과 도시의 간극은 11,000km 떨어진 서울과 뉴욕의 간극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밤이 이렇게 어두울 줄이야, 벌레가 이렇게 많은 줄이야, 화장실이 실내에 없을 줄이야, 남쪽으로 왔는데 이리 추울 줄이야, 저녁 7시가 되면 물건 살 곳이 하나도 없을 줄이야. 버스가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이야. 일이 이렇게 계속 있을 줄이야... 등등의 일상적 충격을 말할 때마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를 줄이야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이것보다 우선하여 친절한 안내자에 따라가는 것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익숙한 청년들이 허허벌판 광야에 홀로 던져진 듯한 느낌은 -물론, 이것은 젊은협업농장에만 해당하는 사항일 수도 있다- 불친절함과 비계획성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아니다, 이것은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했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더듬더듬 사회를 알아가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소비를 위한 준비만 -지갑의 카드- 하면 되는 도시와 달리 농촌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한 것이다. 익숙해졌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얻기 위해 불편함을 느끼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는 보이게 된다. 그 일거리는 도시에서 그렇게 원했던 일자리와는 달리 내가 찾아내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며 이는 혼자서 그리고 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들어가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첫해를 마치고 서울 청년에게 농촌의 삶을 보여 줄 수 있는 다른 곳을 알려 달라는 담당자의 요청에 오랜 시간 농촌에서 활동해 온 사람과 마을이 떠올랐다. 그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을 이들에게 또 다른 일거리를 주는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농촌 어디서나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주00을 계획할 때부터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다. 서울의 담당자는 서울 청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농촌 마을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했다. 노동이라는 굴레로 도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결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현재의 모습을 남겼다. 이제 더 이상 메마를 것도 없는 농촌엔 도시 청년의 힘듦까지 돌볼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여력이 없다고 여력이 생길 때 까지 우선 농촌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력을 만들 그 시작점으로 청년과 만나는 한다. 100여명을 만나야 한 두명과 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기 빗나가고 여러 청년들이 농촌으로 진입한 듯 하다. 이주만이라도 괜찮다. 최소한 90%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농촌을 경험해 본 것만으로도 삶의 스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덜 밟은 길을 택”하지 않아도 된다.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가 만나기만 해도 된다. 농촌과 청년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연결은 또 다른 상상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에게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그리고 농촌에게는 잊어버렸던 자기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서로를 탓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힘들다는 말이 붙어 다니는 두 단어이기 때문이다. 힘들 때 서로의 “운명을 바꾸”는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

청년허브와 홍성, 영광, 춘천, 상주, 옥천의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항꾸네협동조합 사회적농업 청년 자자궁



1

• History

**2013년
~ 2018년** 항꾸네협동조합설립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 작은도서관 '책담' 마을공방 '다짜고짜'
청년쉐어하우스 '꿈엔들' 등 commons 구축

2018년 자체적으로 청년/귀농인 대상 농장 운영

**2019년
~ 2022년**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자 선정
현재 사회적 농업 4년차
학교생태텃밭 활동(2021~)

항꾸네협동조합

2

청년 자자공 (사회적농업)

목 적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고 ‘농사’를 지으며 ‘자립하는 삶’을 지향하는 청년’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자 한다.

★ 자자공 = 自然 自立 共生의 가치를 지향

프로그램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농사와
농촌생활 자립을 위한 기술(의자립,식자립,생활자립)을 익히고
주제토론과 탐방을 통해 농적 삶의 계획 수립을 한다.

운영 원칙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전환의 과정이다.

특 징

항꾸네협동조합의 다양한 조합프로그램과 일상(도서관 강좌, 행사, 동아리 모임, 농사 품앗이 등)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가 주는 유익도 접하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공동체성을 확장한다.

청년자자공

3

청년 자자공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1 - 장기

장기 프로그램		시 기	내 용	장 소	인원
농사 및 생태 환경	논농사 실습	4월~10월	못자리에서 수확까지 주차별 지도	논	6~8
	밭농사 실습	3월~11월	친환경/자연농/퍼머컬처 실습	밭	
	농민 강의	연중 7회	농법, 토종농사, 작물별 이론	농가	
	농서 토론	연중	토론식 학습		
농촌 생활 기술 워크샵	시골음식	4월~12월 (9회)	제철 농산물을 이용하여 시골 음식 만들기	쉐어하우스 농가	6~8
	천연생활용품	분기별 (3회)	자연재료를 이용 천연생활용품 만들기(비누,치약,세제 등)	책담 작은도서관	
	의자립	2회	천 직조, 염색, 옷만들기.	마을카페	
	생활자립기술	연중 매월	목 공(6h), 건 축(20h), 용접(3h), 적정기술16h(빛물활용3h,햇빛 에너지4h,조적6h,매듭3h 등)	공방	
탐방	농가탐방	연중 6회	가보고픈 농가 방문	농가	8~10
	자연탐방	연중 3회	숲/산/남도 등 탐방	야외	

청년자자공

4

청년 자자공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2 - 단기

단기 프로그램	시기	세부내용	인원
모하지	6월 (2박3일)	- 손모내기 : 귀농청년들과 도시청년이 함께 한다. ☞ 시골음식 배우기, 맛보기 ☞ 아나바다 (지구를 생각하는 활동), 농촌예술활동	20명
모하지 (가을)	10월 (2박3일)	☞ 콩수확/벼수확 및 갈무리 ☞ 농촌예술 활동 ☞ 귀농청년들과 예비귀농청년과의 대화	20명

청년 자자공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3 - 지역과 함께

① 항꾸네협동조합 프로그램 또는 모임에 참여

» 강좌, 동아리, 행사, 공동농사 등

② 학교텃밭교사 활동

» 사회적농업 청년들은 21년부터 학교 생태텃밭정원 교육농 활동을 하고있다.

귀농청년들

5

♪ ‘청년 자자공’ 출발 (2019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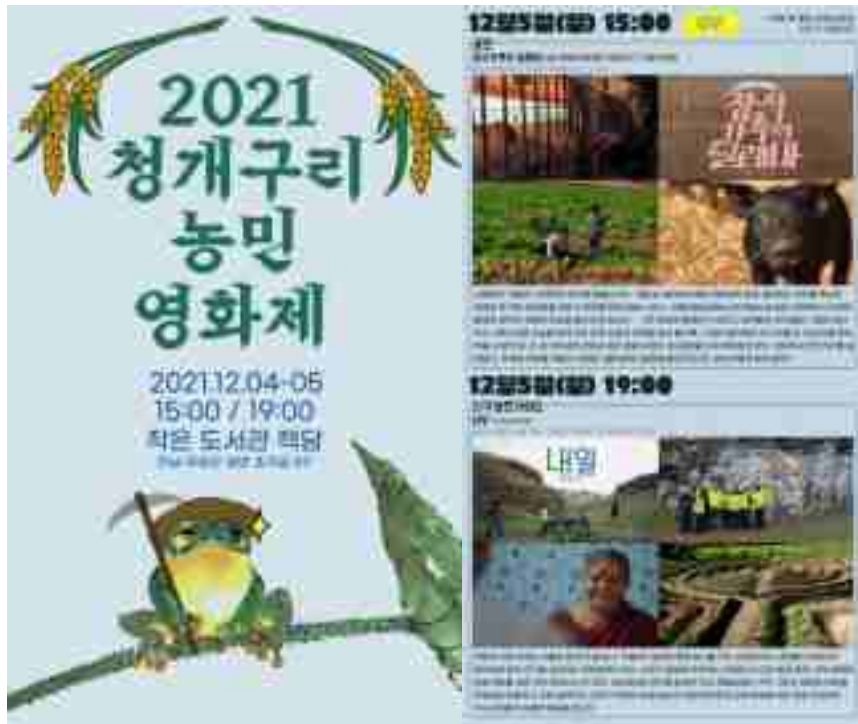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21년~ 학교생태텃밭정원 활동



49



50



51



52



53



54



55



56

청년 자자공(사회적농업)의 유익

1. 청년이 얻는 유익

- ① 생태적인 삶, 농부의 삶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가치 측면에서 선택지가 된다.**
√ 17명의 참가자 중 13명 마을 정착
- ② 1년간은 **주거가 해결**되기에 가장 어려운 진입장벽이 해소된다.
- ③ 도시청년들이 **농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배움** '농사, 자립기술, 지역과 농촌 현실 이해/농촌정착사례'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 ④ 항꾸네협동조합, 먼저 정착한 청년 농부들의 존재는 **청년에게 안정감과 연대감**을 주고 있고,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손, 정보, 멘토, 물질, 농지)을 준다.
- ⑤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나래를 펴고 있다.**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사회적농업 스텝, 마을식당과 웨이스트샵 운영, 항꾸네 농사 품앗이 진행, 마을 일꾼(건축)으로 활동, 마을음악회/마을영화제 개최, 풍물패 활동, 지역사회 문제(농촌환경 파괴문제 등) 참여 활동
- ⑥ **농촌에 청년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청년자자공

57

청년 자자공(사회적농업)의 유익

2. 지역이 얻는 유익

- ①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 조합 소모임, 위원회에 청년이 결합하여 손과 머리가 되어 주고 있다.
 - 동아리/소모임, 인문/생활 강좌 개설, 농사품앗이, 주제토론, 생활개선 등
- ② **선배 귀농자가 배운다.**
 - 청년세대의 열정을 접하고, 주요 이슈(생태적 삶, 성평등, 사회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자극을 받고 생각도 넓히게 된다.
- ③ **지역(곡성) 공동체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 학교텃밭정원 교육농 활동, 비건/제로 웨이스트 운동, 다양한 지역 문화 활동 등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의 일꾼이 되고 있다.
- ④ **연대**
 - 타지역 농촌 청년 혹은 청년공동체와 교류하며 서로 지지와 배움을 나누고, 도시 예비 귀농청년의 방문과 만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년자자공

58

청년자자공(사회적농업)의 어려운 점

① 시설의 제약

사회적농업 청년 분야는 특성상 장기과정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거 시설이 필요하다. 항꾸네 사회적농장은 신규 5~6명만 수용 가능한 시설이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자원해도 받을 수 없다.

② 운영시스템의 희생과 헌신

농사실습과 정착준비라는 특성상 장기간 농사와 활동을 거의 매일 같이해야 하는데, 운영자의 전면적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지원 사업내에서 적절한 처우는 어렵고 헌신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다.

③ 청년이 정착하고자 할 때 어려운 점

농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거대책도 해결되어야 하고, 일정 기간 소득 대책도 필요하다.

★ **지자체와 중앙 부처 단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 마을內 청년농 장기 임대 (공동)주택 설립,
청년농 정착지원금 지급 (또는 현재의 청년창업농 지원제도 개선)



59

앞으로 청년 자자공(사회적농업)은..

이제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항꾸네 사회적농업 경험 4년, 정착한 청년들의 문화,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감...

귀농을 준비하는 또다른 청년들을 돕는 일에 청년이 운영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마을에 형성되어진 '청년 농부들의 정착은 이런 삶을 추구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 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청년들의 합류가 이어진다.

선배청년들이 자연스레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체계로 변화하고자 한다.



60



61

[제천 덕산 청년마을 사례발표]

카카카

: 지역에서의 삶을 실험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어갑니다.

<목차>

- 2018년 남해로 이주하여...
- 2019년 콘텐츠 생산자
- 2020년 새로운 곳, 새로운 만남
- 2021년 먹고살기 위한 발버둥
- 2022년 신세계
- 2023년 다음을 위하여

2018년 남해로 이주하여...



남해에 모인 청년들

-
-
-



남해에서의 첫 월세집 앞 몽돌 해변

-
-



서울에서 놀러 온 친구들

-
-
-



카카카 식당

-
-
-

2019년 콘텐츠 생산자



남해 무인도 영화제 포스터

-
-
-



면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운동장

-
-
-



초등학교 강당

-
-
-



개막행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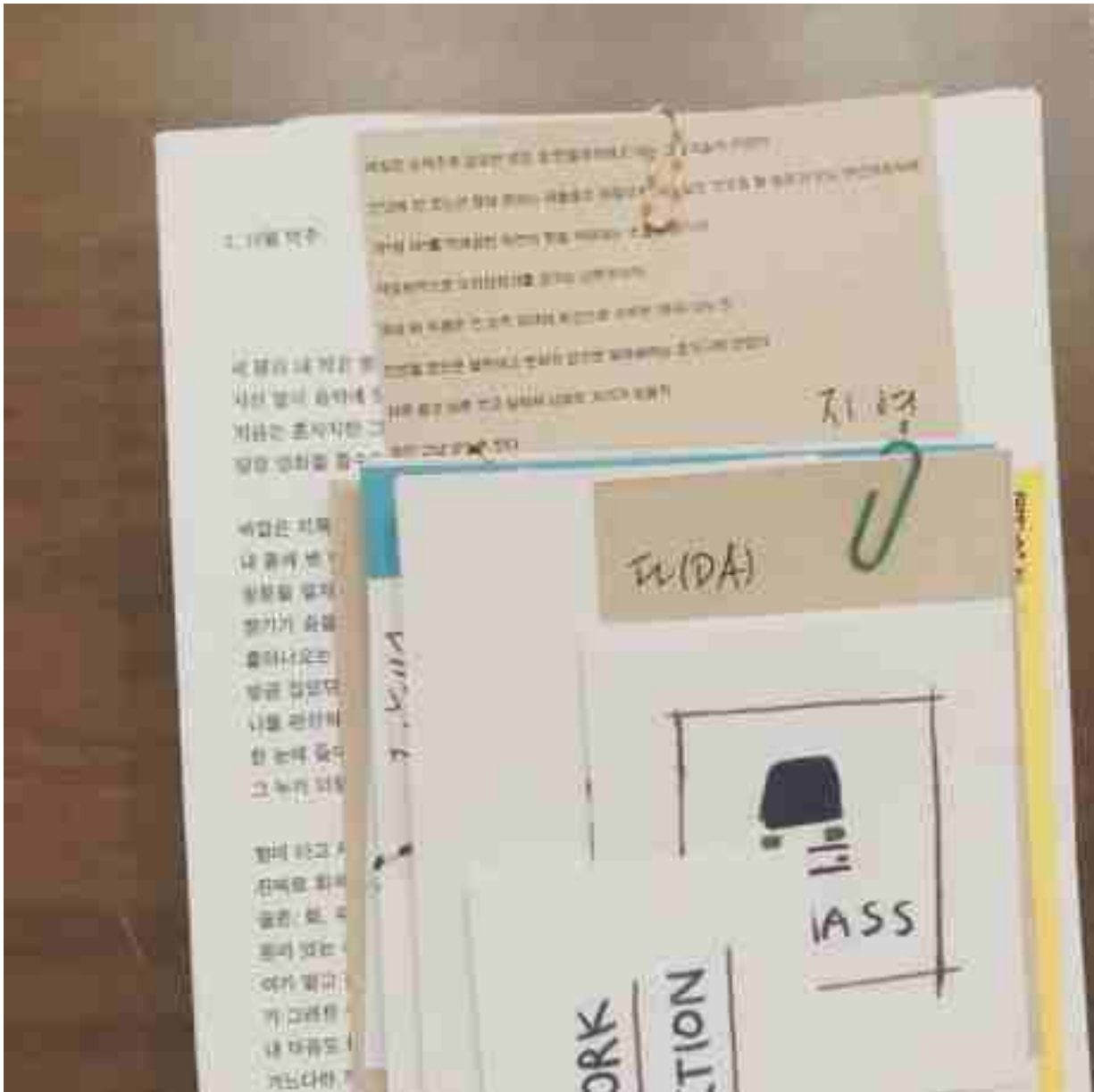
서포터즈 및 스태프

-
-
-



창작물류실험 다마쓰의 우편 포장

-
-
-



창작물류실험 다마쓰의 내용물

-
-
-



창작물류실험 다마쓰의 내용물2

-

-

-



미술전시 기획 및 운영

-

-

-

ㅈ



로컬 라이프스타일 탐구지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 창간호

-

-



창간기념 북토크 (@합정 손과얼굴)

2020년 새로운 곳, 새로운 만남



어촌에서 산촌으로 이사

-
-



마당이 있는 집

-



마당에서 하는 고전영화 상영회 ‘공실극장’ 행사 기획

-

-

-



공실극장 행사 사진

-
-
-



공실극장 행사 사진2

-
-
-



남해 근처 하동 계곡

-
-
-



남해 로컬이 투어 시켜준 물질 포인트

-
-
-



창작자를 위한 남해 지역살이 프로그램 ‘무럭무럭’

-
-
-



창작자를 위한 남해 지역살이 프로그램 ‘무럭무럭’ 2

-
-
-

2021년 먹고살기 위한 발버둥

디자인

<https://studio-cacaca.com/PROJECT-MAINPAGE>

콘텐츠 판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서울 국제 도서전 참가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참가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 1, 2, 3호 발행

2022년 신세계



공간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투자금 모집 ‘억소리나는 부채 만들기 대작전’

-
-
-



4월 공간 매입

-
-
-



5월 공간 철거

-



5월 공간 철거2

-

-

-



6-9월 공간 리모델링

-



6-9월 공간 리모델링2

-

-

-



6-9월 공간 리모델링3

-
-
-



6-9월 공간 리모델링4

-

-
-



6-9월 공간 리모델링5

-
-
-



6-9월 공간 리모델링6

-
-
-



6-9월 공간 리모델링7

-
-
-



10월 공간 가오픈

-
-
-



10월 공간 가오픈2

-



11월 서울 언리미티드에디션 참가

-
-
-

2023년 다음을 위하여

유튜브 (카카카 친구들의 지역살이)

https://www.youtube.com/channel/UCF6rhCDeuGvoR1_fl57Czf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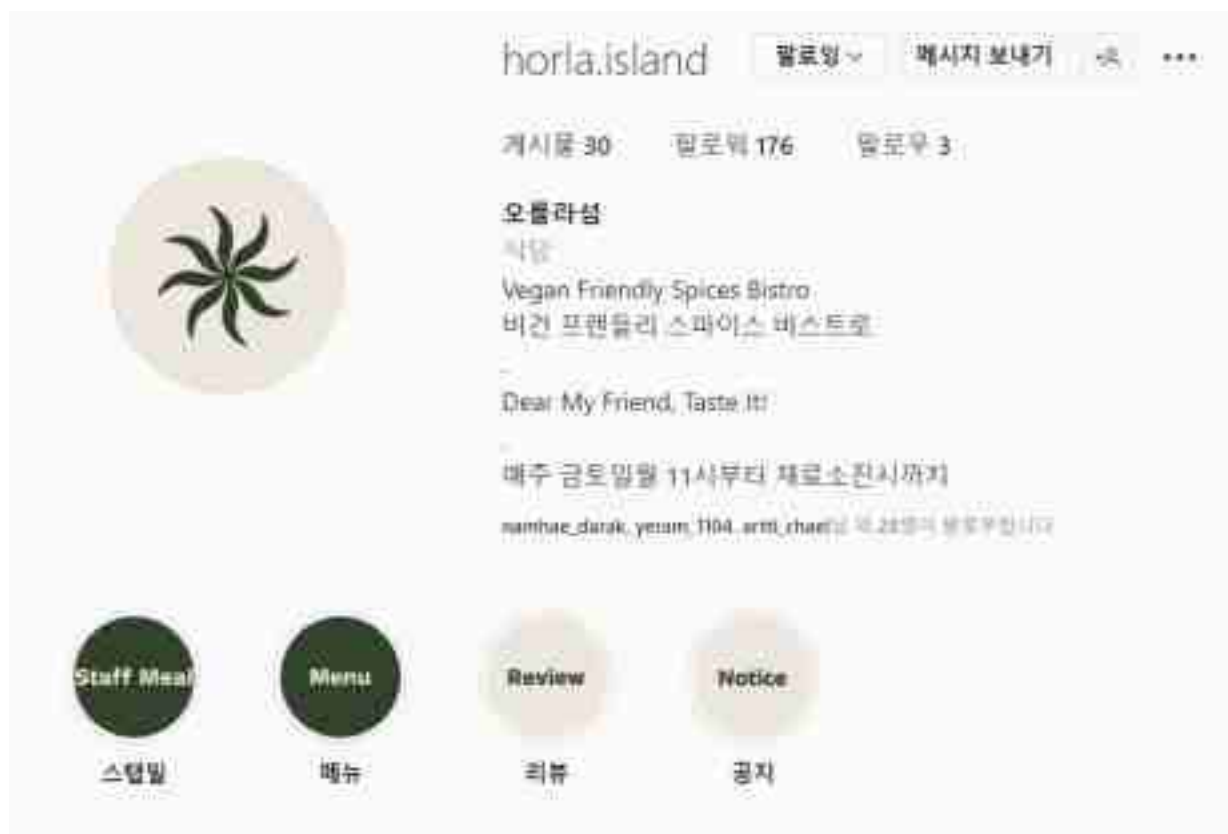
해변의 카카카 인스타그램 (지역출판사, 기획사)

<https://www.instagram.com/cacacaontheshore/>



오를라섬 인스타그램 (식당)

<https://www.instagram.com/horla.island/>



탐구소재 인스타그램 (상점)

<https://www.instagram.com/tgsz.official/>





1



2



3



4

시간이 멈춘 곳, 영월군 상동읍



- 상동광산(대한중석)은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텅스텐(重石 중석) 매장량을 가진 광산
- 상동광업소는 1952년 국내 텅스텐 생산량의 80%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최고의 외화벌이
- 1960년대에는 국내 총수출의 70%이상을 전 세계 생산량의 15%까지 공급하는 영향력을 행사
- 최고의 호황기인 1971년 상동읍의 인구는 22,6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전성기
- 현재는 1000여명 남짓 살고 있는 전국읍단위 최소인구, 사실상 도시의 생활기능이 몰락한 폐광촌의 상징

5

시간이 멈춘 곳, 영월군 상동읍



6

시간이 멈춘 곳, 영월군 상동읍



7

시간이 멈춘 곳, 영월군 상동읍



8



9

밭메이커 소개
호텔리어에서, 농부로.



10

농사가 싫어 떠난 고향, 다시 돌아온 딸



11

퍼머컬처발 ‘발명’

사내벤처 애플체인,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와 업무 협약

1. 研究目的: 本研究旨在探討台灣地區不同年齡、性別、職業之民眾對「社區參與」之認知、態度及行為意向之差異。

2008年10月10日



한국의 경우, 2010년 기준, 1인당 GDP가 2만 4,000달러로, OECD 평균을 20% 정도 웃도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고, 소득 분배가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있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소득 분배가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있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소득 분배가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있다.



12

발메이커 소개
발을 만드는 사람



13

발메이커 소개
발을 만드는 사람



[학력]

2017. 강원대학교 관광학과 '지속가능한농업,퍼머컬처' 수료
2020. 경북대학교 원예학과 석사 수료

[경력 및 이력]

2007~ 2018. 남해힐튼리조트, 코오롱골프클럽, 하이원리조트 F&B

2019. 강원랜드 사내벤처 1기 선정 '퍼머컬처 보급확산화 벤처'
퍼머컬처 선진사례 해외연수과정
(영국에덴프로젝트, 토트네스마을, 리버포드 기업탐방)

2020. 11. 퍼머컬처벤처기업 '맛있는정원코리아' 공동창립

2021. 4. 퍼머컬처 복합문화공간 '할망' 창립자

2021. 5. 영월군 청년 빛드림 기업 선정
(한국남부발전서 영월지사/영월산업진흥원 주관)

2021. 6. VWOOF KOREA 팜가드닝 프로젝트 '2기 농장 선정(첫거름재단 후원)

2021. 7. 청년농부사관학교 현장실습 농장 선정(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

2021. 8. 렉서스코리아, '2021 렉서스 영파머스' 선정

2021. 10. 발명 시그니처 프로그램 '시고레바트로' 런칭

2022. 2. 퍼머컬처 청년기업 농업회사법인 '이었던' 창립자

[프로젝트 실적]

- 강원 영월군 시가지 소통정원 커뮤니티 운영 및 마을정원조성 총괄
- 강원 영월군 주거복지지원주택 '모두가' 키친가든 활성화사업 기획운영 총괄
- 강원 영월군 농산물유통사업단 브랜드 홍보마케팅 운영대행사 선정
- 도요타코리아 주말농부 운영대행사 선정(맛있는정원코리아 컨소시엄)
- 행안부 202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최종 선정

[보유자격]

- 미각교육전문가/ 다레지도사사범/ 노인심리치료2급/ 미술심리치료2급/ 바리스타2급/
책놀이지도사/ 조주기능사/ 먹는물관리사

14

밭메이커 소개
퍼머컬처밭 '밭망'



15

밭메이커 소개
밭을 만드는 사람

나의 직장, 밭은?
밭은 왜 밭이기만 할까

농사는 힘들다

농사짓는 사람은 왜 농부로 불려야만 해?

카카오메이커스? 우리
는 가치있는 생산과
기분좋은 생활의 새로운 연결을 시작하려 합니다

밭도 공간

고로 농사짓는 나는 힘든 직업

멋진 이름 없을까?

우리도 밭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가치있는 생산과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의미있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16



17

밭멍 소개
누가 지었나요? '밭멍'

밭-멍

멍- 때릴 정도로 아름다워서 자주 오고 싶어지는 밭

퍼머컬처를 알고 싶다면 한 번 밭고 두 번 와야 하는 밭

오픈전부터 알고 있어서 자부심이 드는 밭

좋은 한숨을 편하게 내쉴 수 있는 밭

일회용 체험이 아닌 경험할 수 있는 밭

푸근한 고향같은 밭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그런 밭

18

발명 소개

퍼머컬처,모두 좋다는데 어떻게 더널리 알리자? ‘발명’

퍼머컬처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연매출 얼마?

아직 낮은 퍼머컬처

연간방문객 몇 명?

너무 좁고 깊은 집단화

얼마나 유명해?

비즈니스의 거부감

발명 소개

유연한 전략을 세우자, ‘발명’



발명소개

그래서 발명은 뭐하는 곳? 자급자족 라이프 실험소 ‘발명’

무모하고 무해한 트렌디한 청년들의
자급자족 라이프 실험소

21

발명소개

밭에서 먹고, 심고, 놀아볼 수 있다고? ‘발명’이라면 가능해!



22

발명공간



23

발명 발메이카

발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간

- 발메이카는 발을 만드는 사람들(발메이커)의 주된 공간
- 발명스테이 고객들을 위한 공유주방
- 채소부케, 식농교육이 열리는 클래스 공간
- 개인업무, 휴게, 미팅 등 사용자 중심의 유연한 흐름 속에 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열린 공간



24

발명 발메이카

발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간



25

발명 비바람정

비(Bee)와 바람이 머무는 정자

- 비와 바람이 불어오는 정자라는 의미와 벌을 뜻하는 Bee, 바람이 머무는 정자라는 두가지 의미
- 비바람정에 앉아 있으면 좌측 골짜기에서 남동풍이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고 비오는 날 바라보는 강과 산은 한쪽의 풍경화를 보는 듯 한 풍경연출
- 비바람정 근처에는 양봉을 위한 벌통이 놓여져 있어 벌이 종종 날아드는데 그 모습 마저 시골의 정취를 더욱 풍부하게 느껴지는 공간



26

발명 팜가드닝정원

농촌에 정원이 필요한 이유, 팜가든

- 우프코리아에서 주최한 '팜가드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우퍼와 함께 디자인하고 조성한 의미있는 정원
- 한가지 식물을 밀집해 심기 보다 다양한 꽃과 허브를 기후환경에 맞도록 적지적작에 충실하게 배치
- 채소로 꾸며진 식용정원인 '레인보우가든', 오래된 숲을 연상시키는 '야생화모닥불' 정원, 버려지는 드럼통을 테이블처럼 활용한 '어서드럼오름' 정원으로 구성



27

발명 [블랭크]하우스

폐축사를 리모델링한 공간1

- 블랭크하우스는 20여마리의 소를 키우던 폐축사를 리모델링 한 공간
- 15년간 방치되어 고철더미가 쌓여있지만 했던 폐공간을 새로 단장하여 방문하는 고객니즈에 따라 그들을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열리는 곳으로 재탄생(워크숍/ 요가/ 캠핑/ 팜파티/ 영화상영/ 음악회 등)
- 어물통으로 쓰이던 곳을 벤치로 만들었고, 후글컬처기법으로 만들어 기반을 조성후,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후글컬처의 단면을 보여줌으로 얻는 교육적효과로 교육장으로 활용



28

발명[블랭크]하우스
폐축사를 리모델링한 공간1



29

발명[블랭크]하우스
폐축사를 리모델링한 공간1



30

발명 소소한정원

폐축사를 리모델링한 공간2

- 소소한 정원은 6마리의 소가 살던 작은 축사를 작은 정원으로 변화
- 오래된 축사 안에는 소대신 크고 작은 식물이 살고 있으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
- 어두운 밤하늘 아래 은은한 조명과 오래된 축사는 옛스런 발명만의 대표 포토존



31

발명 소소한정원

폐축사를 리모델링한 공간2



32

발명 소소한정원

폐축사를 리모델링한 공간2



33

발명 명두막&명마루

산과 강을 보며 명 때리고 싶은 원두막

- 명 때릴 수 있는 원두막과 마루라는 의미로 '쉼'의 대표적인 공간
- 원두막이나 마루에 앉아 숨을 돌리거나 누워서 낮잠을 자는 모습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들에게는 향수 어린 풍경일 것이고 영화 '리틀포레스트'처럼 시골살이를 꿈꾸는 도시인들에게는 낭만과도 같은 모습을 선사하는 공간



34



35



36



37

퍼머컬처(Permaculture)
아름다운 밭, 실속있는 정원

자연에 더 가깝고, 먹거리를 생산하며,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38

퍼머컬처(Permaculture)

지속가능한 농업, 문화

▶ 퍼머컬처의 개념

- Permanent + Agriculture 또는 Culture의 합성어로 **지속가능한 농업, 문화**를 뜻하며
- 퍼머컬처의 12가지 원칙은 퍼머컬처밭을 설계하고 조성, 운영하는 기본원리로 적용됨



39

퍼머컬처(Permaculture)

퍼머컬처의 12가지 원칙



40

청년들의 페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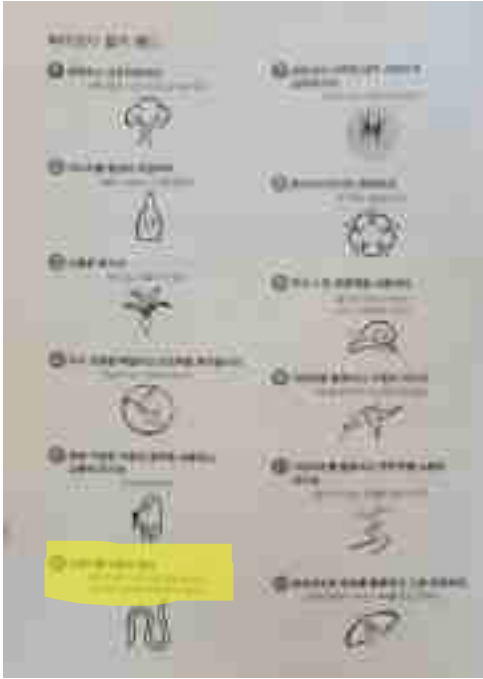
쓰레기도 줄이고,
일손도 아끼고,
잉여 수확물도 남김없이 먹는 법



추천도서

청년들의 페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
- 공간과 효율
-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 쓰레기의 재발견



추천도서

청년들의 패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 20여간 감자/옥수수/가을배추 2모작 관행농사
- ▶ 2014년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와 운영(여자 2명)
- ▶ 산아래 경사진 밭(3,000평) 농기계 경운의 어려움
- ▶ 여름철 폭우로 인한 골터짐 고품질 가을배추 생산난향
- ▶ 초고령화, 코로나로 인한 인력수급의 문제



43

청년들의 패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공간과 효율

자연에서 배운다 (생체모방기술 Biomimicry)

- ▶ 생체모방기술: 바이오미미크리 (biomimicry)
 - 생체모방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나 생물체의 특성들로
 - 자연이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해온 법칙들을 적용
 - 생체 모방학의 선구자인 재닌 베니어스는 생체 모방을 '자연이 가져다 준 혁신'이라 정의



44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공간과 효율

- ▶ 기존 식재된 다년생작물(작약)을 활용
- ▶ 사람, 차가 진입가능하되, 곡선을 이용하여 이동동선의 최소화(면적의 효율성 ↑)
- ▶ 여름철 폭우에 대비한 물분산, 가을에 대비한 물저장 고려
- ▶ 경관기능과 생산기능을 고려한 자연패턴 설계
- ▶ 무투입(비료, 농약 등)을 보완하기 위한 식재 설계 및 후글컬처 적용
- ▶ 기후환경에 맞도록 적지적작



45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공간과 효율

- ▶ 퍼머컬처 Zoning에 따른 설계와 식재로 다양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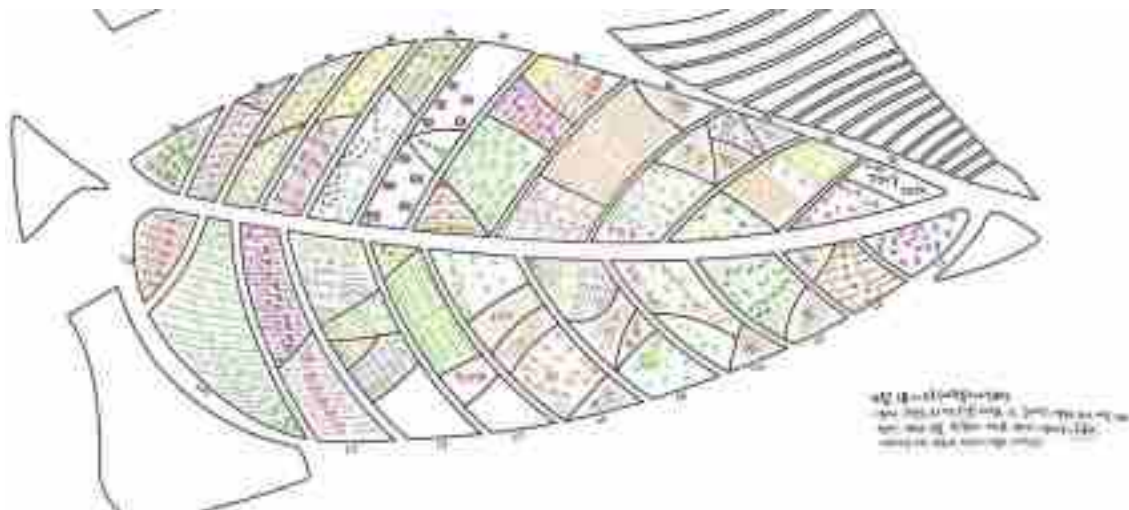


구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목적	주요 작물 재배를 위한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식재	주요 작물 재배를 위한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관리	주요 작물 재배를 위한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비고	주요 작물 재배를 위한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수확 후 휴식 공간

46

청년들의 패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 ▶ 식물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배치하고, 식물군집을 만들어 장단점을 상호보완



청년들의 패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 ▶ 식물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배치하고, 식물군집을 만들어 장단점을 상호보완

종류	성격	특징	장점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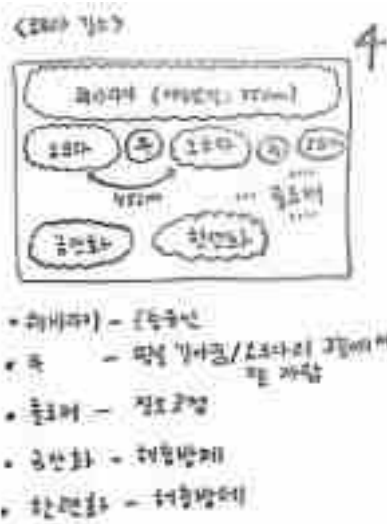
종류	성격	특징	장점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국화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식물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배치하고, 식물군집을 만들어 장단점을 상호보완

[illegible]

49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식물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배치하고, 식물군집을 만들어 장단점을 상호보완

RC-2	주인공 해	충가피 의	충유인 해
유체 시계	3월 초 서부리지, 4월 초 서부리지	4월 초 서부리지, 5월 초 서부리지	3월 초 서부리지, 4월 초 서부리지
유체 방울	서부리지	서부리지	서부리지
유체 주입	1월 초	1월 초	1월 초
유체 (cm)	100cm	100cm	100cm
RC-4	주인공 해	충가피 의	충유인 해
유체 시계	가시지	3월 초 서부리지, 4월 초 서부리지	3월 초 서부리지, 4월 초 서부리지
유체 방울	가시지	서부리지	서부리지
유체 주입	1월 초	1월 초	1월 초
유체 (cm)	100cm	100cm	100cm
RC-2	주인공 해	충가피 의	충유인 해
유체 시계	가시지	3월 초	3월 초
유체 방울	가시지	서부리지	서부리지
유체 주입	1월 초	1월 초	1월 초
유체 (cm)	100cm	100cm	100cm

50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 식물군집을 만들어 장단점을 상호보완 + 지형이 가진 위치에너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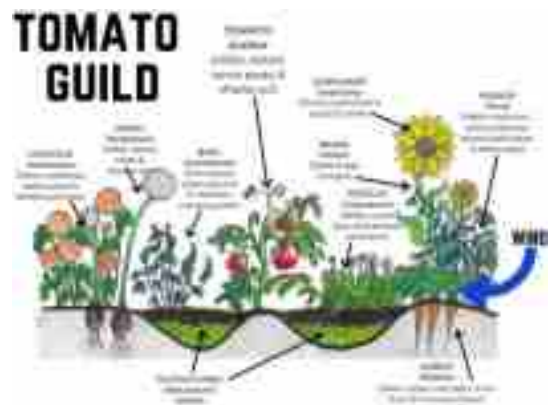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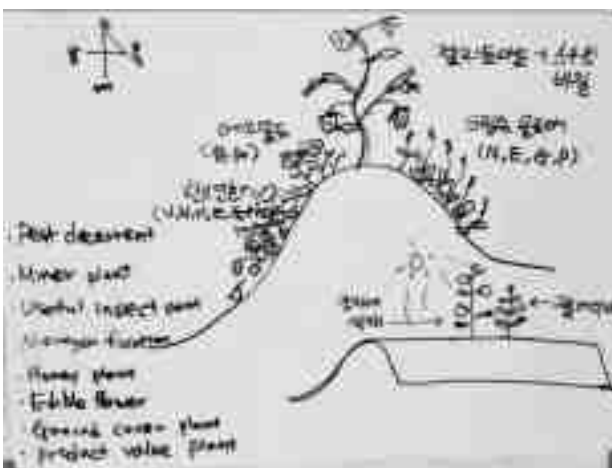
53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공간과 효율

▶ 입체적 두둑형성으로 면적 증가, 미기후 형성, 다양한 식재 가능



54

청년들의 패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무퇴비)
- ▶ 식물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배치하고, 식물군집을 만들어 장단점을 상호보완



55

청년들의 패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무퇴비)
- ▶ 식물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배치하고, 식물군집을 만들어 장단점을 상호보완



56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그린 멀칭 효과: 식물의 장점 활용



현려하멀칭



보리지멀칭

57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그린 멀칭 효과: 내장에 맞는 식물 선택



58

청년들의 패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그린 멀칭 효과: 식물의 장점 활용



컴프리멀칭

59

청년들의 패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식물의 기능성과 사람의 노동력

▶그린 멀칭 효과: 잡초 활용



풀정리 전 / 풀정리 후



풀 멀칭

60

청년들의 페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쓰레기의 재발견

▶버려지는 자원 활용: 나무파렛트 →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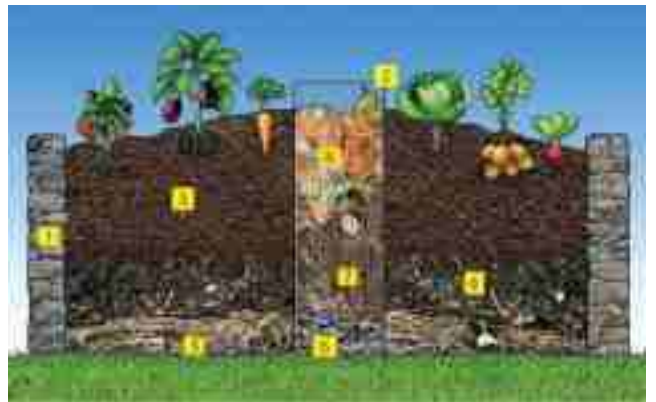


61

청년들의 페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 쓰레기의 재발견

▶버려지는 자원 활용: 음식물 쓰레기 → 식물의 서식지



키홀퇴비장

62

청년들의 퍼머컬처
 무모한, 무해한, 트렌디한

-쓰레기의 재발견

▶버려지는 자원 활용: 음식물 쓰레기 → 식물의 서식지



밭을바라보는다른시선, 퍼머컬처
 3. 에너지를 붙잡아 저장하라_빗물저장

▶스웨일을 이용하여 물을 저장하고 가뭄에 대비



발을바라보는다른시선, 퍼머컬처

3. 에너지를 붙잡아 저장하라_양분저장

▶ 텃밭부산물과 베어낸 나무를 활용한 후글컬처



65

발을바라보는다른시선, 퍼머컬처

3. 에너지를 붙잡아 저장하라_토양피복

▶ 부숙된 우드칩을 길에 멀칭함으로 모든길이 퇴비장역할+피복효과+수분증발억제



66

밭을바라보는다른시선, 퍼머컬처

5. 소출을 얻어라_식물의 다양성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품종으로 식재하여 단일작물의 단점 보완



67

밭을바라보는다른시선, 퍼머컬처

5. 소출을 얻어라_월급받는 농부

먹고, 심고, 놀아보자!



▶ EAT

- ① From Seed to Plate : 한쪽에서 수확을 하면 다른 한쪽에선 수확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판매
- ② 수확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 채소부케, 과일토리, 허브 피자 등
- ③ 팜파타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



▶ GROW

- ① 텃밭가드닝, 키즈, 성인 프로그램 운영
- ② 미니 퍼머컬처텃밭 지도/ 모종구려미 판매: 토마토 친구들, 가지 친구들 등
- ③ 반농, 귀촌을 준비중인 예비농부를 위한 실습교육 운영



▶ PLAY

- ① 보물찾기(곤충찾기, 식물찾기, 햇살찾기, 바람느껴보기, 소리기록하기)
- ② 촌스런 시골놀이터 운영(자연경사를 이용한 물놀이마끼럼틀, 호스, 다리미 활용)
- ③ 발크닉

68

발을바라보는다른시선, 퍼머컬처
5. 소출을 얻어라_상품의 다양성



69

발을바라보는다른시선, 퍼머컬처
5. 소출을 얻어라_상품의 다양성(채소부케)



70

밭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퍼머컬처

5. 소출을 얻어라_ 상품의 다양성(식농체험)



71

지속가능한농업, 퍼머컬처

퍼머컬처밭에 기반한 트렌디한 콘텐츠(모든 자연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



72

지속가능한농업, 퍼머컬처

퍼머컬처발에 기반한 트렌디한 콘텐츠(모든 자연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



발명새참/주막



나뭇잎발 보물찾기



경운기 드라이브

지속가능한농업, 퍼머컬처

퍼머컬처발에 기반한 트렌디한 콘텐츠(호박볼링장, 무청시래기와 팝콘옥수수로 만든 포토존)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농업에서 문화로(가치전파 및 교육의 재분배)



75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농업에서 문화로(가치전파 및 교육의 재분배)



76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발명프렌즈_청년문화 선도



77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서로가 행복한 공간, 그 행복을 경험하러 찾아오는 발



78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서로가 행복한 공간, 그 행복을 경험하러 찾아오는 발



79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서로가 행복한 공간, 그 행복을 경험하러 찾아오는 발



80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서로가 행복한 공간, 그 행복을 경험하러 찾아오는 발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서로가 행복한 공간, 그 행복을 경험하러 찾아오는 발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서로가 행복한 공간, 그 행복을 경험하러 찾아오는 발



83



84

HOW

2022년 운영계획

<p>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p>	<p>표현기 Experience</p>
반파반X	매월 2주+α
이었던 공작소	매월 1주일
시고래바트로	매월 1회
다시, 상동 아-있던	매월 1회

잘자라소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급자족 라이프를 실현

- Program 1 : 반파반X**
 2주 장기체류형 프로그램
 반은 피어컬처로, 반은 니만의 X로 살아가는 자급자족 라이프
- Program 2 : 이었던 공작소**
 일주일 단기 프로그램
 다양한 자급자족 생활기술을 배우는 프로젝트
- Program 3 : 시고래바트로**
 일일인 대상 무료 행사 프로그램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의 경제작 자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
- Program 4 : 다시, 상동 아-있던**
 지역주민 대상 재능기부 프로그램
 파생, 머프산, 농가, 소외계층 등 상동의 마을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년의 삶

85



86



87



88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로컬투어: 지역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시간



89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로컬투어: 지역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시간



90



91



92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로컬투어: 지역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시간



93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로컬투어: 지역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시간



94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밭꾼안: 밭에 안부를 전하며 농사와 친해지는 시간



95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밭꾼안: 밭에 안부를 전하며 농사와 친해지는 시간



96



97



98



99



100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고기없는 금요일: 직접 수확한 채소들로 만드는 자급자족 식사



101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이었던 공작소: 흙으로 만든 오븐에 피자 구워먹기



102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이었던 공작소: 흙으로 만든 오븐에 피자 구워먹기



103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이었던 공작소: 흙으로 만든 오븐에 피자 구워먹기



104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이었던 공작소 흙으로 만든 오븐에 피자 구워먹기



105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이었던 공작소 흙으로 만든 오븐에 피자 구워먹기



106



107



108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시고레바트로_서울마르쉐: 직접 수확한 채소와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험



109

Program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 실험소

시고레바트로_영월마르쉐: 직접 수확한 채소와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험



110

Networking 소통과 연결 그리고 확장
청년들과 함께 하는 자화상 그리기



113

Networking 소통과 연결 그리고 확장
마을 음악회



114



115

퍼머컬처 실천
2021. 4. 드론영상



116



117



118



119

최종 목표

Vision 발명
Mission 자급자족라이프

환경적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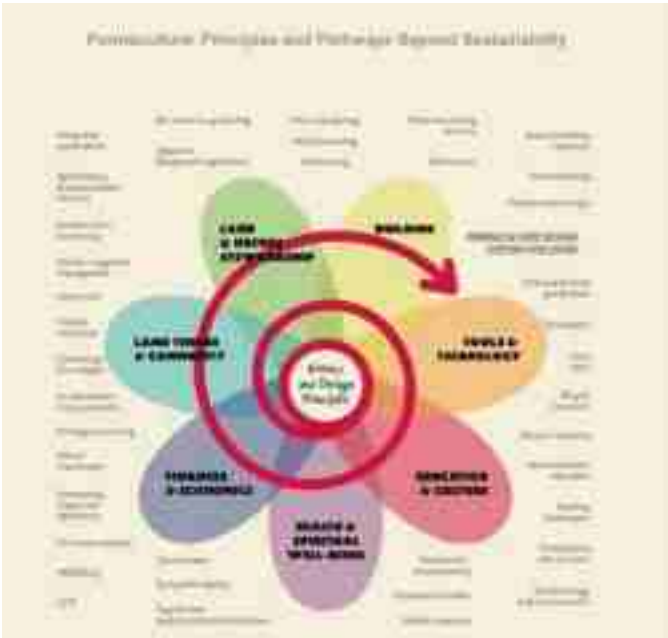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120

퍼머컬처꽃이 피어나는 지속가능한로컬생태계
 농업을 넘어서
 삶의 방식으로



121



정책보다 관계의 중요성

- 1차년도 여행하며 경험하기
- 2차년도 다시 와서 좀 더 머물기
- 3차년도 계획 세워 살아보기



122

지속가능한문화, 퍼머컬처

서로가 행복한 공간, 그 행복을 경험하러 찾아오는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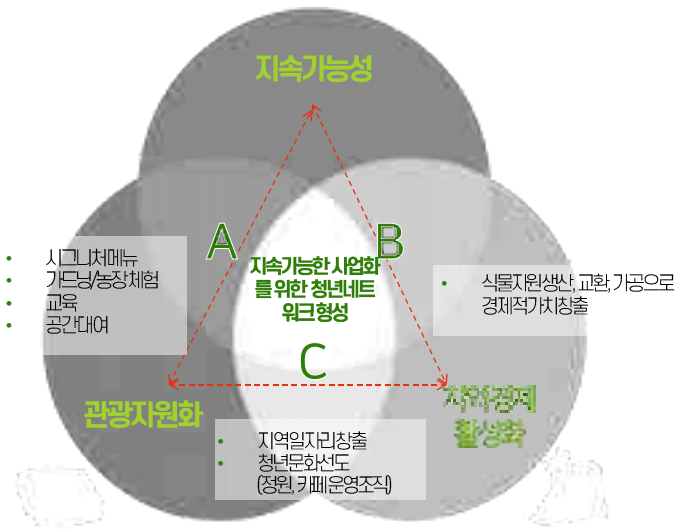
**발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파는 곳

123

지속가능한마을, 퍼머컬처

소멸위험지역, 퍼머컬처발로 시작해 청년들이 모여드는 경제자립마을로 일어서다



124



125



126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오지

유현영

1

대안학교 졸업생
여성
청년
알바생
유학생
안무가
예술인
댄서



2



3



청년마을(주)

“청년농촌정착플랫폼”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

제천간디학교 주말 사감교사

“대안교육”



4



〈산 밑 나래〉

지역아동센터 누리꿈터
예술창작수업 - 창작놀이공간



〈갤러리 오지〉

지역 기반 문화예술 기획 공간

5



“시행착오”

“실패”


“처음부터 다시”



6



감사합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덕산에서의 7개월

농촌에서 살아가기 제천시 청년마을 김수영

1

내가 원했던 삶은?

한적한 농촌에 내려가기

스트레스 없이 혼자 살기

목공소 운영하기

적게 벌고 적게 쓰기

혼자 살다가 조용히 마무리

2

덕산면 청년마을로 온 계기?

농촌에서 목공방 창업

귀농귀촌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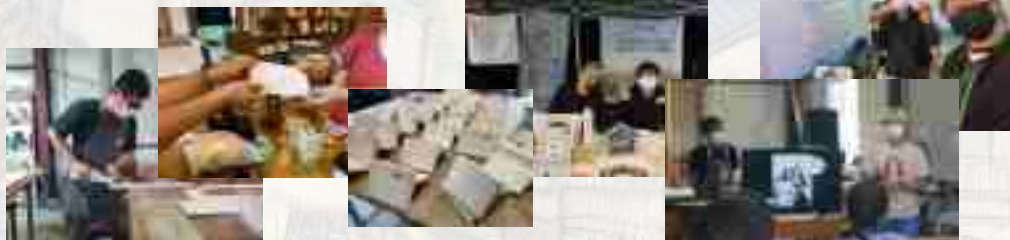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제천시 덕산면 (공유 목공방 운영하기)

3

현재 덕산에서 뭘하고 있나?

덕산면 논밭 한가운데 위치한 덕뿌네공방과 블로그 운영 중,
제품 제작, 기관 납품, 플리마켓 부스 운영, 목공 워크숍 진행 등
목공을 이용한 활동은 이것저것 다 해보는 중.



4

덕산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어떤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은 ‘마을 공유 목공방’ 운영하기

월, 화, 수에 공식적인 활동, 월요일에 회의를 통해 일정 공유,
화요일은 농사체험의 날로 여러 가지 농사 기술, 요령 체득,
목, 금, 토, 일은 자유 활동, 한가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5

덕산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어떤 프로그램?



6

덕산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어떤 프로그램?



7

지내고 있는 마을은?



제천 시내와 제일 먼 동네 덕산,
덕산에서 산을 타야 나오는 청년마을.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과는 맞붙어 있지는 않다.

8

청년들이 농촌에서 잘 살기에 필요한 것은?

잘 닦인 도로

아주 촘촘한 버스 시간표

늦게 문 닫는 식당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생활 뽐뽐한 환경

9

청년들이 농촌에서 잘 살기에 필요한 것은?

BUT!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곳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다.

필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싸게 먹히죠?

왜 저래? 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기! 귀농 귀촌 선배 어른들, 원주민분들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10

내가 살고 싶은 덕산은?



농사짓는 청년, 장사하는 청년,
제품을 만드는 청년, 마케팅을 잘
하는 청년 등이 모여 사는 마을에
서 살고 싶다.

혼자보다는 같이.

물론 원주민분들,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같이 행복하게!

11

제목에 왜 내년이 기대된다고 했는지?

농사 체험, 목공소 운영, 플리마켓 참여, 덕산의 사계절도 봤다.
올해 한 경험들은 내년을 위한 땅 다지기, 씨 뿌리기라고 생각한다.

나도 이곳에서 지내면서 변했고
모든 면에서 더 능숙한 1년이 될 것 같다.

12

감사합니다



청년,
청년이 답이다..

충북 제천시
넉넉한 사람들
김덕희

1

목 차

- 1. 청년, 농촌에서 걸어온 길
- 2. 청년, 6차 산업으로 같이 가는 길
- 3. 청년, 4차 산업 혁명의 중심
- 4. 청년, 농업, 농촌의 다양성
- 5. 농촌과 청년문제, 청년이 답이다.
- 6. 맺음말

2

1. 청년,농촌에서 걸어온 길



3



1차 생산물 직접판매



5평 2,000만원으로 창업
2012년



60평 1억5천만원 신축
중소기업 청년창업자금 대출

4



2017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선정 130평 종합가공공장 신축

5



농촌 생활 10년 만에 빛이 7억

6

2. 청년, 6차산업으로 같이가는 길



7



로컬 카페 덕택에 넉넉한 사람들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함으로써 농촌에 작은 소득사
업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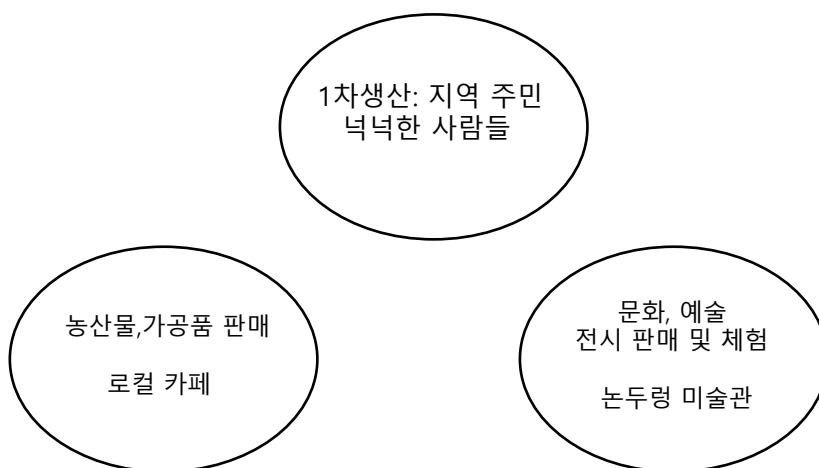
8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채로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9

6차 산업의 3권 분리



지역단위 마을단위 6차산업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

10

3. 청년, 4차 산업 혁명의 중심



드론 방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생산관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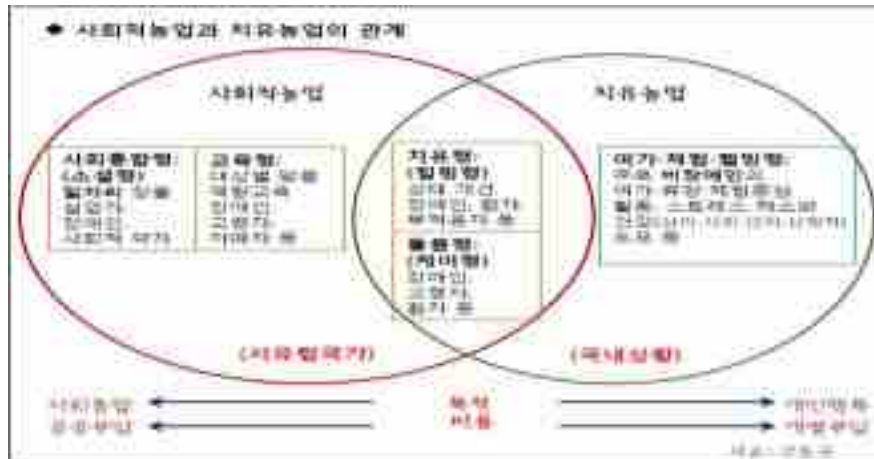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인가?



한국 농업이 힘든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값 하락입니다. 스마트농업의 최대 장점은 인건비 절감과 고정비 절감입니다. 그 청년이 스마트농업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2

4. 청년, 농업, 농촌의 다양성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환경 보존적, 공익적, 치유적, 문화적 농업등으로 다양화 됨

13



덕산 간디 학교

단양 만종리 극단

충남 홍성 치유 농장

- 농촌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도시에서 있는 모든 직업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함께 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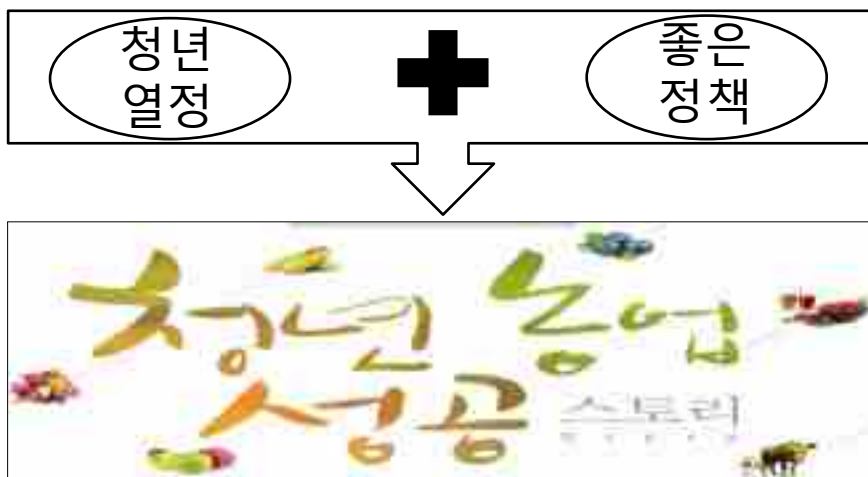
5. 농촌과 청년문제, 청년농업인이 답이다.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청년 농업인 정책이 필요
특히 후계농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5

6. 맺은말



16



1



2

가치살자 협동조합 진행 사업

①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외 청년 대상 지역살이, 문화예술,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청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달빛탐사대(2020~)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
지역내외 청년들이 지역탐색과 살아보기를 통해 정착 가능성 실험



로컬라이프클럽(2020~2021)

지역내외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소모임 조성
지역 내 부족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로컬인사이드스쿨(2021)

다양한 지역 자원 조사 및 체험을 통해
우리 지역을 더 탐구해보는 시간

3

가치살자 협동조합 진행 사업

② 행사기획 및 콘텐츠 제작

조합원의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 /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통한 콘텐츠 제작



영상콘텐츠 제작

오미자네 청년을 업체별 홍보 영상 제작 / 크리스마스 행사 온라인 송출
정착지원플러스 정착 청년 대상 역량강화교육 진행, 로컬 명사 강의 영상 제작



행사 기획 및 운영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와 함께 하는 추석맞이 특판행사 진행

4

가치살자 협동조합 진행 사업

③ 지역사회 협력 사업

지자체 및 지역 청년, 기업과 협력하는 사업 운영



문경시상권활성화사업단 상인홍보단 운영
문경중앙시장, 역전상점가, 문화의거리 상점가 상인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로드 교육을 통한 유튜브 운영 기술 컨설팅



랄라 페스티벌 '메아리마켓' 운영
3대문화권활성화지원사업 중 청년 커뮤니티 조성
친환경 플리마켓 기획 운영 및 매거진 제작



아리랑문화마을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 참여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 연계를 통한 협력 제공

5

당신을 설레게 하는 **문경**, 우리 생애 가장 **매력적인 도전**

달빛탐사대

#지역살이 #개별프로젝트 #커뮤니티 #취향공동체

6

달빛탐사대

2020

행정안전부 청년지역정착 신규발굴옹역

#3개월살아보기

#공간DIY #삶

기반조성 #정

착실험

81명의 참가자

20개의 개별 프로젝트

2021

경상북도/문경시 청년자립마을 활성화지원사업

#일주일살이 #

두달살이 #로컬

탐사 #지역과연

결되기

41명의 참가자

26개의 개별 프로젝트

2022

경상북도/문경시 청년자립마을 활성화지원사업

#한달살이

#살아보기

#알아보기

#만들어보기

45명의 참가자

9개의 개별 프로젝트

7

2020 달빛탐사대

3개월
살아보기

2020. 8. 24. - 10. 31.

8

2020 달빛탐사대

삶 기반 조성

활동거점 달
맞이스페이스
보름달오피스

공유숙소
문경읍내 3군데 숙소 임차
1년무상 제공

프로젝트 운영공간 오미자네
청년몰 내 디저트샵 연분 로나의
거실/책방 해봄/
책방 맑음/반달책방
회귀월 갤러리

커뮤니티 조성

달빛식탁
주 1회 함께 만들어 먹는 저녁식사
달빛탐사대원과 지역 청년, 지역
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

마음탐사
서로를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는
미술심리 프로그램

소모임 운영
산악회, 우쿨렐레 동아리, 독서
모임 등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
양한 소모임 운영

개별 프로젝트

내가 가진 아이템으로 지역에
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책방 프로젝트
버스킹 프로젝트
1인미디어 체험
낚시 운영
북 바인딩 원데이클래스
친환경 포장재 활용 테스트
건표고버섯 브랜딩 공유
예술플랫폼
공연예술
공간DIY
등등

9

지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나만의 프로젝트로 찾다!



버스킹 프로젝트
노래가 야금야금(이희준, 강지현)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지역에서 대안을 찾다.

- 경북/문경내 축제 및 공연 참여 다수
- 2021 달빛탐사대 운영 참여



팝업스토어 프로젝트
카페 연분(양지애)

어머니의 이름을 건 디저트샵 '연분' 창업 및 운영

- 디저트샵 운영을 위한 공간 지원(청년몰 내 점포)
- 현재 레스토랑 '다시 오후'로 리뉴얼 후 운영 중

10

2021 달빛탐사대

일주일
살아보기

2021. 4. 19. - 4. 23.
2021. 8. 16. - 8. 20.

두달살이

2021. 6. 1. - 7. 30.
2021. 9. 1. - 10. 31.

11

2021 달빛탐사대

지역에서 살아보기

일주일살이
4월, 8월 총 2회 진행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회당 최대 5명으로 진행
커뮤니티/로컬탐사 프로그램 운영

두달살이
6월-7월, 9월-10월 2기수 운영
공유오피스, 공유 숙소, 공유
차량, 공유킵보드,
커뮤니티 및 로컬탐사 프로그램,
개별 프로젝트 진행비 지원

지역과 연결되기

달빛식탁
주 1회 함께 만들어 먹는 저녁식사
달빛탐사대원과 지역 청년, 지역
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

로컬탐사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고 지
역에 이미 자리 잡은 지역 청년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과 나를 연결하는 시간

보름달잔치
모두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 진행

개별 프로젝트

팝/푸드/컬처/라이
프 4가지 카테고리
제시

드론 방제 교육 표고버
섯 재배 실습 라이브커
머스 운영 실습 지역 특
산물 리브랜딩 요거트
브랜드 만들기
아로마 공방 및 클래스 운영 지
역아동 다큐멘터리 제작 셀프스
튜디오 '고요의 바다' 조성 여성
숙소 '개취존' 조성 및 운영 로컬
사운드 수집 프로젝트 다양한
테마의 지역 map 제작 등등

12

달빛탐사대를 만나는 또다른 방법, 일주일 살아보기



2021 달빛탐사대 일주일살이

- 달빛탐사대 커뮤니티 참여를 원하는 청년
- 지역살이를 체험해보고 싶은 청년
-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회당 5명 이내 모집, 2회 진행 총 10명 참여
- 로컬탐사, 달빛식탁, 아웃도어 프로그램 등 달빛탐사대의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체험

13

청년의 범위와 가능성의 확장



푸드 프로젝트

오! 그린 샐러드(송정미, 박지영)

레시피 개발을 통한 토핑유부&샐러드샵 오픈

- 참가 청년 연령대 상향(문경시 기준 만 45세)
- 샐러드 정기배송, 토핑유부, 핫도그 등 판매 중

워크ेशन

팜 · 푸드 · 컬처 · 라이프

4개 카테고리 내 자유제안 프로젝트

도시(일) + 지방(휴식)

일 + 여가 + 휴식

14

2022 달빛탐사대

한달살이
살아보기

2022. 5. 2. - 5. 30.

한달살이
알아보기

2022. 6. 1. - 6. 30.

한달살이
만들어보기

2022. 7. 1. - 8. 5.

2박 3일
살아보기

2022. 6. 10. - 6. 12.
2022. 6. 17. - 6. 19.
2022. 6. 24. - 6. 26.
2022. 10. 1. - 10. 3.
2022. 10. 7. - 10. 9.

15

2022 달빛탐사대

살아보기

한달살이
지역살이를 체험해보고 싶은,
휴식을 원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워케이션이 가능한 사람
모두 모여라!

주 1회원데이 클래스
나를 돌아보는 탐사일기
함께 만들어 먹는 달빛식탁
우리만의 규칙 정하기, 자치회의
문경의 아웃도어 '유기농라이프'

알아보기

지역자원탐
방 청화원 견
학 도자기 만
들기 모전들소
리
오미자 레시피 체험

지역의 이야기 듣기
문경 JC 최지원 회장 주시
회사 리플레이스 도원우 대표
4H연합회 청년 농부 황정식
문경의 아웃도어, 유기농라이프
체험남시 시
골길 트래킹
캠핑

만들어보기

여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베이커리 '하리과자점' 조성 인
도 길거리음식 '봄베이스낙바' 조성
찾아가는 책방 '궁여지책'
라탄 공방&원데이클래스 '여유라탄'
103호 언니들 '레코드 커버집' 펀딩
문경의 청년 예술가와 협업 공연 진행
프롬 310의 '숲에서 일 년 살기'
산을 통해 '나를 아는 시간'
문경의 지명 알아보기
문경 카레 레시피 엮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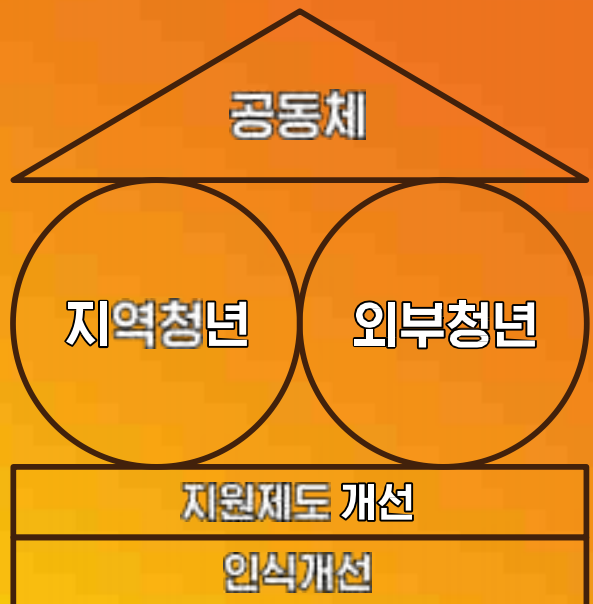
16

나에게 맞는 속도로 지역을 알아가기



17

건강한
공동체
?



18

달빛담까대, 그리고 가치살자 임동조합

bridge

19

Thank you :-)

20



도시 청년의 9년차
농촌 생활기 및
농촌에게 바라는 점

청년농부 엄지상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 엄지상

나이: 35세(귀농 9년차)

학력: 대학교 중퇴

MBTI: INFP

직업: 봄,가을 : 산불전화대 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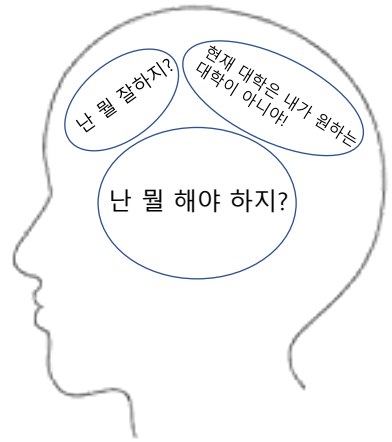
여름 : 농부이자 사장

겨울 : 백수이거나 산천어축제 아르바이트생

내가 농부를 선택한 이유



20대 초반



25살

3

가자 화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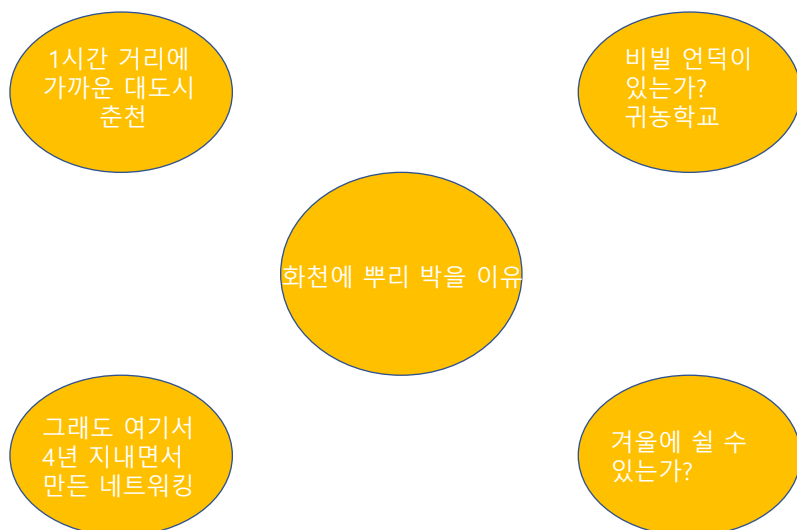
4

벌써 일년 그리고 사무장으로 3년



5

왜 화천이었나?



6

이제는 내 농사를 하고 싶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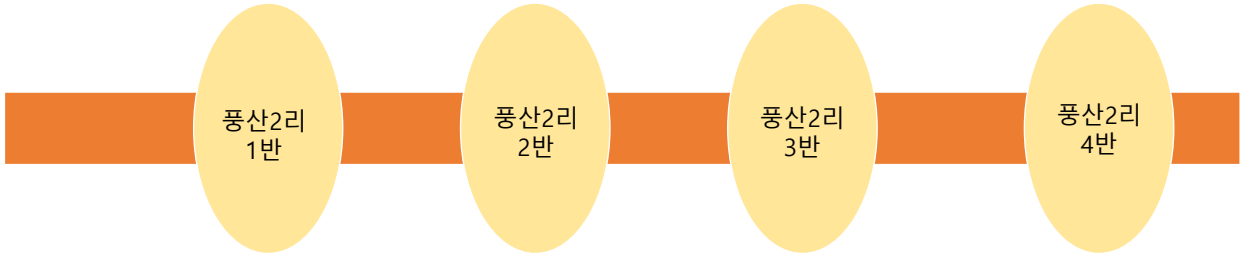
7

그렇게 5년 후 현재



8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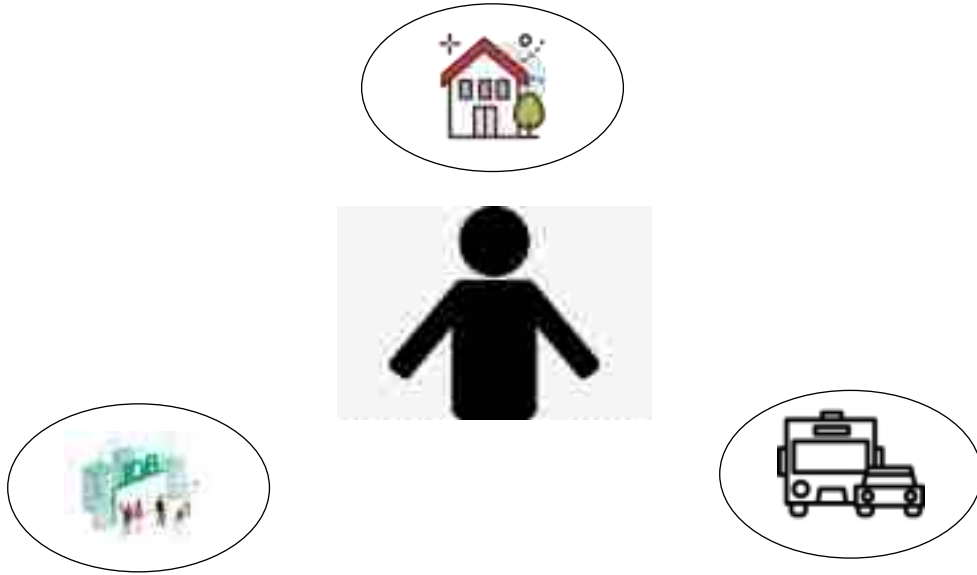
어쩌다 반장

우리는 네가 여기와서 큰 문제 일으키
지 않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필요한거나 어려운거 있으면
말하고 우리도 필요한거나 어려운거
있으면 요청할게



10

청년을 위한 농촌은 없다?



11

규제와 중복 그리고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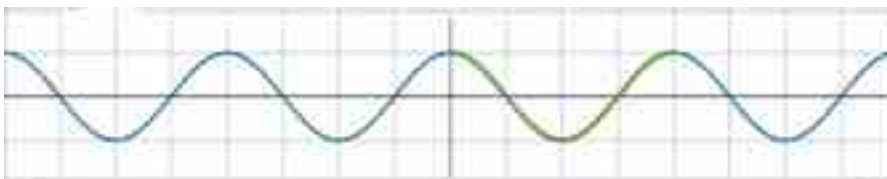
12

청년은 이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병아리입니다.



13

제가 농사 지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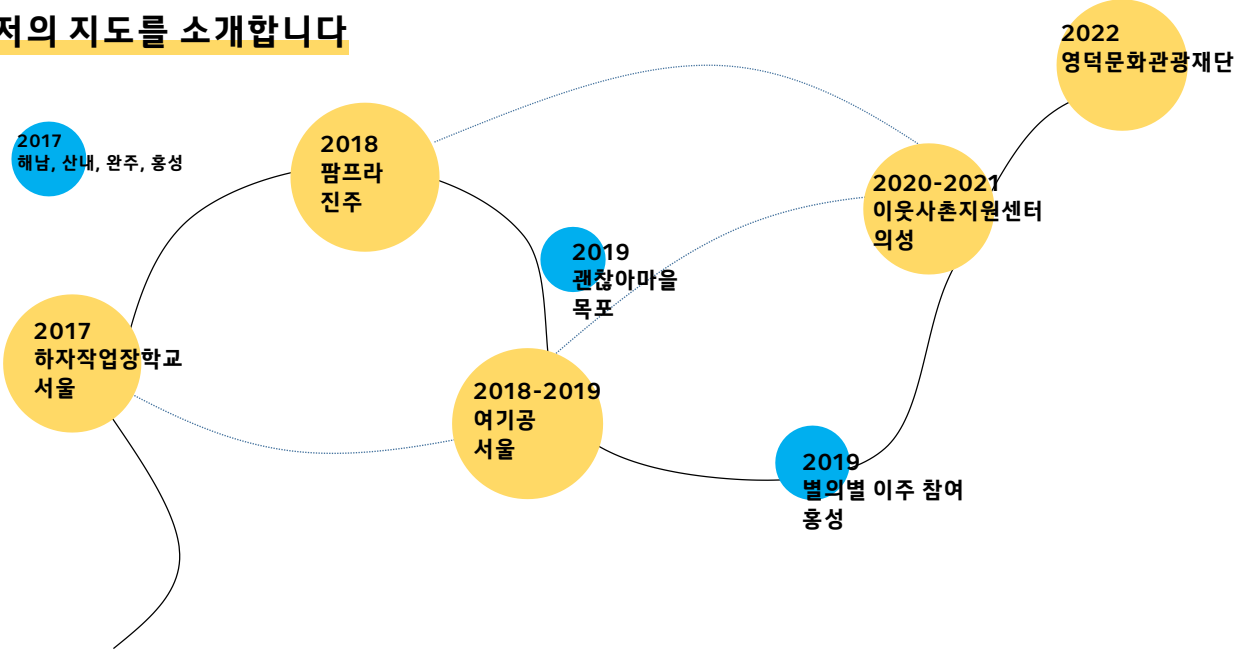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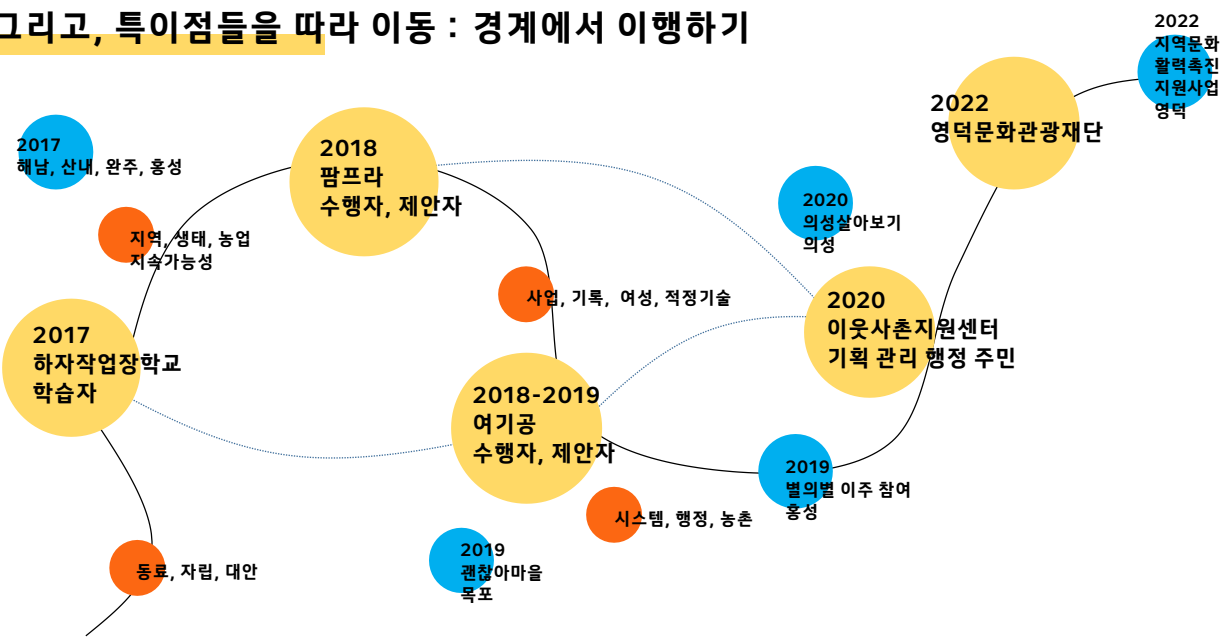
1

저의 지도를 소개합니다



2

그리고, 특이점들을 따라 이동 : 경계에서 이행하기



3

관계 맺은 지역살이 프로그램



4

참여자의 위치로 본 지역살이 프로그램

- 정착 가능성 확인하기 : 지역의 자원 파악 (마을/ 지역어른/ 업의 가능성)

5

별의별 이주

- 상시접수/ 거주기간/
거주 지역 선택

옥천 이주기자
영광 이주돌봄
춘천 이주유학
홍성 이주농부
- 캠프나 학습이 아닌 현장 경험
/ 삶의 터전
- 경험과 관계 확장이 성과
- 현장 매니저 : 통역 및 완충
지대의 역할
- 지역과 업의 특성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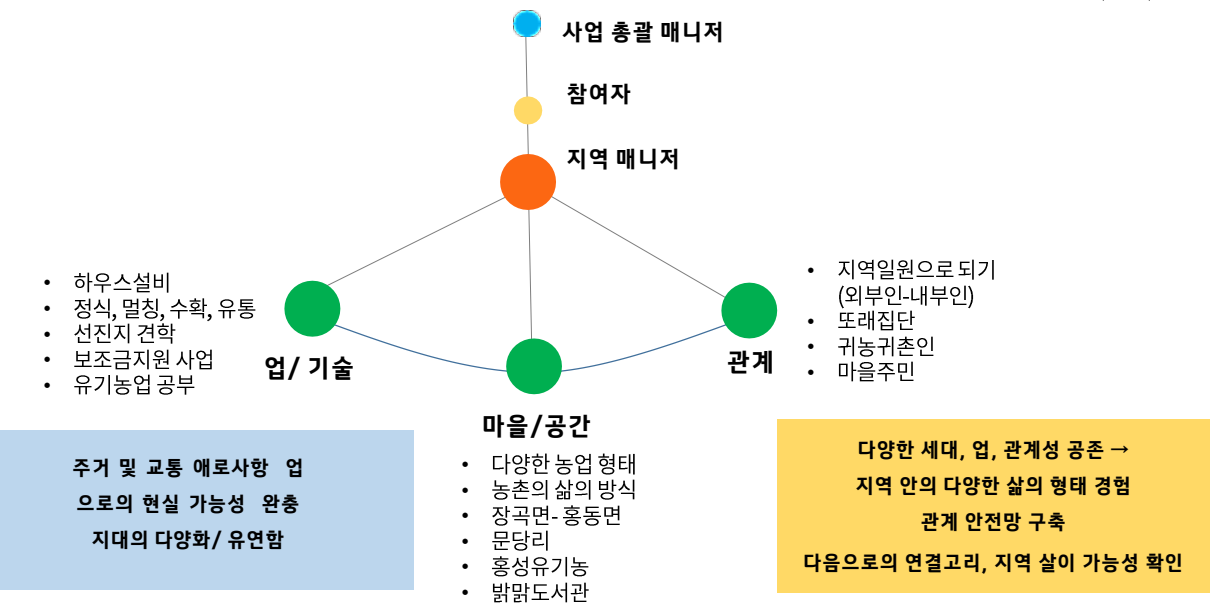
6

별의별 이주



7

별의별 이주 -홍성 장곡면 / 젊은 협업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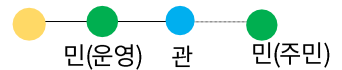
8

실무자의 위치로 본 지역살이 프로그램

- 동료 찾기 / 행정적 연결 구조 파악하기

9

의성 살아보기- 청춘구행복동



- 15인 참가자 * 2기수
6주+4주 과정→ 정착
- 캠프 및 창업 프로그램 참여+
지역자원 이해
프로젝트 시도
- 생활비 / 자전거
- 캠프 및 프로그램 참여+프로
젝트 발굴 형태
또래집단 -동료관계 만들기
- 지역민과의 연결 -일자리, 주거
- 행정과의 연결고리 -정보공유,
안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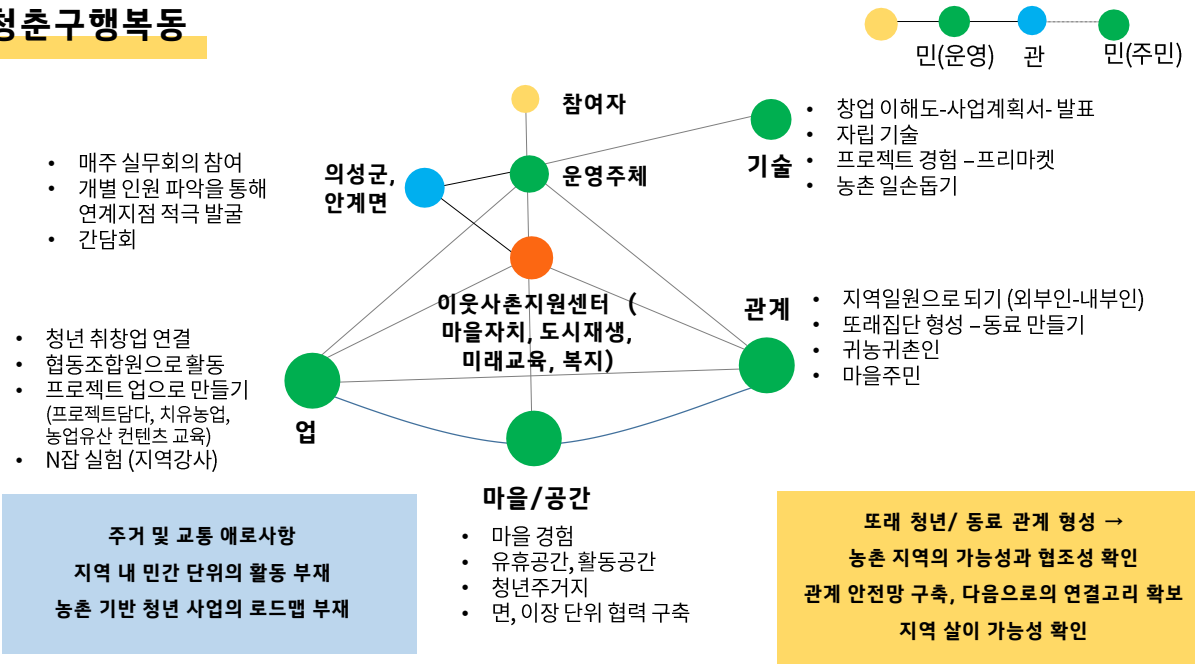
10

청춘구행복동



11

청춘구행복동



12

의성 살아보기- 예술가1촌맺기



- 행복마을 자치사업 →
면당 5개 마을 빈집 리모델링
18팀 참여 1달 ~4달 거주
- 마을주민과 예술 프로그램
마을 주제 예술작업
(시각, 전통, 연극, 문학, 영상)
- 창작지원금
- 새로운 예술 거점지- 활동무대 제안
농촌 지역 이해도
- 마을 내 활력/ 문화 활동 발굴
마을주민이 아는 예술가 -
고향이 생긴 예술가
- 예술가 정기 모임 -의성 기반
네트워크 경험, 작업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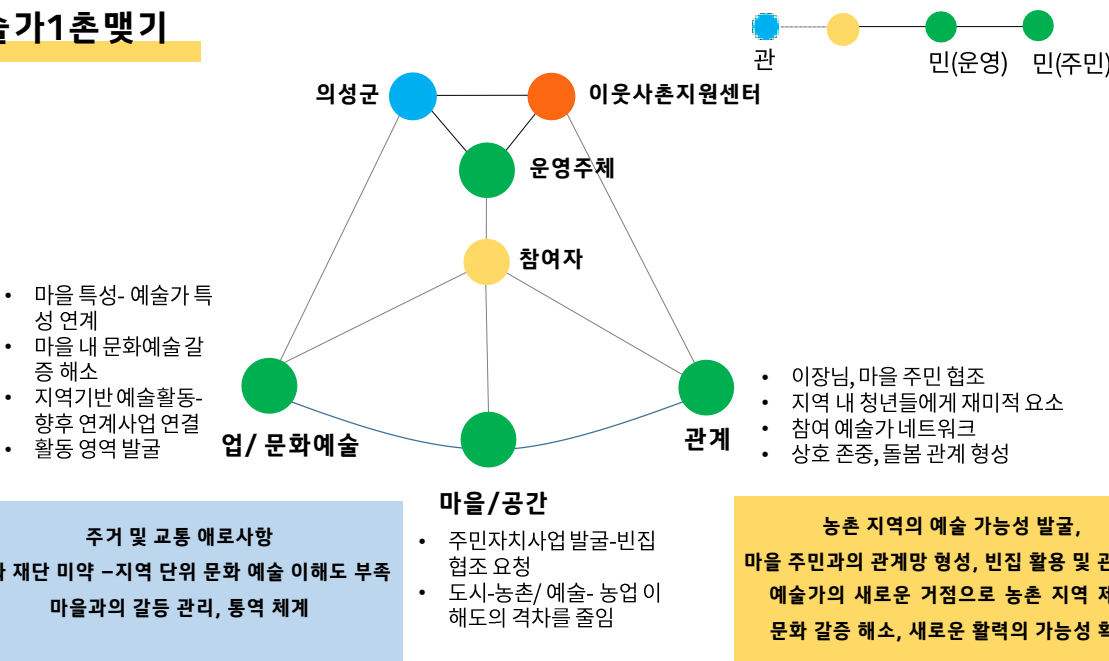
13

예술가1촌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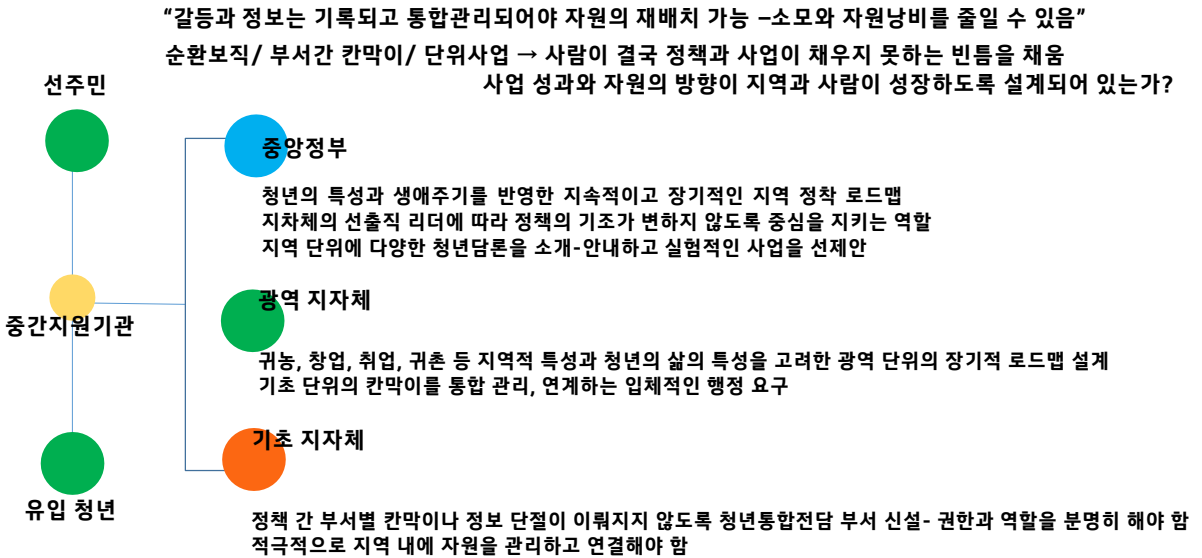
14

예술가1촌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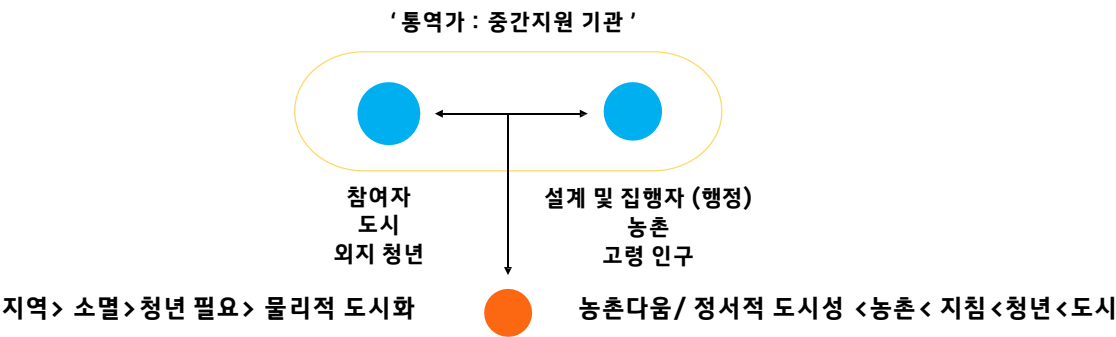


농촌-청년 : 사이의 빈틈을 채우는 행정의 역할

로컬-지역-청년 : 지역에서 청년 정책



경계인으로 서기: 행정의 정책은 사람을 담는가



개인(로컬)> 다수> 단체/기관 > 시스템(청년)> 단체/기관> 다수> 개인
지역과 청년 -소통하기 위해 서로간 인식과 배움의 과정이 필요

로컬-지역-청년 : 과연 잘 살까? 서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급자/ 수혜자의 인식에서 상호작용자/ 상호호혜자로의 인식 전환
문턱 낮추기, 친절한 안내자 -위치와 시야의 변화를 정책에 담기

실험하기- 만나기 -실패/갈등 - 수정 -보완 -연결되기



(청년은)능동적이고 (정책은) 입체적인 실험장

감사합니다.

MEMO

MEMO

MEMO

MEMO